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서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9호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수익사업 본격화 사업부 토대 마련

조계종 중앙종회 205차 임시회서 총무원법 개정

조계종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205차 임시회를 열고 종단 현안에 관한 안건 25개를 상정해 처리했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총무원법 개정안은 조계종 총무원 내 사업부를 신설해 현재까지 재무부가 담당한 사업관리 업무와 조계종출판사 산하 유통사업부 사업을 이관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실장 혜일 스님은 "사업부는 직접 운영보다 연구, 관리의 성격이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본격적인 수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법인 등을 고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사업부 출범 준비 등으로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종회에서는 중창주의 위법행위 시 권한을 제한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신도와 스님으로 구성된 공동창건주의 경우 신도가 공동창건주에 한해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직할교구 직영사찰 외 타교구 직영사찰의 관리인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영사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관리인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원로회의 의원이 임기만료시 명예의원이 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정된 종법개정안은 총 9개로 이 중 5개가 통과됐다.

하지만 종회 개원을 앞두고 불교계 안팎에 논란이 일던 종회의원 겸직금지 축소 종헌 개정안은 결국 이월됐다.

종회에서는 이 종헌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실장 겸직시 감사와 견제 기능 작동에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화림 스님도 "94년 개혁정신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초격 스님은 "94년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력 분산화를 통해 종단을 안정시키려는 의미였다. 시대가 많이 흘러 전문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찬반 의견에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표결과 이월에 대한 의사를 물어 결국 이월을 결의했다.

대각회 특별교구 제정안은 대각회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로 이월됐으며, 교구본사 주지 3임 제한의 지방종정법, 중앙종회의원의 호계원 변호가 가능하게 하는 호계원법도 이월됐다. 해외특별교구의 각 국가별 해외지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밖에 과천 연주암을 특별분담사찰에서 직영사찰로 전환 지정하는 동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연주암의 직영사찰 지정은 소속 교구 신청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회주인 자승 스님이 33대 총무원장 당시 직영사찰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중앙종회는 동국대 이사후보로 호성 스님 후임에 자광 · 성무, 보광 스님 후임에 승원 · 정덕, 일면스님 후임에 일관 · 환풍 스님을 각각 추천동의했다. 이

3월 15일 개원, 5개 종법 개정
인사동의안 등 처리, 17일 폐회
종회의원 겸직완화 안건은 이월

에 앞서 먼저 종관위에서 동국대 이사회로 추천된 법산 · 정도스님, 세영 · 성무 스님, 지원 · 정념 스님(흥천사), 정념(월정사) · 원명 스님 등 8명에 대해서는 추인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안도 암도 스님 후임에 종호 · 혜원 스님을 추천동의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감사 경륜스님의 후임에 우하 · 도민스님을 추천동의했다. 또 중앙종회는 인사심의특별위원장 정도 스님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에 성효 스님을 선출했으며, 재심호계위원 노현 스님과 법만 스님 후임에 무상 스님(송광사)과 정현 스님(신흥사), 초심호계위원에 정현 스님 후임에 도현 스님(고운사), 법규위원 경선 스님과 보경 스님 후임에 법광 스님(동화사)과 보경 스님(송광사)을 선출했다.

끝으로 일반회계 252억 여원 특별회계 287억 여원을 승인했으며, 한전부지 환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해설 3면〉



2016조계종 중앙종회 첫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205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단 현안 25개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특히 총무원 사업부 설치에 관한 총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15일 개회식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사안별 비판 아닌 근본 대안 제시"

신대승네트워크 3월 26일 창립… 사업 계획 발표

"1994년 종단개혁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흐릿해진 사명과 사뭇 없이 사라진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에 한국불교의 혁신의제 실현을 '신(新) 대승불교운동'이라 칭하고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것을 제안한다."

서의현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재심판결에 반기를 들며 지난해 10월 발족된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신대승네트워크'로 단체명을 확정하고, △아시아불교 씽크탱크 설립 △신대승 원탁회의 개최 △협업융합미래센터 설립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신대승네트워크(공동대표 김성규 · 전준호 · 이영철 · 박병기)는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창단 배경 및 방향, 사업 계획 등을 공개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1994년 개혁에 동참했던 재가불자들이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살아 움직이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며, 현재 회원수는 118명이다.

신대승네트워크 사업은 '장기적 계획'이란 점에 특징이 있다. 신대승네트워크 측은 "문제발생시 사안별로 비판 · 대응하는 것이 아닌 5~20년간의 전략의제를 기획함으로써 한국불

불교 씽크탱크 · 아젠다 위원회 등
미래 韓불교 장기전략 수립 추진

교발전을 위한 근본적,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전략사업으로는 '아시아불교 씽크탱크'와 '한국불교 대전환 아젠다 위원회' 등이 있다. 한국불교 미래 전략 개발에 집중하는 '아시아불교 씽크탱크'는 5개년 전략의제 기획, 新대승운동 모델(경전 근거 강령, 수행법 등) 개발, 94년 종단개혁 지표 및 총무원장의 개혁 수행척도 조사 및 공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불교 대전환 아젠다 위원회'는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정의평화불교연대와 협업으로 2018년까지 진행된다. 94년 종단개혁 당시 제시된 5대 지표 · 10대 과제 · 22개 사업을 기반으로 현대적 상황을 고려, 발전적이고 거시적인 '미래 한국불교의 그랜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신대승네트워크는 '협업융합미래센터'를 신설하고 불교계 여러 단체들과 공간 및 인력 지원, 정보 공유, 정책 및 사업 공동 생산 등 면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아고라 문화'를 형성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웹-플랫폼 개발 △신대승 e-매거진 창간 △불교계 공동 팟캐스트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신대승네트워크는 3월 26일 오후 3시 안국역 불교스카우트회관 10층 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출가상담 전화 확대 번호 '1666-7987' 변경

조계종 교육원 공지

조계종 출가상담 전화번호가 '1666-7987'로 변경된다. 시간도 기존 오후 2~5시까지 3시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지난 2월 19일 신설했던 출가상담 전화번호 '1666-7987'로 변경하고 시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출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간이 확대된 만큼 기존 출가 상담사 가섭 스님 이외에도 승천 스님과 교육원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범우 스님이 시간대 별로 상담에 참여키로 했다. 또한 부재 중에 착신된 전화는 출가 상담사 스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출가상담을 받을 수 있게 기회의 폭이 넓어져서, 보다 많은 분들이 출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호계원장 성타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종회서 만장일치 선출



성타 스님



지홍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에 성타 스님, 포교원장에 지홍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5일 제205차 임시종회를 열고 호계원장에 前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포교원장에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호계원장 성타 스님은 "부족한 소납을 호계원장으로 임명해줘 책임감을 느낀다. 종단 기강을 엄정히하여 종단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지도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포교 전법 교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포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과제다. 종도들의 많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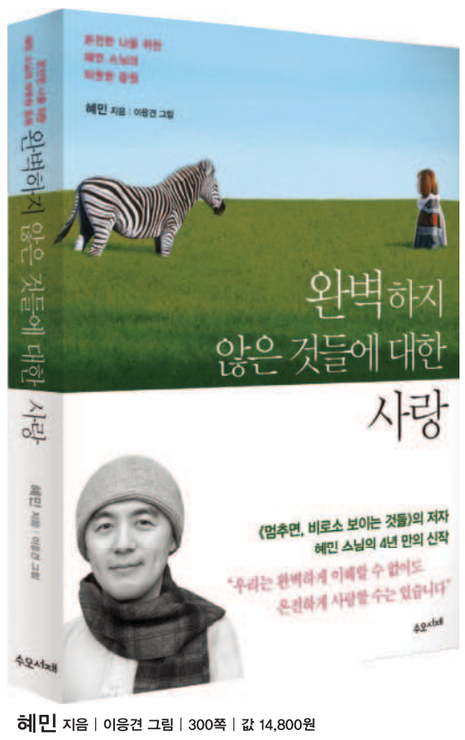
1089호 INDEX

시방세계 5
해인사, 합천여고
'스쿨어택' 콘서트 현장



그대는 자비보살 14·15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혜민 지음 | 이응견 그림 | 300쪽 | 값 14,800원

"혜민 스님 4년 만의 신작,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이라는 여행에서 겪게 되는 힘든 사건은 나를 한번 크게 되돌아보게 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하게 하면서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그 일로 인해 지혜와 자비가 발현되시길….
- 혜민 두 손 모아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 종합 순위

교보문고
YES24
인터파크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몇 번을 읽어도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글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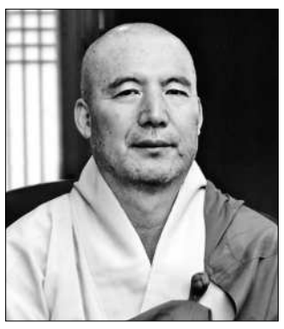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대량구매는 출판사로 문의 바랍니다. 031-901-8835

www.suobooks.com |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 도서출판 수오서재守吾書齋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책을 펴냅니다.

하동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 임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지역포교 힘써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하동 쌍계사 주지에 원정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임명식 후 자승 스님은 원정 스님에게 "총림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과 더불어 잘 운영해달라. 쌍계사가 많은 불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사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또 지역포교에 특히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정 스님은 "대중 화합과 함께 포교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정 스님은 혜원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다. 운흥사, 보리암,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연구실장 원철 스님

3월 17일 포교원 일부 인사 단행

신임 조계종 포교부장에 무각, 포교연구실장에 원철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3월 17일 포교부장에 무각 스님, 포교연구실장에 원철 스님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지홍 스님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현재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 종책 수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무각 스님



원철 스님

포교부장 무각 스님은 혜거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고불총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공생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포교연구실장 원척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1987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및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 · 재정국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개편 박차

불교광장 종삼 스님 회장 선출, 삼화도량 정심회로 변경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이 명칭변경과 신임회장 선출을 통해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은 3월 14일 회장에 종삼 스님(前 화엄사 주지)을 선출했다.

불교광장은 전임회장 지홍 스님이 지난해 12월 동국대 사태로 인해 중앙종회의원직을 비롯한 공직을 모두 사퇴하며 대표직이 공석이었다. 종삼 스님은 12,13,14대 중앙종회의원 지냈으며 화엄사 주지를 연임한 바 있다.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교광장 내 화엄회 회장을 지내고 있었다.

불교광장은 이번 종삼 스님의 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화엄회 회장에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을 선출했다. 정념 스님은 법화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불교광장 사무처장으로 활동해왔다.

이와 함께 삼화도량은 3월 14일 종책모임 이름을 '정심회(情心會)'로 변경하고 초대회장에 법보 스님을 선출했다. 삼화도량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보선 스님을 후보로 추대한 원융 · 백상도량 · 무차회가 구성한 종책모임으로 무차회가 탈퇴하며 규모가 축소됐다.

정심회 회장 법보 스님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각종, 창종 70년 기념 '한국밀교문화총람' 불사 'START'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올해 창종 70년을 맞아 한국 밀교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불사를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밀교 장자종단으로서 역사적 · 문헌적 토대 마련을 위한 이번 편찬 불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0억 원(국고 지원 1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출판 프로젝트다.

우선 진각종은 이번 총람 편찬 불사와 관련해 조직을 구성했다. 총사업단장에 회정 통리원장, 사업실무단장에 교육원장 경당 정사를 비롯해 자문위원으로는 경정 정사(前 교육원장), 덕일 정사(종의회 의장), 종석 스님(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서윤길 前 동국대 교수, 장익 위덕대 교수 등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사업총괄팀장에 교무부장 법경 정사, 운영위원에 당연직 3인(총무부장, 사회부장, 재무부장)과 혜담 정사(한국밀교문헌정보 분과장), 보성 정사(한국밀교사 분과장), 수각 정사(한국진언문화 분과장), 현해 정사(행정 · 전산 지원팀분과장) 등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2월 25일 한국밀교문화총람 제1차 운영위원회와 3월 4일 한국밀교문화총람 제1차 분과장 회의를 잇달아 열고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월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관련 분야별 인력 점검과 총람사업단 발단불단 및 발표회 계획 등을, 3월 분과장 회의서는 분과별 사업과 총람사업 전개 방향, 밀교문화통합목록 작업 현황, 밀교문화총람사업 진행 등을 논의했다. 한국밀교문헌정보 분과는 불교경전으로 분류된 밀교문헌의 목록과 결집 및 이와 관련된 해제출판을 전담한다. 한국밀교사 분과는 한국에 전래된 밀교의 과정과 가치 연구, 인간중심의 신행 형성과정 연구, 통합과 통리의 밀교서 사회적 통합과 소통 문화를 연구 정리한다. 한국진언문화 분과에서는 다양한 진언집 유적, 유물 등 진언문화의 수집, 발굴과 기복 · 기도서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가치를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연구방법은 분과별로 자료조사와 영상, 사진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고사 계획으로 진행되는 한편 통합목록을 작성한 후 3~5월까지 매달 성과물을 제시하고, 주제별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국 밀교의 현세 긍정적 가치 한눈에 조망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투입

총괄팀장 법경 정사는 "이번 편찬 사업은 1700년 한국불교문화서 정립되지 않던 밀교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고 밀교의 현세 긍정적 가치를 미래지향적 삶의 문화로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합과 민족화해, 상생 그리고 발전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정립하고 공유하는 문화 확장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불사에서는 △한국 밀교연구 토대 구축 △한국 밀교의 문화재와 밀교저술을 통한 동아시아 위상 정립 △우리 사회의 통일을 위한 이념 활용 △새로 발굴되는 밀교문화를 전통문화로 발전시키는 원천 마련 및 활용 △밀교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 활용 등을 추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근현대 생활상 알리는 상량 유물 발견

이천 영월암 대웅전 해체 중 상량품 214점 나와

상량문 · 화폐 · 비녀 등 부장품 다양 중건 시기 확인… "건축사적 자료"

근현대 격변기의 생활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다수의 상량 유물이 발견됐다.

이천 설봉산 영월암(주지 보문)은 "지난 3월 10일 대웅전 보수를 위한 해체공사 중 '설봉산보림사중건상량문(雪峰山保林寺重建上樑文)'이라는 제목의 상량문과 화폐, 은비녀, 은장도 등 상량 유물이 발견됐다"고 3월 16일 밝혔다.

발견된 상량문에 따르면 1950년 음력 4월 초파일 중건 당시 봉안한 것으로 당시 도편수 임배근 등이 참여했다. 1907년 이천충화사건에 의해 영월암이 전소된 사실과, 현재의 영월암이 아닌 보림사(保林寺)라는 이름으로 사찰의 명칭이 변경됐던 것도 확인됐다.

그간 영월암 대웅전은 1953년 11월 김해옹(金海翁) 스님에 의해 준공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이번 발견된 상량문으로 6.25 전쟁 직전인 1950년으로 중건시기가 명확히 밝혀지게 됐다.



이천 영월암은 "3월 10일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중 상량문과 비녀, 화폐 등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상량유물 214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

이와 함께 화폐는 상평통보, 건륭통보, 1880년부터 1941년의 일본화폐 등 수십 점이 발견됐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조선, 청, 일본 화폐 모두가 통용됐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초이다.

이번 발견에 대해 영월암 관계자는 "영월암 대웅전은 일제시대에 망실 위기에 있었던 이천향교 풍영루 목재를 전용(轉用)하여 다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암 대웅전의 전신(前身)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천시 관영건축물의 새로운 면모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월암은 현재 이천시 향토유적 제14호로 이천의 유서 깊은 명찰이며, 대웅전 뒤편으로는 바위를 깎아 만든 보물 제822호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이 전해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수륙방생 대법회

4월 3일 충주 월악나루터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법정 스님)가 4월 3일 오전 11시 충주시 월악나루터에서 '제 1회 수륙고혼천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3월 4일 태고종 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주최로 수륙천도 방생 대법회를 봉행키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 전국비구니회 회장 법정 스님은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확고한 위상과 종단의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는 수륙천도 방생 대법회를, 하반기에는 수련법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비구니회장 운정 스님은 치사를 통해 "종단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때 일수록 스님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종단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구니회 측은 전국비구니회가 태고종 창종 이후 처음으로 수륙고혼천도 방생 대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종단안정과 대화합을 발원하는 의미에서 기획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자량資糧입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이을
찾아뵙고 선지식이 머무시는 도량에서 기도 정진하는
「108선지식 구도순례」법회 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3차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 일 정 : 2016년 4월 2일(토) ~ 3(일)
- 장 소 : 경북 봉화 영축산 조계종 축서사
- 소참법문 : 조실 무여스님
- 출발장소 :
  ❶ 4월 2일 오후 12시 30분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수운회관 앞
  ❷ 4월 2일 오후 1시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주차빌딩 앞
- 108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동참 문의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如一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재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써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 그동안 1,2차 구도순례 선지식 친견과 철야 기도정진 법회는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조실 대원 큰스님),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선원장 의정 큰스님)에서 진행됨.
- **「정법빠리사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참된 불자로 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며, 신심을 고양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다. 108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 국내외 자비나눔 활동, 정법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등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비라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격월로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철야 기도정진 진행.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종단 정체성 확립 · 교육기관 통폐합 화두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5차 임시회가 남긴 과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7일 제205차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조계종의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에 대한 기반 법령이 마련됐다.

이번 사업부 개설은 그동안 종단 재정의 80%에 달하는 분담금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분담금을 내는 개별 사찰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에서 추진됐다.

이 같은 목적에도 비영리를 표방하는 종교가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종단 정체성 및 이미지 하락에 대한 부분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지난 2010년 조계종의 생수 판매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경 스님은 "무엇보다 종교 자체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걱정된다. 종교단체가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주요재원으로 삼는다면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발생 시 종단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미지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 진출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 스님은 "종단은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세금 납부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만약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할 시 외부 영리법인을 두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실 측은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비영리민간 단체라도 고유목적의 기본 수익사업은 허용하고 있다. 향후 수익사업 필요시 법인과 사업체 등을 고려해 양명한 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번 종회에서는 중창주의 위법행위 시 권한을 제한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중창주는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하거나 사지를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그 공적을 인정한 것이다. 중창주는 해당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주지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개정 사찰법에 따르면 중창주가 타종단에 가입하거나 탈종한 경우, 중창주가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창주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종단 수익사업에 우려목소리
중창주 권한 제한에 논란 예상
학인 10명 미만 교육기관 6곳
종립대 · 승가대 연계 요청도


제205차 임시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 처리를 두고 종회의원 스님들이 거수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찰법 개정에 따라 현재 중창주인 스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종회에서 법안 처리에서도 중창주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 중창주 권리 상실 조건에 공권정지 징계도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념 스님은 종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근 사설사암을 공찰로 등록한 스님들이 많은데 종단과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종회 종책질의에서는 교육기관 개편에 대한 과제도 도출됐다.

주경 스님은 교육원 질의에서 출가자 노령화와 감소 현상을 짚고 "금년 행자 교육원 입방자가 82명에 불과한데 기본교육기관이 17곳으로 최소한의 입학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비상상황"이라며 "당장 출가자 확대를 통한 입학자 충원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입학정원 축소나 교육기관 통폐합을 통해 교육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원의 2015년 2학기 기본교육기관 학인 현황을 보면 학령당 입학정원인 10명을 충족하는 기관은 17곳 중 6곳(통도사, 운문사, 중앙승가대, 동국대서울, 동국대경주, 기본선원)에 불과했다. 한 학년에 3명 이하의 학인 스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도 6곳에 달했다.

선광 스님은 "특히 중앙승가대도 학생감소가 심각하다. 동국대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충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정 스님도 "타종교의 학교들과 같이 종립대와 지방강원을 캠퍼스 처럼 연계하고 특수학과를 유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교육내실화 측면에서 교육기관 통폐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종 교육기관 및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개하는 봄꽃, 산사서 즐겨봐요"

전국 47개 사찰,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바야흐로 봄이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봄꽃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곳곳에서 유채꽃, 매화 등 아름다운 꽃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는 이때, 고즈넉한 산사에서 봄 기운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3월 16일 전국 47개 사찰에서 실시하는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미당 서정주도 반한 고창 선운사는 동백꽃으로 유명하다. 선운사는 3월 25~27일 '시인과 함께하는 동백 시 문학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동백숲 명상, 시인과의 시간 등이 진행된다. 또한 꽃길 포행을 하면서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요문화재가 많은 하동 쌍계사는 벚꽃 십리길이 아름답다. 쌍계사 벚꽃 십리길은 연인이 손을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 한다는 설화가 전해져 '혼례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쌍계사 템플스테이는 4월 한 달간 매주말 1박2일로 참여 가능하다. 벚꽃길 트래킹과 차담, 단주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평창 월정사는 4월 22~24일 '새봄, 보궁 걷기'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새싹이 돋은 오대산 계곡을 따라 걷는 '선재길'은 겨우내 쌓인 마른 솔잎이 장관이다. 상원사부터 보궁까지는 길이 제법 험해 미끄러지지 않을 만한 신발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외에도 서울 진관사는 '새봄의 소리를 마음으로 보다', 경기도 금강정사는 '꽃피는 소리', 예산 수덕사는 '템플스테이 플러스 고향의 봄', 영광 불갑사는 '불갑사 봄바람 나빌레라', 장성 백양사는 '꽃이 피어 봄이 된다' 등 다양한 템플스테이가 전국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유가족이라도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3월 17일 '세월호 인양콘서트' 개최


세월호 참사 702일 째인 3월 17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세월호 인양콘서트'를 개최했다. 동환 스님의 회심곡 발원으로 행사의 막이 오르자 장내는 눈물바다가 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00여 일을 막 넘어선 3월 17일, 조계종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을 위한 인양콘서트를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세월호 인양콘서트'를 진행했다. 행사는 사회노동위원 동환 스님의 회심곡 발원, 종교인 대표 인사말, 미수습자 가족 인사, 위로 공연, 세월호 가족 합창단 공연 등 순으로 이어졌다.

동환 스님의 회심곡 발원이 시작되자 장내는 눈물바다가 됐다. 동환 스님은 미수습자 9명의 무사 귀환과 함께 "다시는 이 땅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길,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발원했다.

이어 불교계 대표 발언에 나선 사회노동위 도철 스님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면서 "정부의 비협조로 인양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미수습자들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불교계는 세월호가 조속히 인양되고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 수습인양위원회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3월 24일 정기총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3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제 · 개정안과 지회구역 확정, 사업 승인, 원로의원 추대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비구니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18차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 제11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3월 18일 법룡사에서 총회준비위를 열고 17개 지회 지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는 총회날인 3월 24일 총회에 앞서 회관 1층에 '카페 메타(Metta)'를 개소한다. 카페 메타의 수익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02)3411-8103

노덕현 기자

새봄맞아 불교 인문학 강좌 '봇물'

서울 법련사 '동 · 서양 만남'
미붓아카데미 '과학과 불교'

만물이 소생하는 봄, 다양한 주제의 불교 인문 강좌들이 대중을 찾아간다.

먼저,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는 오는 4월 '인문 강좌'와 '미술관나들이'를 특강으로 진행한다.

인문강좌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안삼환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한다. 안 교수는 '토마스 만의 소설과 한국 소설가 이청준(4월 7일)', '쇼펜하우어와 불교(4월 21일)'를 주제로 두 차례 강의한다.

4월 14일과 28일에는 김경아 강사(한국종합예술학교)의 '미술감상' 특강이 진행된다. 법련사 주변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선재센터,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브레인 팩토리,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등 미술공간들을 관람하고 현대 미술의 이론과 실제를 만난다.

각 강좌별 수강료는 3만원이며 두 강좌를 동시에 수강할 시에는 5만원으로 할인된다. (02)733-5322

지난해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을 주도했던 **미붓아카데미**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함께 올해 상반기 강좌로 '불교 안의 과학, 과학 안의 불교(총12강)'를 기획해 오는 4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채식요리 전문점 '마지(MAJI)'에서 매주 금요일 강의를 진행한다.

과학 전반을 주제로 잡은 만큼 다루는 분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부터 자연과학 · 천문학 · 양자의학 · 생명과학 · 의학까지 매우 다채롭다. 강사로는 이상헌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양형진 고려대 과학기술대학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유선경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철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강좌에 대해 미붓아카데미 측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실험적으로 보여진다"면서 "불교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현대과학을 통해 드러낼 것이며, 현대과학이 나아갈 지향을 불교를 통해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붓아카데미의 '불교 안의 과학, 과학 안의 불교' 강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총 강의 참가회비는 20만원이다. (010)5575-7010, (010)4096-139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드디어 출판되다..

제 1 見 석가를 품다
제 2 見 평온 초대장
제 3 見 법(法)을 버리다
제 4 見 차 한 잔
제 5 見 해인 삼매
제 6 見 창조와 표절
제 7 見 야부선사 웃다
제 8 見 요지경
제 9 見 말 많은 석가?
제 10 見 히말라야 영화
제 11 見 동시구족
제 12 見 법맥?
제 13 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 14 見 윈드서핑
제 15 見 발효식품
제 16 見 한 맛
제 17 見 뒤바뀐 안목
제 18 見 평온한 남자
제 19 見 참새집
제 20 見 병(病)든 부처
제 21 見 생화와 조화
제 22 見 직거래 ?
제 23 見 묘혜(妙慧)
제 24 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 25 見 천도(遷度)란?
제 26 見 고구마 부처?
제 27 見 마음속 부처
제 28 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 29 見 범부와 선지식
제 30 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 31 見 다음생
제 32 見 종(鐘)
제 33 見 스승을 찾아서
제 34 見 대자유인의 길
제 35 見 집착을 놓다
제 36 見 종교와 현실
제 37 見 자식인연
제 38 見 형제 인연
제 39 見 도반인연
제 40 見 부부인연
제 41 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 42 見 왕(대통령)
제 43 見 독각(獨覺)은?
제 44 見 <나>
제 45 見 대도(大道)란?
제 46 見 부처님 오신날
제 47 見 신통력(神通力)
제 48 見 보시(기부)
제 49 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 50 見 업(욕심의 흐름)
제 51 見 평온을 만나다
제 52 見 화엄경_7행詩
제 53 見 평온 축제


편저자
독각~진귀 (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도서출판 왕 산
*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JSA법당 기공식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3월 24일 오후 2시 판문점 JSA에서 '무량수전 신축불사 기공식'을 봉행한다.



성남시청서 경전법회

가섭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3월 14일 성남시청에서 공무원불자를 대상으로 경전법회를 연다.



대불청 정기이사회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3월 26일 오후 4시 서울 토즈 선릉점에서 '불기2560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SNS전법단 특강

엄재삼 대한불교SNS전법단장은 3월 1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스마트폰 쉽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모집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2기(~4/7)**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는 4월 7일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2기'를 개강한다. 주요과목은 △사주명리학 △동양 미래예측학 △한국 역학계의 역사와 현주소 등이다. 교육은 7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www.gfca.kr

네팔 지진피해 복원현장 방문

'젊은부처들', 후원금 3000만원 전달



국제구호 NGO단체인 '젊은부처들'(회장 탄경)은 3월 2~3일 네팔 돌라카 지역 지진피해 시설 복원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돌라카는 젊은부처들이 네팔 대지진 발생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공동체 시설 3곳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 중인 지역이다.

2일에는 마을 진입로가 아직도 보수되지 않아 재건공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돌라카 비구 승원 따시 치메 가챨을 방문했다. 회장 탄경 스님은 이 자리에서 "향후 공사가 진행될 몇 년 간 스님들이 거주할 간이숙소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에는 쩌리코트 일대 승원 투제 촬링과 시데 최콜링을 방문해 복원 공사 현황을 점검했으며, (재)아름다운동행이 후원한 네팔 재건복구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새터민 지원책 마련 주력"

신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

"개인적으로 30여 년간 통일운동을 펼쳐왔는데 종단 대북단체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표를 맡게 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종교인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하 민추본)에 법타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민추본 신임본부장 법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타 스님은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이하 평불협)을 이끌며 황해북도 금강국수공장 및 금강빵공장 가동 등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법타 스님은 "남북불교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추본의 책임자로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 대북사업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일운동 30년 경험 살려 종단 대북사업에 박차" 통일교육 체계화 계획

이어 스님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속에서도 종교인으로서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추본이 추진 중인 통일 교육 등 사업의 내실을 다질 것을 다짐했다. 법타 스님은 "단절된 남북정세 속에서도 대화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극으로 치닫는 냉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와 화합' 정신을 끝없이 촉구해야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체계화·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님은 종단 차원의 새터민 지원 사업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단 차원의 대북지원 및 남북불교 사업은 활발히 진행돼 왔으나 탈북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 새터민들 중 일부라도 부처님 품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스님은 현재 소임을 맡고 있는 평불협 회장직에 대해선 "민추본과 평불협은 대북단체로서 각각의 사업적 특성과 가치가 다르다.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라면서 "2곳 단체 대표직을 병행할 지 여부는 각 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타 스님은 추담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은해사·선원사·원효사·기림사·자재암 주지 및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대 정각원장 등 역임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분야별 전문가 조직 구성하겠다"

박대성 제3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불도 부산을 위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역대 회장님들의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제3대 신임회장에 박대성 現사무총장〈사진〉이 선임됐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3월 1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성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회 조직력을 강화하고, 역대 회장들의 활동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이 닦아 놓은 발판을 기반으로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조직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려 한다. 신도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만큼 그분들의 공통관심사를 모아 분야별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교육을 담당할 부산불교 최고CEO컨퍼런스동기회, 의료봉사를 위한 조직, 스포츠 및 취미를 위한 활동 모임, 합창단 등 다양한 조직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현재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진행하고 있는 108인회 구성 및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부산불교 역사를 돌아보고 호국불교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부산불교 100년사〉는 차질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도 책정했다. 2018년 3월 1일에 맞춰 발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성 신임회장은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사 및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3월 28일 부산불교연합회 총회에서 정식 증명 절차를 거쳐 2년간 공식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하성미 기자**

"불자수필가 저변 확대 노력"

한국불교수필문학회 창립 준비하는 김대원 수필가



"불교계에 시인 등을 위한 단체는 있지만 수필가를 위한 단체는 없습니다. 불자 수필가들을 발굴해 역량을 키워 포교하고 싶습니다."

불자수필가들을 위한 한국불교수필문학회(가칭)가 올 상반기 내에 창립할 예정이다. 이를 준비하고 있는 하전(夏田) 김대원 수필가〈사진〉는 3월 16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김대원 수필가는 "오래 전에 불교산악인연합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조계사에서 신행생활하면서 늘 불교와 함께 해왔다. 근래에는 문학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수필가들을 위한 조직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인원파악이 되진 않았지만 불자 수필가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반기 내에 창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수필문학회 창립은 김대원 수필가뿐만 아니라 맹난자 수필가와 문윤정 작가 등 내로라하는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선적으로 불자수필가 저변을 넓히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반인들을 위한 수필강좌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문학회 창립에 앞서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하전 수필문학교실' 무료강좌를 개최한다. 이후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수필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중앙승가대, 성역화 기금 5000만원

3월 17일, (재)아름다운동행에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행 스님이 3월 17일 (재)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 불사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중앙승가대 임직원 및 학생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됐다.

원행 스님은 "모든 임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줬다"면서 "조그만 성의지만 성역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운문사, 법계장학금 전달

8명에게 각 300만원씩 수여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3월 12일 경내 종무소에서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인재 양성을 설립한 법계장학회 장학금을 학인스님과 불자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운문사는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5명과 불자학생 3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탑골노인자원봉사단 발대식

3월 16일, 총 10개 분야서 봉사활동



탑골노인자원봉사단이 '선배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탑골노인자원봉사단(이하 탑골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탑골봉사단은 400여 명 어르신이 참여하며, 앞으로 10개 분야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부처 핸섬!”

〈Put your hands up〉

랩·토크 어우러진 소통의 야단법석

해인사 주최 합천여고 ‘스쿨어택’ 콘서트 현장



“Put your hands up!”불자 래퍼 아웃사이더 공연에 합천여고 학생들이 뜨겁게 호응하고 있다. 해인사가 3월 11일 개최한 ‘스쿨어택’ 콘서트는 찾아가는 눈높이 포교 현장.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학생들이 무대를 향해 뛰쳐나왔다. 힘찬 함성을 내지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즐거움 그 자체다. 손을 들고 함께 뛰며 가수와 하나가 되듯 폭발적인 반응으로 환호하는 자리,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여자고등학교 ‘스쿨어택’ 공연 현장이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3월 11일 합천여고 강당에서 토크 뮤직 콘서트 ‘스쿨어택’을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포교현장을 목표로 해인사가 불교행사전문 기획사 ㈜올윈과 함께 기획한 콘서트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개최한 이번 콘서트는 그야말로 뜨거운 ‘대기설법(對機說法)’의 현장이자 소통의 시간이었다. 가수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콘서트 현장에 함께 한 스님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던 청소년들은 친근함으로 주지 향적 스님의 법명을 부르며 환호했다.

학생들의 환호 속에서 향적 스님은 무대로 올라가 인사말을 전했다. 향적 스님은 “공부의 참된 의미는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집중함을 의미한다.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참된 대상을 찾아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많은 어른들은 해인사의 소중함을 잘 알고 찾아오는데 학생들은 불교를 많이 낯설어하고 법보종찰 해인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직접 찾아왔다. 마음껏 누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합천여고 스쿨어택 토크콘서트에는 국가대표급 속사포 랩으로 유명한 불자 래퍼 ‘아웃사이더’가 출연했다. 그는 8년이 넘는 무명생활을 극복하고 노래 ‘외톨이’로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기 까지 겪은 일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난 언제나 자신을 믿거든’이란 주제로 진행한 토크쇼에서 가수 아웃사이더는 “청소년기에 언론인이 되고픈 꿈이 있었지만 학창 시절 겪은 여러 상황으로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오래 방황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또 다시 찾아온 가수라는 꿈을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좋은 결과는 반드시 찾아 올 것”이라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아웃사이더 외에 언프리티 랩스타의 히로인으로 불리는 ‘타이미’, ‘프리마테’, ‘큐리어스’ 등 힙합 뮤지션 가수들이 출연해 뜨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콘서트 전 해인사와 ㈜올윈은 ‘스쿨어택’ 공식 페이스북에서 고백 메신저 코너를 만들어 학생들의 사연을 미리 받았다.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코너에서 사연을 올린 학생 가운데 2명이 선정됐다. 그 가운데 정은아 학생은 이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윤한솔 학생은 집이 초계라는 지역이라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등교해도 학교 행사 일정이 있는 날은 시간을 맞추기가 벅차다며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번 ‘스쿨어택’ 고백메신저는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간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꼽았다.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가 귀 기울여주는 관심 속에서 고민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 한결 가벼운 심정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주지 향적 스님은 직접 무대에 올라 고민을 나눈 학생들에게 선물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콘서트에 참여한 이아현 학생은 “쉽게 볼 수 없는 연예인을 직접 보니 신기하다. 꿈이 언론인인데 토크 콘서트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며 “또한 스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어렵고 근엄하고 다가서기 힘든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현장에서 만나니 너무나 친근하고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감사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민정 학생은 “집이 해인사 근처라 자주 사찰을 찾고 스님들을 뵈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뵈니 더 가깝게 느껴진다”며 “오늘 주제가 꿈이여서 나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내 의지를 다시 굳건히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불교행사전문 기획사 ㈜올윈은 청소년 포교를 위해 ‘스쿨어택’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스님들께 설명하고 25교구 본사 및 사찰과 네트워크 연결망을 이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심동준 ㈜올윈 대표이사는 “불자인 아웃사이더를 비롯해 저희들은 상업적인 것 보다는 청소년 불교 포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천=하성미 기자



스쿨어택’ 콘서트에서는 아웃사이더의 공연과 함께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는 토크도 진행됐다.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다.

청소년 ‘꿈’ 위한 대기설법 현장

불자 래퍼 아웃사이더 출연해

랩 공연·좌절 극복 경험담 나눠

200여 학생들 뜨거운 호응 보내

“스님과 친해졌어요” 한목소리

교사들과도 끈끈한 소통의 시간

“찾아가는 불교, 행복을 전합니다”

Interview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이 3월 11일 열린 ‘스쿨어택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학교 폭력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 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도 주려면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 마음을 열기 위한 첫 시작으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스쿨 어택’이라는 토크 콘서트의 제목처럼 쳐들어가듯(?) 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는 주지 향적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4월에 있을 해인사 정대불사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많은 대중들이 찾을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하다 ㈜올윈 심동준 대표이사와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심동준 대표가 ‘스쿨 어택’에 대해 설명해주더군요. 불교를 믿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통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는 사찰 내 대중이 많아 그동안 지역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회로 좀 더 사회에 환원하고 학생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주지 향적 스님은 앞으로의 포교 방향에 대해 밖으로는 문화 포교로 나아가며 내부로는 누구나 쉽게 찾아와 편히 쉬어가는 쉼터와 같은 곳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지난 해 북카페 갤러리 ‘다로경권실(茶爐經卷室)’을 열었다. 이곳은 소규모전시, 북콘서트를 통한 저자와의 만남,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적 스님은 마지막으로 “해인사를 찾는 사람들이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마땅히 쉴 공간을 찾지 못했다. 문턱을 낮추고 모두와 함께 하는 해인사를 꿈꾼다. 앞으로는 해인사를 찾아오는 분들 뿐 아니라 시간이 없어 부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 행복을 전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양초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절오빠’ 들이여, 더 이상 부끄러워 말라

‘절오빠절언니’ 2주년… 성장 동력은?

불과 몇 년 전이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절집오빠’와 ‘절집언니’라는 표현이 우스갯소리로만 쓰였던 그때. 단순히 ‘교회오빠’라는 상징적 이미지에 반발해 ‘절오빠’를 부르짖어도 도통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물론 소수지만 절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었음에도 당당하게 ‘절집오빠’ ‘절집언니’라고 밝히지 못한 것은 그 희소성에 여간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종교’라는 불교에 대한 꼬리표는 청년 불자들의 자신감을 옭아매는 멍에와 같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요즘, 절집오빠 · 언니에 대한 인식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편한 불교’ ‘쉬운 불교’를 모토로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만의 장이 마련되면서 각지에 은둔하며 지내던 청년 불자들이 하나둘 양지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교청년허브를 표방하는 모임 ‘절오빠절언니’가 있다.

지난 3월 12일, 서울 홍대 라실리아에서 절오빠절언니의 2주년 축하파티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30여 명에 달하는 청년불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다. 인터넷포털 카페 회원은 어느새 120명을 훌쩍 넘겼다. 무엇이 청년불자들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운영진인 강민지 씨는 가장 큰 이유로 ‘청년 불자들의 욕구’를 꼽았다.

강 씨는 “우선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절오빠절언니라는 허브가 교량역할을 한 것”이라며 “꾸준한 홍보, 모임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 또한 크게 작용했다.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은 저절로 모인다는 생각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청년 불자들 욕구에 귀 기울여
가벼운 주제로 관심 끌어내
청년 위한 소통의 場 ‘인기’
불교 대중화가 궁극적 목표

절오빠절언니는 그동안 인터넷방송과 SNS 등을 통해 꾸준하게 청년 불자들과 소통해왔다. 그래서 주제 역시 무겁고 복잡한 것보다는 불자로서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올해에는 새로운 기획으로 꾸민 템플스테이와 멘토링 프로그램, 타 단체와의 협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4월 3일에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남녀사찰음식 쿠킹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원 누구나 기획자가 될 수 있게 아이디어 소통 창구를 열어놓았다. 이 같이 꾸준한 변화로 성장하고 있는 절오빠절언니지만 여기에도 고충은 있다. 바로 재원 마련이다.


3월 12일 홍대 라실리아에서 열린 ‘절오빠절언니’ 2주년 축하파티에는 30여 명의 청년불자들이 참여했다.

강 씨는 “운영진과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을 하지만 영향력을 더 키우려면 일정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운영진 역시 사회생활이 바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절오빠절언니가 원하는 역할은 호텔의 로비와 같다. 여기에는 자생하는 공부 · 수행모임도 있고, 지역사찰 청년회에 가입을 추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회원’ 개념보다 절오빠절언니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불교의 대중화, 즉 세상을 불교적이고 인간적인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24개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다. 그리고 달려갈 방향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기에 청년불자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된다. 절오빠절언니 블로그 http://templebrothersister.com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法의 수레바퀴 굴려 불국토 건설하자”

포교사단 출범 16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이 지역단별 단기를 전달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포교현장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더욱 넓은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회 포교사의 날 및 출범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을 비롯해 전국 포교사 지역단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기중 단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활동조직과 포교인력 확충, 포교회관 마련 등 외적 성장을 이뤘다. 이제는 포교활동 내실화를 위해 포교사의 사명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자세로 전법활동에 힘써야 할 때”라며 “젊은 세대의 종교 무관심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포교사들이 더욱 본분에 충실하고 종단외호와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해 불자들로부터 인정받는 포교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후 전법활동과 사회봉사로 모범이 된 포교사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부산지역단 최덕수 포교사를 비롯한 37명과 서울지역단 서부 군1팀을 비롯한 34개 팀이 총무원장 · 포교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달동네에 번지는 우리네 웃음소리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앞서 백사마을서 봉사


엄홍길 대장(왼쪽)이 백사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쌀을 전달하고 있다.

오는 4월 13~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앞두고 (사)날마다좋은날 임직원과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3월 1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2016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행복바라미 홍보대사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최현주 · 볼링 금메달리스트 손연희 선수가 참여했다.

이날 봉사에서 이기흥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홍보대사들은 직접 백사마을 가정을 방문해 쌀과 모자를 전달했다. 이들이 백사마을에 전달한 쌀은 10kg 120포. 양 어깨에 쌀 포대를 짊어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닌 홍보대사들은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행복바라미를 통해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에 물품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정말 고맙다”며 행복바라미 측에 감사의 인사를 했다.

윤호섭 기자

참선으로 나를 달래자

미황사, 7박8일 템플스테이

꽃샘추위마저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요즘, 내 안의 화를 내려놓고 희망을 찾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3월부터 매월 ‘땅끝부터 찾아오는 희망의 봄’이라는 주제로 7박8일 템플스테이 ‘참사랑의 향기’를 실시한다.

일정은 4월 9~16일(94회), 5월 21~28(95회)일 등이다. 20~65세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공양비는 50만원이다. ‘참사람의 향기’는 7박8일 참선수행 프로그램으로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뿐만 아니라 다도 · 묵언 · 오후불식 · 법문 · 수행문답 등 체계적인 일정을 통한 참선공부가 진행된다.

미황사는 이외에도 4월 2~3일 진행되는 ‘봄맞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화전놀이와 봄나물 뜯기 등이 진행되며 청소년과 성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봉은사, 불교대학원 등 신설… 봄맞이 ‘한창’

3월 11일, 모집정원 초과 100명 이상 신청 성황

올해 첫 신설된 봉은사 불교대학원 입학식에는 당초 모집정원보다 많은 신도들이 접수하며 성황을 이뤘다. 불교대학원은 봉은사가 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 보다 전문 · 심화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새롭게 마련한 전문교육과정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3월 11일 보우당에서 ‘제9기 봉은불교대학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총 신청인원은 104명(불교학 53명 · 선학 51명)으로, 이는 기존 모집정원인 80명(각 학과별 40명)을 초과한 수치다.

봉은사가 불교대학원을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대학을 졸업한 수강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불교교육을 실시하고자 기존 ‘봉은아카데미’를 확대 · 개편했다.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며, 수강생들은 출석일수의 80% 이상 강의에 참석할 경우 수료할 수 있다.

이날 입학식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기초학당과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불교대학원이란 마지막 과정에 임하는 여러분은 불자로서 큰 산에 오른 것”이라며 “부처님 공부는 처음과 끝이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명 스님은 선학과를 별도 신설한 것에 대해서 “봉은사는 역사적으로 선종의 대 본산이었다. 선학의 가치를 드높이고 널리 선양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봉은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2016 봉은사연화합창단’ 발대식도 거행했다. 봉은사연화합창단에는 약 120명 어르신들이 함께한다.

봉은사는 기존에 청년부 및 어린이부 합창단을 운영해 왔으나, 어르신들만으로 합창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봉은사 측은 “기도와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행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음악은 모든 연령대가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화합창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3월 11일 보우당에서 ‘제9기 봉은불교대학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봉은사연화합창단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찬불음악 합창연습을 실시, 향후 사중 행사 · 법회 등에서 음성포교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따스한 봄엔 찬불가로 佛心 다져요

불레협 등 찬불가 대회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찬불가로 불심을 다지는 잔치가 열린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4월 1일까지 ‘제28회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 참가자를 접수한다. 예선은 9일, 본선은 23일 각각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만 4세~16세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참가부문은 독창 · 중창 · 합창이며, 대상 1팀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각 부문별 시상이 이뤄진다.

좋은벗풍경소리는 4월 15일까지 ‘2016 부처님오신날 기념 붓다콘서트 찬불가 열창대회’ 참가자를 접수한다. 예선은 4월 24일 오후 2시, 본선은 5월 19일 오후 7시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02)723-9836 윤호섭 기자

전국 지사 모집

● 15년의 노력을 통하여 탄생된 운명상담! 간단히 입력을 마치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학생들에겐 학과선택. 효율적 학습법. 좌,우뇌발달. 진학년도 성적여부. 학교예측. 부와 명예 중 발달 분야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 언제 재물 또는 목적실현이 잘 될까 그래프를 보며 상담이 진행된다.
(학생 3,500명. 성인 2,500명 대상, 연구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지사 운영 대상
종교인(스님). 교육분야. 상담심리사.
철학인. 직업상담사
직업이 필요한 분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한국어 능통자 환영)
● 학생용 (남.여) ● 성인용 (남.여)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강의 안내 : 매주 화 · 목요일 명리학 강의



비 전
● 입력 즉시 인생 전반에 걸친 자료 나온다.
부모관계. 배우자관계. 자식관계. 형제관계를 한눈에 보고 판단해준다.
●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직업을 갖어야 좋은가를 알려준다.
● 언제 형편이 좋아지고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
※ 궁금하신 분은 연구실에 방문하여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에 숨겨진 나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 오픈 예정

프로그램 유형

생년월일 입력	설문응답	설문응답(재학생)	숫자에 얽힌 운세
[고객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이 름	이 름	이 름	이 름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윤달여부 네( ) 아니오( )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쌍 둥 이 네( ) 아니오( )	안 내 /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가) 귀하가 전공하는 과목은 계열 : 학과 : (나) 현재의 과정은 어디에 해당 4년제( ) 전문대( ) 기타( ) (다) 재학중인 학교명 첫자는? ( )	선 택 숫 자 / 다음의 숫자 중 선택하고 싶은 숫자에 클릭하셔요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핸폰번호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다 음 검사하기
이메일			
내신등급			
검사하기 평생운( ) 1년 신수( )			

※ 생년월일 입력시 16장 출력 ※ 1년 신수 5장 출력 ※ 설문응답 15장 출력 ※ 숫자에 얽힌 운세 5장 출력 ※ 주민번호에 의한 후천직업 5장 출력

진로적성힐링 상 담 소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401호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
문 의 : H·P 010-5418-5972

대한불교 원효종
중앙 종회의원 당선자 확정 공고

당선자 명단

▶울산교구 : 청암스님
▶충남 대전 교구 : 일륜스님. 자성스님
▶전남 광주 교구 : 마명스님. 수월스님
▶경북북부 교구 : 성죽스님
▶제주교구 : 향봉스님
▶전북교구 : 무공스님

2016년 3월 10일부로 대한불교원효종
중앙종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대한불교원효종 선거관리위원장 석 불
선거관리위원 : 정운. 현수. 무공. 혜진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충현로 3길 4-1
전화 054)743-0700 / FAX 054)741-9002

실생활 도움 AI 多… 미래 로봇윤리 연구 필요

3월 화요열린강좌… 주제 '인공지능과 사람…'

장병탁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기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기도 한다. 우리 삶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온 인공지능. 인류에 해일까 득일까. 인공지능 전문가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3월 15일 열린 대한불교진흥원 3월 화요열린강좌에서 "인공지능과 사람은 서로 협조관계에 있다. 현재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많다"며 "추후 인공지능에 대한 도덕 · 윤리 연구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장병탁 교수는…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마쳤으며, 독일 본(Bon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국립전산학연구소(GMD)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

최근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을 수 없다고 믿어왔는데 이번 대결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진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인공지능과 사람은 서로 협조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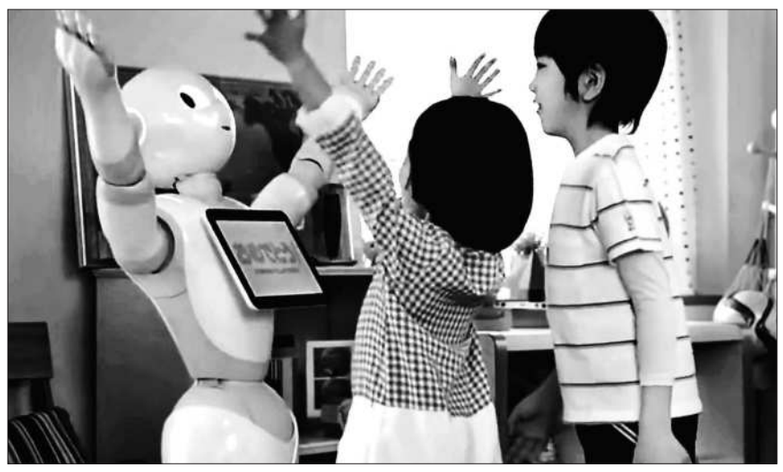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정도 전부터입니다.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절차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인지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인공지능도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어집니다. 알파고 역시 이런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 초기에는 연구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뇌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이후에는 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뇌와 몸은 하나라는 관점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알파고는 바둑을 위해 계산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돌은 사람이 놔준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입니다. 약 3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의 바둑대결이 있기 20년 전, 체스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넓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투자하면 그 자본을 불려주는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이 생겼습니다. 영국 은행에 로봇이 고객을 상담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갖는 것은 엄청 많은 데이터를 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기계는 금방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바둑에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인지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학습까지 하게 됐죠. 바둑 챔피언들이 둔 바둑기보를 보고 알파고 성능이 올라가는 것처럼 증권가 인공지능은 펀드매니저들의 의사결정을 보고 학습해 성능이 올라갑니다.

인공지능 학습능력 갖춰 성장
방대한 데이터 분석 뛰어나

과학기술 발전 환영하면서
인류 대체 우려도 두드러져



소프트뱅크 인공지능 로봇 페퍼(Pepper)

인공지능은 사람과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인간 대 기계의 대결이 종종 펼쳐졌습니다. 체스대결 이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는 IBM이 만든 인공지능 왓슨(Watson)이 제퍼디 퀴즈쇼에서 챔피언들을 가볍게 승리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바둑의 세계까지 들어왔고요.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 학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할 때 기존에는 연구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넣어줘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정보까지 넣으면 직접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을 차는 로봇 시연이 있었습니다. 이 로봇의 학습원리는 시행착오인데요. 골대와 키퍼를 세워놓고 로봇이 공을 찼을 때 공이 들어가면 상점을 입력하고, 공을 넣지 못했을 때는 벌점을 줬습니다. 로봇은 공을 계속 차면서 상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런 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수 둬보고 결과적으로 진다면 그 부분을 피하도록 하고, 이긴다면 다음에 그 수를 더 두도록 하는 것이죠. 계속 이기는 쪽으로 흐르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옛 인공지능과 현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도우미로서의 로봇

지금까지는 학습하고 인간과 대결하는 인공지능을 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 경우에 따라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걱정해야만 할 일은 아닙니다. 도우미로서의 로봇이 훨씬 우리 삶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구글 무인자동차나 애플의 시리(Siri)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벌써 몇 년 전 얘기일 정도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고, 비서처럼 예약을 도와주거나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호텔에서 심부름을 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사비오크(Savioke)에서 개발한 로봇 릴레이(Relay)인데, 예를 들어 칫솔을 특정 방에 갖다 주도록 입력하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전달합니다. 방에 도착하면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요. 인사도 잘합니다. 바둑 잘 두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지 않나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인간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표정을 짓는지, 더 나아가 뇌신호와 제스처까지. 단순한 지능을 넘어 사회성에 대한 연구도 이어집니다.

1990년대 MIT에서 개발한 키스멧(Kismet)은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말에 반응합니다. 눈과 눈썹, 귀, 코, 턱 등이 각각 움직이면서 표정을 만들어내죠. 사람의 말에 따라 즐겁거나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2002년에 등장한 레오나르도(Leonardo)는 우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렘린'을 연상케 하는데요. 키스멧이 그냥 로봇 같다면 레오나르도는 인형 같습니다. 눈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사람의 얼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더 정교하게 감정을 읽고 반응합니다.

이런 연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개인 서비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지보(Jibo)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가전제품 같은 로봇인데요. 요리하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 문자를 받아준다든가, 가족들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줍니다. 물론 식당예약도 하고, 애인이 전화했던 것도 받아둡니다. 가격은 60만원 정도인데 미리 예약을 받고 있죠. 아마 올해 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의 페퍼(Pepper)입니다. 손님을 안내하는 로봇인데요. 생김새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알파고의 통신망이 미국에 있는 본체에 연결돼 바둑계산을 하듯이 페퍼 또한 무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도 하죠. 국내에도 곧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뽀로로봇(Pororobot)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만화영화를 로봇이 공부하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특히 뽀로로 만화영화 영어버전을 공부해 아이들의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용 로봇 연구 확대되며
인간에 대한 연구도 발전

"인류 도움되는 AI가 다수"
어떻게 쓸지 함께 고민해야



호텔 심부름을 하는 릴레이(Relay)

인공지능 전망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전망은 어떨까요.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화입니다.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JARVIS)는 전투나 비행 등에도 도움을 주지만 비서나 집사 역할도 수행합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Her'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남자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개봉한 로봇&프랭크는 노인과 로봇의 교감이 이뤄집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영화도 많습니다. 2001년 개봉한 'HAL'에는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 탑승자가 나가려 하지만 인공지능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두고 갈 수 없다며 반항하는 것이죠.

물론 이 같은 일은 과학 픽션이고 미래에 올지 안 올지, 혹은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이 현재로써는 분명 유용하고 산업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연구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윤리 · 도덕 등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호킹은 최근 "인공지능을 너무 많이 발전시킬 경우 인류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모터스 CEO 앨런 머스크는 안전한 AI를 개발해달라며 MIT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연말에는 인공지능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돼 위험해지거나 불평등이 팽배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1조원을 들여 여러 사람들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Open AI'입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기술을 공평하게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끝나고 어느새 인터넷 댓글은 알파고를 사람 대하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좋은 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대결에서 "사람이라면 절대 두지 않을 곳에 돌을 뒀다"고 해설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겼죠. 이걸 두고 사람들은 '계산된 수'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불분명합니다. 마치 의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해석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어느 철학자에게 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사람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봉 **원효성사 열반성지 골굴사(혈사)** 행

12처 석굴사원 원형복원을 위한 마애여래불 다례제



신라 천년의 아름다운 미소와 섬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골굴사 마애여래불 (보물 제581호)

산곡과 동천에 무량광의 밝은 빛을 비추며 기적을 행하던 영험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골굴사 마애여래불의 가피와 기적을 찬탄하고 불자님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육법공양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제는 원효성사의 마지막 혼이 깃든 골굴사(혈사)에서 열림과 동시에 인도석굴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내 유일 12처 석굴사원의 원형 복원을 알리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양의 공덕을 통해서 불자님과 불자님 가정에 마애여래불의 이적과 성취가 함께하길 기원하는 이번 다례제는 경주지역 불교문화의 한 장을 형성하고, 골굴사와 마애여래불의 신앙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의 동참으로 한해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이번 다례제에 동참하시어 수승공덕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 **상주 기도안내** : 원효성사의 열반지인 골굴사에서 상주하며, 기적과 치유의 신비를 나투던 마애여래불전에 스님들과 함께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가행정진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일 시 : 불기 2660년(2016) 3월 26일 오전 10시
장 소 : 골굴사 대적광전 **문 의 :** 054-744-1689
내 용 : 마애여래불 다례제 – 육법공양 / 대적광전 개금불사 회향 점안식 / 진달래 화전 템플스테이

원효성사 열반성지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혈사) 주지 적운 합장

실제 · 가상의 경계 무너진 자리, 무엇이 남을까

미래 과학기술과 불교 – ② 가상현실(VR)과 불교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갤럭시S7 공개행사장. 이 자리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하드웨어와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로 세계 최고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을 구현하겠다."

이 말이 전해지면서 VR은 글로벌 IT 업계의 화두가 됐다. 실제 VR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미래 과학사업의 새로운 경제 먹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세컨드 라이프'를 아십니까

VR은 사이버 공간의 일종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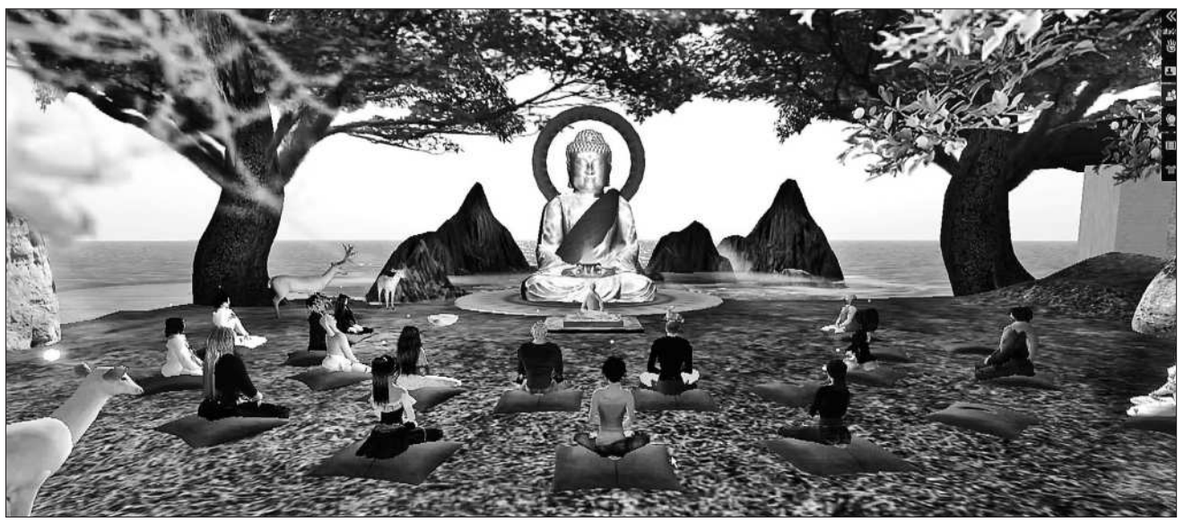
이 같은 VR 기술이 상용 · 대중화되면 인간의 생활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교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가상 사찰을 통한 법회, 의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린든랩에서 개발한 온라인 VR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의 아바타를 지정해 플랫폼에 들어서면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 된다. 공부를 해도 되고,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이는 '린든 달러'라는 화폐가 통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불교수행과 신행생활도 이뤄진다. 그 가상공간 안에서 붓다 센터라는 대규모 불교 명상 사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 870만 명이 10년이 넘게 즐기고 있는 '세컨드 라이프'를 보면 이미 현실과 가상이 무너져 있음을 알게 한다.

현실도 가상도 모두 '허상'

그럼 불교에서는 이 같은 VR을 어떻게 봐야할까.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교계도 사이버공간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인식 논의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펴낸 〈디지털시대의 문화변동〉(2001)에 실은 논문 '힌두교와 불교에서 가상현실의 의미'에서 "컴퓨터의 디지털 기술로 창출된 것들은 실재하지 않은 가공의 것이지만, 이를 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일찍이 세계를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헛것'이라고 간주한 인도의 현자들은 이 세계가 컴퓨터의 가상현실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베단타 철학에서는 가상현실을 마야로, 불교에서는 망분별이라고 불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린든랩에서 개발한 온라인 VR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의 붓다 센터 모습. 이곳에서 사람들은 아바타를 통해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는 등 신행생활을 영위한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VR기술 개발에 IT업계 촉각
게임 등 감각매체 발전 전망
VR사이트 '세컨드라이프'서는
불교센터 운영… 경계 무너져

감각 인식되는 현상은 '가상'
VR · 실제 현실 결국 환영일뿐
실제 · 가상 통합 불교 윤리 필요

이어 "실상은 수시로 가상이 되고, 가상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눈 앞의 것은 현실'이라는 고정 관념 속에 의존해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VR도 실제 현실인 양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 미학을 전공한 명법 스님도 '디지털시대의 불교예술 혁신'(2012)에서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처럼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미지를 변형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실 못지않게 현실적인 것으로 체험된다"면서 "동일한 현실성을 갖는 VR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경험과 현실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번뇌'

결국, VR이라는 과학기술을 제외하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인간 인식기관인 육근을 통해 이뤄진 번뇌와 허상이다. 문제는 이같은 번뇌가 자본과 만난 기술이 결합될 때 나타난다.

실제 VR 개발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군은 △섹스 △게임 △스포츠다. 미국 온라인 포르노 업체 노티 아메리카가 올해 1월 VR 포르노 콘텐츠를 발표하며 "올해 말이면 1000~2000만 명이 VR 성인물을 시청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가중시킨다.

이에 대해 정승석 교수는 "컴퓨터에 의한 가상 현실은 우리를 가상 속에서 또 하나의 가상으로 끌고가는 세계인 것"이라며 "오직 여기에 탐닉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상의 교란이 초래할 이성의 교란이나 마비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VR 시대에는 현실과 가상을 통합해낸 새로운 윤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된바 있다.

김유신 부산대 교수와 윤종갑 부산카톨릭대 겸임교수는 논문 '〈중론〉과 가상현실의 형이상학'을 통해 "VR은 실제 세계를 벗어나는 독립적인 세계가 아니라, 언제나 보금자리인 현실세계에 회귀해 자신의 의미와 방향을 획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두 세계가 갖고 있는 상의성을 잘 해석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통합시킨 새로운 윤리와 삶의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다르면서 같았던 박한영과 이능화

고영섭 교수, 세계불교학硏 세미나서 비교 · 고찰

영호당 박한영 스님(1870~1948)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학승이자 시인이며, 선지식이었다. 이능화(1869~1943)는 재가자이면서도 불교를 깊게 연구했던 학자였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박한영 스님은 임제종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불교운동을 이끌었고, 〈조선불교통사〉와 같은 명저를 남겼음에도 이능화는 대표적인 친일 사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박한영 스님과 이능화의 행적과 연구방법 등을 비교 ·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3월 12일 세계불교학연구소 3차 세미나에서 '영호당 박한영과 상현 이능화의 학문과 방법'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고 교수는 박한영 스님과 이능화가 전통의 재현과 현대화의 통로를 모색했던 선지식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았다. 또한 문학 · 역사 · 철학(이하 문사철)의 전통을 계승하려 했다는 점도 유사한 부분이라고 봤다.

고 교수는 "박한영 스님은 선사 · 율사이면서도 국학 전반에 대해 박학했고, 이능화 역시 한국 종교와 민속, 지리에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면서 "이들의 학문적 기반이 불교를 기저로 하고 있었고, 불자로서 당시 한국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회한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박한영 스님



이능화

행적 · 연구방법 등 비교하면
문화주의 · 민족주의로 귀결
"학자 이능화 재조명 필요"

이어 "박한영 스님은 문사철 중 문학과 철학에 집중했고 이능화는 만년에 역사와 문화에 치중했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몸소 보여준 것은 문사철의 계승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통사(通史)를 기술하면서 민족적 입장을 대변했던 것도 유사한 부분이다. 박한영 스님은 불교사 전체를 개괄하는 통사로서 〈불교사람요〉를 강술했다. 스님은 이를 통해 세계불교의 현황을 짚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몇몇 오류와 서술 상의 한계를 보이지만, 1930년대 한국불교는 근대불교학의 성과를 반영해 체계적 불교사 교재를 편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능화도 한국의 불교사를 집대성한 〈조선불교통사〉를 기술했다. 고 교수는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를 통해 민족주의, 문화주의, 문헌실증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선불교통사〉는 불기(佛紀)를 먼저 쓴 다름 우리의 기년, 주변국의 기년을 서술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해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객석에서도 이능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민영 박사(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이능화를 친일로 낙인찍은 것은 이기백 선생 등이 있던 한국사학회다. 이들은 항일 아니면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역사를 봤다"면서 "이능화도 민족의식이 철두철미했다. 새로운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하다니 료타이와 후카우라 세이분 △말라라세케라와 자야틸라케 △에드워드 콘즈와 램버트 슈미트하우젠 △도널드 로페즈와 루이스 고케즈 등에 대한 연구 방법 비교가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중국 종파불교 원류 '지론종'을 살피다

금강대 '지론종 문헌과 정영사 혜원' 국제세미나

지론종은 인도 유식학자 세친이 〈화엄경〉 '십지품'에 대해 주석을 단 〈십지경론〉을 연구했던 분파다.

510~580년까지 중국 북부에서 융성했던 지론종은 천태 · 화엄 · 선 · 정토 등 중국 종파불교가 성립에 초석이 됐다.

중국불교 사상의 원류 지론종을 탐구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는 오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론종(地論宗) 문헌과 정영사 혜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국불교 사상사의 뿌리와 같은 지론종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돈황 사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론종도 주목받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론종과 관련한 돈황 문헌에 대한 연구들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또한 지론종을 대표하는 정영사 혜원 스님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다수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성카이 중국 청화대 교수의 '승현(僧賢)과 업성 불교-대제고사문대통승현묘명을 중심으로' △오타케 스스무 일본 하나조노대 강사의 '지론종의 불신론' △박보람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초빙교수의 '지론종 육상설 고찰' △창루 베이징 중국불학원 강사는 '지론사에 대한 고찰' △이케다 마사노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의 '돈황 출토 지론종 교리집성문헌 스타인 613V 제21장 경변오주지번뇌의에 보이는 아비달마 교리에 대해서' △츠리메이 일본 쓰루미 대학 불교문화연구소 준교수는 '속고승전 본문 및 그 특색-권8에 실려 있는 정영사 혜원전을 사례로' 등이 발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 2560(2016)년

선암사 부설 태고경남전문강원 4기생, 경전 연구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강원을 운영중이며
4기생 및 경전 연구반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4기생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초발심,사미율의,치문	서장,도서,선요,절요

경전 연구반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경전연구반 : 학장스님과 면접 후 결정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기신론	원각경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종무원 ☎ 전화 055)298-3634 / 팩스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양덕동)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태고총림 선암사 부설 경남전문강원 학 장 법 성
경남전문강원 강원장 호 명 합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 (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6. 4. 2(토) 오후 1시부터 ~ 4. 3(일) 오후 4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 (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10,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내 집처럼 편하게 사찰서 쉬다가세요”

울산 황룡사, 3월 15일 문화공연봉사 첫 개최

공양간 뒷문을 열며 울산 황룡사 주지 스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도록 해야 한다’며 봉사자들에게 당부했다. 황룡사 공양간 내 좌측에 위치한 문은 큰길로 바로 연결된 곳으로 누구나 황룡사로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통로이다. 무료급식을 한 달 전부터 시작했다는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은 사찰을 집처럼 찾고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황룡사가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바로 ‘찾아가는 문화공연봉사’이다. 무료급식으로는 지역민이 스스로 찾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적극적인 포교를 위해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3월 15일 황룡사 북카페에는 지역 어르신 100여명이 자리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봉사’를 꾸며 줄 심명예술단(단장 서옥희) 단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살풀이 춤, 경기 민요, 가요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단원들의 공연이 마칠 때 마다 박수가 쏟아졌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춤을 추고 음악이 끝날 때마다 앵콜을 외치고 환호했다.

공연을 본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즐겁게 편히 있었으며 절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니 마치 사랑방이 생긴 것처럼 행복다고 입을 모았다.

임충자(79) 씨는 “기도 수행처로만 생각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사찰에 흥겨운 음악이 넘치니 기분이 좋다. 집에서 무료하게만 지내다 공연 소식을 듣고 처음 와봤는데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또 찾고 싶다”고 말했다.

황룡사 신도인 공정옥(65) 씨는 “현재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갈 곳도 없고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 황룡사에서 그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입소문을 많이 내야 겠다”고 즐거워했다.



울산 황룡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봉사’를 3월 15일 개최했다.

매월 셋째주 어르신 위해 봉사
소외 주민위한 포교 원력 ‘눈길’
무료급식소에는 매일 60명 찾아

주지 황산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도 갈 곳이 없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이 자리는 부처님이 계신 정토”며 “부처님 앞에서 놀고 즐겁게 계시는 것도 수행이다.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며 집처럼 편히 생각하고 쉼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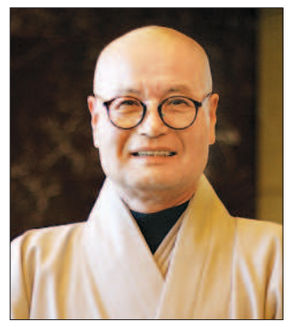
황룡사는 전체 신도 가운데 청소년과 30~40대 비율이 총 70%다. 젊은 불자가 많은 도량으로 유명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봉사와 포교활동의 원을 세우며 이번 문화공연과 무료급식을 마련했다.

앞으로 황룡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봉사 홍보를 위해 미리 노인 회관을 방문하고 사찰 차량도 운영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초대할 계획이다. 무료급식소는 현재 매일 낮 12시~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이며 지역 어르신 60여 명이 찾고 있다.

하성미 기자

“대승불교 참된 뜻 실천위해 노력할 터”

태고종 경남종무원 제 16대 원장 법성 스님



“대승불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불교가 복지와 문화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손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은 3월 12일 창원 풀만 호텔에서 종무원장 이취임식 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법성 스님〈사진〉은 복지를 강조하며 대승불교의 자비 실천을 역설했다.

법성 스님은 “현대와 미래에 걸 맞는 불교의 모습은 바로 복지다. 중생을 위한 자비실천을 담는 대승불교의 뜻이기도 하다”면서 “제가 가진 복지 노하우를 더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소임 기간 중에 종무원 원사를 건립하고 교육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성 스님은 “작년 10월 경남불교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인가를 받았다. 지금 경남 종무원 활동을 펼치기엔 장소가 협소해 종무원 원사를 불사하고자 한다”며 “종무원 원사는 복지 시설과 경남강원 · 불교대학 운영을 위한 장소로 회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성 스님은 1979년 청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자비마을을 운영하며 지역 내 노인과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을 운영했다. 현재 경남 함안 백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우리 아이들 스님과 인연 맺어요”

혜원정사, 16일 유발상좌 수계식

부산 혜원정사(회주 원허)가 출가재일을 맞아 3월 16일 유발상자 수계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아래〉

회주 원허 스님과 인연 맺기 위해 유아와 부모 10여 명이 함께 한 유발상좌 수계법회에서는 매년 출가재일을 맞아 10년 동안 봉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계 받은 유아는 1000여 명에 이른다.

수계법회는 한글로 푼 부모은중경 독경으로 시작해 유발상좌 의미 설명 및 수계식과 계첩 수여로 진행됐다.

원허 스님은 “스님과 인연 맺는 것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유발상좌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주고 있다”며 “수계를 받고 법명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기억이 마음에 남는다. 오늘 수계를 통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비로자나불,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산청 내원사, 4월 9일 국보 승격 기념 법회

산청 내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보로 승격 · 지정됨을 축하하는 법회가 봉행된다.

산청 내원사(주지 영산)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승격 봉축기념법회를 오는 4월 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보승격 봉축기념법회는 1부 봉축 법회와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 법회에서는 대웅전과 비로전 육법공양,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축하 법문이 마련된다. 축하공연은 산청 지역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판소리 및 국악인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주지 영산 스님은 “법석을 여는 가장 큰 이유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많은 불자와 지역민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국보인 부처님을 모시는 데 어울리는 전각을 새롭게 지어 나가고 있는데 찾는 모든 이들이 환희심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보 제233-1호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해 주지 영산 스님이 설명하고 있다.

국보 제233-1호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86년 납석제호(蠟石製壺)가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납석제호는 내원사 비로자나불상의 좌대에서 나온 것으로 비로자나불의 조성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납석제호 명문에는 ‘영태 2년(766) 병오 7월 2일에 법승(法勝), 법연(法緣) 두 승려가 두온애랑(豆溫哀郞)의 추복(追福)을 위하여 석조비로자나불을 조성하고 무구정광다라니를 함께 봉안하여 석남암수(石南巖藪) 관음암(觀音巖)에 안치하였다. 이 공덕으로 두온애랑의 영신(靈神)과 발원인 두 승려와 함께 일체중생 모두가 삼악도의 업을 멸하고 성불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제작연대 영태 2년은 신라 혜공왕 2년(766 년도)를 의미해 한국 현존 최고(最古)비로자나불로 판정됐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1990년 내원사 비로자나불도 보물로 승격되었다가 지난 1월 7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했다.

하성미 기자

‘운수사 대웅전’ 보물 지정서 전달식

3월 12일 개최… 부산 最古 목조물 의미

부산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896호로 지정된 운수사(주지 유정) 대웅전의 보물 지정서 전달식이 3월 12일 개최됐다.

주지 유정 스님을 비롯해 신도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은 △개회사 △문화재보물지정서 전달 △환영사 및 경과보고 △축사로 진행됐다.

운수사 주지 유정 스님은 “보물로 지정되기 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이성갑 사하구신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운수사 대웅전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하던 당시 송판이 떨어지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1683년 기와 중수, 1771년 3차 중수 등 기록이 적힌 송판을 근거로 주지 유정 스님은 문화재에 요청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부산 운수사 대웅전은 2013년 전면 해체 수리를 실시하고 1647년 공사를 시작해서 1655년 완공했음을 확인했다.

운수사 대웅전은 부산 지역 현재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됐다.

하성미 기자



운수사 주지 유정 스님은 3월 12일 대웅전 보물 지정서를 문화재청에게서 전달받고 있다.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3㎝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 @2,500원(60개이상)
• 바림·공단등(8㎝) @3,000원(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 @6,000원(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 @13,000원(6개이상)
• 바림·공단등(20㎝) @35,000원(2개이상)
• 바림·공단등(30㎝) @90,000원(1개이상)
• 황 금 등(6㎝) @2,700원(60개이상)
• 황 금 등(8㎝) @3,300원(30개이상)
• 황 금 등(10.5㎝) @6,500원(16개이상)
• 황 금 등(13㎝) @15,000원(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장성 상무대 초군장교 환영법회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법문

"그동안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장성 군법당인 상무대 무각사(군법사 혜징)는 3월 13일 '초군장교 입교 환영대법회'를 열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포병학교장 이재형 소장, 초군장교 불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법요식과 법문, 점심공양, 선물증정 등이 진행됐다.

지선 스님을 법회에서 "불성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본질이다. 불교는 모든 생명을 부처라고 한다"며 "불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 · 평등 · 평화 · 행복이라고 하며 인류가 이루어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초군장교를 포함 모든 불교인들은 불성을 찾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교로 임관하는 불자들이야말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어 자신의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법했다.

행사는 법회 외에도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의 봉사와 운천 스님의 짜장면 공양, 다양한 위문품 전달 등이 이어졌다.

장성 상무대는 전체 5000명 규모의 초군장교 교육부대다. 보병, 포병, 공병, 기갑, 화생방 등 각 병과별로 4개월간의 교육을 진행하며, 야전부대 배치 시 실질 전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3월 13일, 신임회장에 안준아 불자

지난 27년간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주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13대 회장에 안준아 불자가 취임했다.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는 3월 13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이근재 전임회장 이임식과 안준아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화엄불교대학 학장 성우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13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안준아 신임회장은 "화엄불교대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사부대중의 지혜와 원력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기수별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화엄불교대학이 전국제일의 불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안준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동문회장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리 깊고 분별 있는 사고로 주인의식을 갖고 소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근재 전임회장, 성우 스님, 안준아 신임회장

안준아 회장은 화엄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전임 집행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부회장에 정창운 · 김기운 · 하유호 · 엄현숙 불자, 사무총장에 이승규 불자, 사무국장에 강대후 불자, 재무국장에 안윤주 불자를 선임했다.

한편 화엄불교대학은 이에 앞서 12일 불교대학 28기 70명, 화엄학림원 23기 35명의 입학식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불교사진가 양성 나서

사진문화기획단 5월까지 집중 교육

사찰의 사진을 담을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좌가 열려 불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지난 3월 9일부터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등, 천룡사 주지)을 결성하고 사진 전문강좌를 개설했다.

전체 15주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디지털 사진기의 기본 이해, 카메라조작, 노출 · 속도 · 감도 이해, 구도와 프레임 등 사진 찍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각 사찰의 사진과 불교행사 사진에 대한 실기,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 내용도 더해져 불교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 23명이 참여한 이 강좌는 광주불교회관에서 5월까지 진행되며, 광주지역 불교행사에 대한 공동의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무등 스님은 "불교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사진문화기획단을 결성했다. 특히 각 사찰에서 시각자료를 남기지 않아 사찰의 소중한 역사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사진문화기획단을 통해 각 사찰과 광주불교의 소중한 모습들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 광주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사진으로는 광주사진가협회장인 선종백 교수와 윤혜숙 작가가 참여해 이론과 실기를 전담한다. 사진문화기획단은

15주간 사진전문강좌 실시
지역 불교행사 사진에 담아
연간 활동하며 홍보 담당
"광주불교 알리는 포교사들"

각 사찰과 단체를 대표하거나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신도들로 구성돼 있다.

강좌에 참여한 강민협 씨(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는 "그동안 사찰 행사사진을 많이 촬영했지만 늘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강좌에 참여해보니 정말 좋았다. 앞으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불교사진강좌 교육 모습.

광주불교연합회는 부설기구로 사진문화기획단(사진영상특별위원회)을 구성해 지난 1월 각 사찰별로 홍보를 펼쳐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2월 예비모임을 갖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 2시간(이론과 실기 각 1시간) 진행하며, 매월 1회 정기 촬영대회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사진문화기획단은 각 사찰 사진 촬영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및 전통등 전시회 △불교행사에 참여한 스님 및 신도들의 행복한 모습 △광주불교를 알릴 수 있는 사진 등을 찍고, 각종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올려 홍보를 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각 사찰의 사진전과 빛고을관등회 사진전, 광주불교 사진전시회, 광주불교의 5년, 10년 사진전, 화보집 발간, 2017년도 사진전 공모와 송년행사 등에 참여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 기공

연건평 4800㎡ 규모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전주 혁신도시 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현사가 건립된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3월 13일 완주군 이서면 수현사 건립부지 현장에서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현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도덕성을 지키며 평화롭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현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전주 혁신도시 신도심 포교 허브역할을 맡게 되며 불자들의 포교와 전법, 신행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주지역에 도심포교당이 많지 않아 그동안 신행과 포교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자들이 수현사에서 보다 쉽게 불심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산사 포교당 '수현사' 기공식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닦고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한다는 의미의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47번지 혁신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200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4808㎡ 규모로 건립되며, 5층은 추후 전통한옥양식 대웅전과 종각이 세워질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부지매입대금 약 11억 원, 공사비 약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수현사에는 유치원, 식당, 강의실, 생활관, 대법당, 소법당, 사무실, 방송국이 들어선다.

990여만㎡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는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을 마쳤거나 이전을 준비 중이며 이들 기관의 직원 수만 4700여 명에 달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불교계, '자비의 쌀' 후원 잇달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3월 16일 '제9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사찰과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자비의 쌀 1600kg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개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불교단체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는 17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진안읍 유유상 씨 외 11개 읍면 50가구에 전달됐다. 탑사는 지난해부터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오고 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도 이에 앞서 12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600kg을 전달했다. 쌍봉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30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불교와 스님들 타락상에 대한 풍자 넘쳐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㊵ 호랑이로 변한 현장법사



그림 · 최주현

덜떨어진 지혜지만 지혜가 앞장서던 길과 계율 잘 안 지키는 욕망에 따라가는 길이 같을 수가 있나. 손오공 쫓아낸 현장법사 일행, 제 발로 요괴 소굴에 떨어진다. 아무리 눈이 어둡기로 그럴 수가 있냐구? 당연히 있지! 이야기를 들어봐!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삼쾌선생이 요약 압축 실력을 좀 발휘해야 할 듯~

저팔계 먹을 거 찾는다고 나서서 농땡이, 낮잠 쿨쿨~

그 저팔계 찾아 나선 사오정 이리저리~ 둘레둘레~

혼자 기다리던 현장법사, 이리 저리 산보삼아 걷다가 거룩한 불탑을 보았네.

환희심 내어 찾아들고 보니 황포(黃袍)요괴라는 흉악한 요괴의 소굴~

당연히 덜커덕 잡혀 다음 끼 식사거리로 대기~

그런데 황포요괴, 요괴에 걸맞지 않은 예쁜 부인이 있다. 보상국이라는 나라의 백화수(百花羞)라는 공주인데 요괴에게 납치되어 억지로 요괴부인노릇 하는 중… 요괴가 뒤늦게 달려온 저팔계 사오정과 싸우는 사이 현장법사와 요괴부인 속닥 속닥~제가 요괴남편 설득하여 풀어드릴 터이니 보상국에 들리셔서 제 사연 전해 주소서. 그리하여 눈물 젖은 보상국 공주의 편지를 품에 안고 현장법사 일행 무사히 요괴 굴을 벗어난다.

보상국에 당도하여 국왕 알현하고 편지 전하니 우선은 눈물바다~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다음은 분노의 바다~내 딸 납치해간 요괴 놈을 당장에!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요괴 잡아오겠다고 나서는 이 없다. 여기에 팔푼이 저팔계의 명예심과 만용이 작열! 팔 걷고 나서는구나. 할 수 없이 사오정까지 뒤따라 나서 다시 요괴 소굴 찾아가 한바탕 해보지만 역시 둘이 덤벼도 이기질 못한다. 거기에 다시 저팔계의 농땡이가 작열! 아우야, 자연이 나를 부르는구나. 잠깐 뒤좀 보고 올게 혼자 좀 싸우고 있어.

둘이 싸워도 힘든 싸움에 혼자 감당이 되겠어? 사오정 비참하게 패해 잡혀 들어가고 요괴는 공주 부인을 의심하여 사오정을 심문한다.

"공주가 몰래 자기 구해달라는 편지 보낸 거지??"

사오정 재주는 별로지만 심지가 곧다. 여차저차 공주를 위해 변명~

요괴는 공주에게 의심한 것을 사과하고 헌칠한 장부로 변신하여 보상국왕을 찾아가서 여차저차~ 정식 사위로 등록! 저는 사냥꾼으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던 공주를 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도술을 배워 당나라 중으로 둔갑해서 여기 와 있군요. 사위인 제가 그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현장법사에게 푸~하고 물을 뿜어대니 현장법사가 호랑이로 짜잔~

요괴가 의인(義人)으로 변하고 성승(聖僧)은 요괴 호랑이가 되었네. 저팔계는 농땡이 중, 사오정은 요괴소굴에 잡혀있는 중, 현장법사 호랑이 요괴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중, 이거 다 끝난 이야기? 아니다! 마지막 히든카드, 용마(龍馬)가 있다. 요괴가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틈을 타 과감히 덤벼들어 보지만 역시 힘이 달려~ 형편없이 두들겨 맞고 도주…

농땡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난 저팔계 돌아와보니 부상당한 용마만이 눈물로 맞는구나.

저팔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때려치우고 고가장으로 돌아가 사위노릇하며 지낼 궁리~용마가 설득한다. 그래선 아니되오! 대도를 향한 이 길을 그리 쉽게 그만두어선 아니되오. 원숭이 사형을 찾아가 달래서 데려 와요. 저팔계가 대꾸한다. 원숭이 사형을 날 보면 패기부터 할 걸? 여의봉 한방이면 난 그대로 끝이야.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소. 원숭이 사형이 그래도 스승 생각하는 마음 간절하니 잘 달래면 반드시 달려올 게요. 설왕설래…여차저차…그래서 저팔계 화과산 수렴동으로 달려가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던가? 저팔계가 은근히 사람 속여 꼬드기는데 재간이 있다.

슬슬 감정을 자극한다. 현장법사가 늘 원숭이 사형을 그린다오~

그리고 늘 원숭이 사형이 제일이라고 한다오~

손오공, 코끝이 찡~그래도 사부가 날 알아주고, 날 그리워하는구나~

저팔계 본격적으로 공작에 돌입! 그런데 그 사부가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전말은 여차저차…. 그 요괴한테 원숭이 사형 이야길 했더니 코웃음 치며 그 따위 원숭이는 단매에 때려 죽여 원숭이 육젓을 담아버리겠다 합니다.

손오공 펄펄 뛴다. 이놈의 요괴 너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역시 내가 아니면 안되지! 한번 스승은 영원한 어버이! 자! 이제 다시 손오공과 황포요괴의 한판 드잡이질이 시작될 판~

어? 나칠계님 왜 처음부터 불퉁한 표정을? 으흠…. 앞의 이야기에 여차저차가 너무 많다구요? 요약 압축 실력을 보인다더니 결국 모두 여차저차로 넘어가냐구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대목은 모두 여러분들이 뛰어난 상상력을 채워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도 감탄할 그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라구요. 그러면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서유기 한편이 나오는 거죠. 여차저차~ 나올 때마다 상상력 동원령을 내리세요! 하하!

자,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죠? 욕망의 부추김을 받아 지혜를 축출했으니 험한 꼴 당하리란 것을 불을 보듯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손오공이 아직 제 성질 못 버리고 발끈 발끈하지만 요괴 알아보는 눈하고 싸움 실력은 저팔계 사오정 다 합쳐도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 손오공을

황포요괴 술수에 변해

보상국서 처형 기다려

거룩함 속에 타락 묘사

내 쫓았으니 어찌 되겠어요? 자비심 넘치고, 수행에의 의지야 철벽처럼 굳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지요. 당장 거의 본성적으로 게으름을 타고난 저팔계의 농땡이가 사단을 불러일으킵니다. 먹을 거 구하러 가서는 퍼질러 지게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걱정된 현장법사가 저팔계 찾아오라 사오정 보내고, 혼자 있기 무료하여 산보 나선 것이 요괴의 굴로 떨어져 버립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한 불탑 같은데 실은 요괴 소굴! 황포요괴라는 요괴에서도 괴수급 되는 요괴의 소굴이네요.

이 대목 혹시 서유기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지 않았는가 싶어요. 서유기 곳곳에는 은근히 불교와 스님들의 타락상에 대한 풍자와 고발이 깔려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거룩한 불탑, 속 들여다보면 요괴소굴! 현실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꼭 불교만 말할 필요 없지요. 수많은 사교들 보세요. 겉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한가요? 속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추악한가요? 그런 사교들이 저질러온 끔찍한 사건들…. 언론 매체들에 보도된 것만 해도 또 얼마나 많은가요? 거룩한 불탑의 외형을 가진 요괴소굴이라는 그림은 아마도 이런 사이비 종교의 모습과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꼭 불교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구요. 언제나 바른 종교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모든 종교는 흉악한 요괴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더더욱 추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현장법사 요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당나라 성승의 고기라면 죽고 못 사는 요괴, "이게 웬 떡이냐!"하면서 탁 잡아채 버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뒤늦게 잠자던 저팔계 깨워 달려온 사오정이 요괴 소굴 찾아내고 현장법사 구하려 싸움을 벌이지만, 이 요괴가 정말 보통을 넘는 요괴네요. 둘이 덤벼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행히 요괴의 잡혀와 요괴부인 노릇하고 있던 백화수(百花羞) 공주(미모로 모든 꽃들을 기죽이는 공주란 뜻)의 도움으로 요괴의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 벗어난 게 아닙니다. 공주의 편지를 전하는 것이 다시 빌미가 되어, 현장법사가 요괴의 술법에 당해 호랑이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손오공이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군요. 어허, 나칠계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역시 손오공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전개…. 너무 뻔한 전개 아니냐구요? 그래요, 뻔해요! 그렇지만 손오공 불러오게 하는 주체가 용마인데, 그 용마가 손오공을 불러오려 생각하는 대목의 제목이 "뜻 말이 마음 원숭이를 생각하네!"(意馬憶心猿)라고 된 의미는 아세요? 뻔한 전개 같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라구요. 다음 시간에 그 의미 해석해 드릴테니, 미리 생각이라는 것도 한번 해가지고 오시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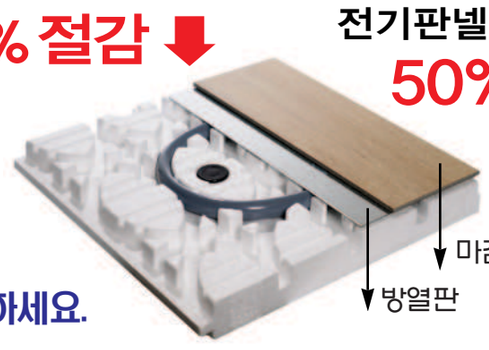
헤헷! 독자 여러분께 한 말이 아닙니다요. 오직 나칠계님께…. 다음 주에 뵈어요.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신라 고찰서 證心하며 春 마중을…

'나'를 찾아 떠나는 山寺紀行

광주 증심사


증심사 대웅전 전경 모습.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한국전쟁당시 불탄 것을 1971년 중건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1호다.

며칠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다시 봄 맞이를 하듯 따뜻한 기운이 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꽃바람이 아직 내륙에는 닿지 않았지만 사람들 옷차림의 변화는 벌써 민감하다.

날씨가 풀리고 꽃이 피면 사람들은 산과 들로 꽃구경을 간다. 빛고을 광주 시민들은 무등산을 간다. 시민이라면 한번쯤 무등산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친근한 곳이 무등산이다. 무등산(無等山)이란 명칭은 고려 때부터 불려진 이름으로,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란 뜻이다.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은 세간의 모든 중생과 같지 않으므로 무등(無等)한 것이요, 부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견줄 이가 없기에 무등등(無等等)하다' 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무등산을 대표하는 사찰 중 가장 중요한 사찰을 꼽으라면 증심사(證心寺)를 말한다. '마음을 증득한다' 는 의미의 사찰이다. 증심사는 광주 동구 운림동에서 무등산 중머리재를 오르는 산머리 왼쪽에 위치한 사찰로 송광사 수말사이자 광주 명승지 1호의 문화유산이다.

마음을 증득하는 곳, '증심사'

대부분의 절은 그 절이 지어진 내력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의 일과는 다른 데가 있어 신비롭고 환상적인 스토리일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종교적인 공간이다 보니 그리 윤색되는 면이 있다.

증심사는 통일신라시대인 860년 철감선사(澈鑒禪師) 도윤(道允) 스님이 개창하고, 고려 선종 11년인 1094년에 혜조국사(慧照國師)가 중수했다. 조선 세종 25년인 1443년에 김방(金倣)이 다시 중수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게 된다.

이후 광해군 원년인 1609년이 되어서야 석경(釋經) · 수장(修裝) · 도광(道光) 3대 선사가 힘을 모아 중창하게 된다. 그 후 신도들의 정성으로 몇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전쟁 때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 다시 1970년에 이르러서야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복구되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찰이다.

그럼 증심사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마음을 증득하다' 는 뜻을 가진 증심(證心)은 왜 붙여졌을까. 증심사는 창건과 관련해 독특한 연기설화를 지니고 있다. 신라시대 무주땅에 한만동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이야기는 한만동의 할아버지가 태수 벼슬을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태수의 집에 득이라는 종이 있는데 툭하면 술에 취해 상전에게 대들기가 일쑤였다. 어느날 술에 취한 득이가 사라져 버리자 노한 한태수는 득이의 처를 광에 가두고 만다. 봉변을 당하게 될 득이의 처는 갓 시집온 한만동의 어머니가 도와 도망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한만동의 어머니가 돌아가 초상을 치르는데 한 스님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증심사 신라삼층석탑

자신은 생전에 은혜를 입었던 득이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 무등산 자락에 묘 자리를 잡아 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만동은 승주 고을의 원님이 되었고 집안에도 점점 부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 궁금했던 한만동은 지관에게 그 자리를 살피게 했는데 지관은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라며 옮기라 하였다. 이를 믿어버린 한만동은 하인을 시켜 묏자리를 파기 시작했고 한 노승이 나타나 이를 말렸다. 지관에게 속은걸 알게 된 한만동은 다시 묏자리를 메우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노승은 절을 세우고 불공을 드리라 일렀다. 그때 한만동이 액땜하기 위해 노승이 잡아준 터에 세운 절이 지금의 증심사라고 한다

조선시대 때인 1500년대의 책들에 '증심사' 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가 1800년대 이후에 '징심사(澄心寺)' 라고 불렀다는 기록만이 남아있다.

지금도 무등산을 올라가는 많은 시민들과 증심사를 찾는 신도들이 저절로 마음을 증득하는 수행자가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을 듯 하다.


대황사에서 모셔온 철조비로자나불

통일신라 860년 철감선사 도윤 개창
광주 명승지 1호의 문화유산 도량
해마다 오백전서 '오백나한제' 열려
90cm높이의 철조 비로자나불 '압권'

오백 나한과 얽힌 사연 전해져

증심사의 창건과 관련된 설화 외에도 불사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도 전해진다.

조선시대로 넘어와 세종 임금 때 광주에 경양방죽을 축조한 김방이 관세음보살의 현몽을 좇아 세 번째(1443)로 증심사를 크게 일신시켰다 한다. 이곳에 오백나한을 모시고 오백전을 지은 이도 김방이었다. 하지만 정유재란(1592) 때 불탔고 광해군(1609) 때 석경, 수장, 도광 스님에 의해 한 차례 더 큰 불사가 있었다. 일제 때에는 한국불교의 정통임을 자부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하기도 하였다.

그 후 증심사는 한국전쟁 때인 1951년 4월 22일 밤 9시에 불이 나 대웅전, 명부전, 극락전, 회승당, 취백루 등의 건물이 불타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오백전을 화마로부터 지켜냈다는 점이다.

지금도 해마다 오백전에는 '오백나한제' 가 열린다. 스님들의 바라춤과 영산재, 그리고 화마를 이겨낸 오백나한들의 영험함을 받기위한 기도객들로 붐빈다.


비로전 및 오백전 전경


증심사 고려오층석탑(사진왼쪽)과 조선칠층석탑

예술성이 넘치는 문화재 많아

증심사 경내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석탑 3기가 모셔져 있다. 특이한 점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석탑으로서 예술성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경내에는 지방문화재인 오백전(五百殿) · 3층석탑 · 5층석탑 · 7층석탑 · 오백나한(五百羅漢) 및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 · 석조보살입상 등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 3층석탑은 통일신라시기 탑으로 증심사 창건 이후의 역사를 대변한다. 대웅전을 우측으로 돌면 3층석탑이 모습을 보인다. 통일신라 말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철감선사가 증심사를 창건한 시점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땅과 맞닿은 기단부가 2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으로 탑을 쌓아올린 형태로 높이가 3.41미터다. 높지 않은 높이에 기단이 두툼하기 때문에 퍽 안정감이 느껴진다. 거기에 지붕모양인 지붕돌의 네 귀퉁이를 하늘을 향하도록 추켜올려 경쾌함까지 전해준다. 화려한 장식이 없는 대신 정제된 우아한 맛까지 살아있는 탑이다. 1971년 해체 복원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고려 후기 만들어진 5층석탑은 복장유물을 잃어버린 사연이 있다. 5층석탑은 탑 자체보다는 탑 내부에서 나온 보물들로 더욱 유명해졌다. 1933년 해체 수리를 하던 중에 탑 안에서 19센티미터의 5층 철탑을 비롯해 작은 철부처 2구, 수정 1개, 염주로 추정되는 청옥 23개, 그리고 금동불 2구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금동불 2구는 통일신라시기 유물로 국보로 지정될 만큼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것들이었다. 이 중 부처님이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석가여래입상' 은 크기가 15.9센티미터로 작은 불상이었다. 나머지 1구의 불상은 '보살입상' 으로 크기가 18.2센티미터로 금동불이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쓴 보관이며 두르고 있는 옷의 결 따위가 섬세하고 정교하게 살아 있었다.

국보급 불상의 출토에 세상은 떠들썩 했다. 다행히 이 2기의 불상은 증심사 대웅전 내 유리상자에 보관돼 일반인이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1948년, 여순사건이 터지게 된다. 무등산 일대에 빨치산이 자주 나타나자 광주경찰서가 이를 보관한다. 여기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난 중에 이 유물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말았다. 결국 국보 2점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 탑에서 발견되었던 나머지 유물들도 그때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7층석탑은 조선 중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탑신 부분에 연꽃과 산스크리트어를 새겨 넣은 단순하고 소박한 양식의 탑이다.

대황사서 옮겨 온 철조비로자나불

안타까운 사연은 증심사의 철조비로자나불에도 전해진다. 이 불상은 처음에는 대황사라는 고찰에 있던 불상이었다. 오래전 폐사된 이후 대황사지에 1934년 전남도청이 들어서게 된다. 그로 인해 대황사에 있던 철조대불을 1934년 증심사로 옮겨왔다.

처음 이 철조비로자나불이 모셔진 곳은 대웅전이었다. 1963년 보물 131호로 지정된 뒤 1970년대에 비로전을 새롭게 지어 모시고 대웅전에는 삼존불을 모셨다.

이 철조비로자나불은 약 90센티미터 높이로 타원형 얼굴에 길고 예리한 눈. 머리카락은 고동처럼 곱슬곱슬한 나발형이다. 고개를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었고 양쪽 어깨에 걸친 옷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형상이다.

증심사에는 이처럼 신라 고려 조선시기의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서로 닮은 듯 각자의 색깔을 발산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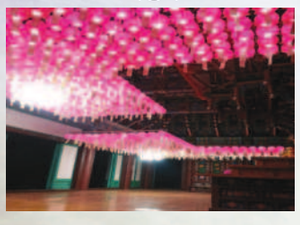
광주=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시공전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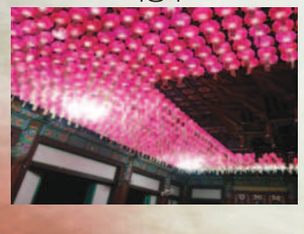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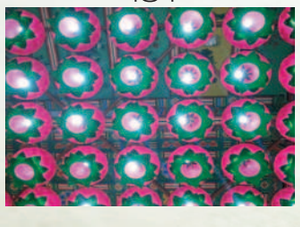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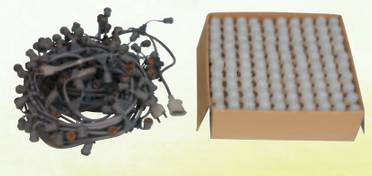
▶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 비닐만월등



▶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 황금등 : 8cm
*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계파별 법맥 계보 정리… 정통성 강조

30. 불교역사서 찬술과 전통의 집성

조선후기에는 불교 전통에 대한 자료 집성과 불교사 인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각종 전등계보와 승전, 사찰의 역사를 담은 사지 등이 만들어졌고, 이들 불교역사서의 찬술은 대부분 18세기 후반 이후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에는 북학과 서학을 필두로 하여 외래 신사조가 조선에 신속히 유입되었고 사상과 문예 등 여러 분야에서 전환기적 모색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적으로 역사전통의 집성 작업이 활발히 일어났다. 즉 역사서, 백과전서식의 유서, 족보, 문집 등의 편찬 및 간행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그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보여주는데 불교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후기에 나온 불교역사서 중 대표적인 책은 1764년 편양파 사암 채영이 편찬, 간행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이다. 이는 현재까지 조선시대 불교의 법통, 법맥, 계파, 문파에 대한 일차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과거 7불과 석가모니 이후 선의 심법을 전수한 인도, 중국의 선종 조사 법맥, 고려 말 태고 보우의 임제종 법맥 전래를 기점으로 하여 18세기 중반까지의 승려 계보를 수록해 놓았다. 그런데 해동불조원류라는 명칭에 맞지 않게 신라와 고려의 조사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뒷부분에 산성(散聖) 항목을 두어 몇몇 주요 인물만 간단히 소개하였다. 본문에는 태고 보우에서 시작하여 청허 휴정으로 이어지는 임제태고법통의 사승전법을 전면에 내세웠고 휴정과 부휴 선수 이후 조선후기 계 · 문파의 법맥 계보를 정리하고 있다. 태고 보우를 해동불조의 원류로 보고 동시기에 마찬가지로 중국 임제종의 법맥을 전수한 나옹 혜근과 그 계통을 소략하게나마 언급한 점에서 이 책의 불교사인식이 고려의 선종 전통보다 중화의 정통성에 무게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불조원류〉는 조선후기의 법맥을 청허계와 부휴계의 양대 계파로 나누고 그로부터 분기된 문파별 전법 계보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부휴계는 적전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단일한 계보가 기재된 반면, 청허계는 편양파 · 사명파 · 소요파 · 정관파의 4대 문파로 나누어 각각의 사승관계를 수록하였다. 그 중에서도 저자 채영이 속한 편양파의 서술 비중이 가장 큰데, 실제로 편양파는 조선후기 최대의 문파였다. 조선후기 승려들의 비문, 행장, 문집 서 · 발문 등에 나타난 전법 사승의 계보를 확인해 보면 청허계 중에서도 편양파의 위상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1년의 '사찰령본말사법'에 의해 작성된 30본사의 등규 조항에서도 본사 주지가 될 수 있는 법맥 계통으로 청허계, 그중에서도 편양파에 한정한 경우가 주종을 이룬다. 채영이 각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문파의 공론을 모아 편찬, 간행한 〈불조원류〉는 1천여 질이 인쇄되어 제종에 유포되었다. 이 책은 당시 불교계의 공식 역사서로써의 위상을 가졌고 이후의 역사전통 인식도 이를 모태로 하여 생성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계 · 문파 별로 자파의 전통을 집성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났다. 사명 유정의 법맥을 계승한 사명파에서는 〈사명당지파근원록〉과 〈사명당승손세계도〉를 펴냈는데 전자는 쇠락한 사명파의 영고성쇠를 기록한다고 하였고 후자는 경상도 지역 사명파의 계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소요파 또한 '해동선파정전도'를 만들었는데, 휴정의 법맥 계통을 편양 언기, 소요 태능, 무염 성정의 3파로 나누었고 그 중 소요파를 중심으로 계보를 정리하였다. 소요파 주류는 19세기에 전라도 대둔사, 미황사, 만덕사 일대를 주요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였고 〈대흥보감〉이라는 책을 냈다. 〈대흥보감〉은 임제태고법통과 청허 휴정의 권위를 내세워 소요파의 정통성을 주장한 것으로, 편양파와 공조하여 만든 대흥사(대둔사)의 교학 전통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자파의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이 책에는 주로 소요파 조사들의 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태고 보우 이후 휴정을 동방 7조, 소요 태능을 동방 8조로 기재하였고 15조 아암 혜장을 거쳐 17조 철선 혜즙으로 이어지는 자파의 정통 계보를 수록하였다.

편양파에서도 전통의 집성 노력은 19세기 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1864년에 나온 설두 유형의 〈산사약초〉는 부처부터 인도, 중국의 조사, 조선의 불교사를 간략히 개괄한 책으로, 임제태고법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양파의 계보 위주로 정리하였다. 이어 1894년에는 범해 각안이 〈동사열전〉을 펴냈는데, 이 책은 삼국시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198인의 승려 전기를 모은 승전 사서이다. 수록된 인물의 상당수는 조선후기의 승려들이고 〈불조원류〉나 〈산사약초〉와 마찬가지로 편양파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대둔사 12대 종사와 강사, 그리고 법맥상 이들과 연결된 당대의 고승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 편찬자 각안이 대둔사





19세기 들어 한국불교에는 삼보종찰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바로 조계산 송광사, 가야산 해인사, 영취산 통도사에 대해 각각 승보 · 법보 · 불보종찰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팔만대장경 조사하는 해인사, 눈 내린 통도사 전경이다. 〈사진=송광사 · 통도사 홈페이지〉

역사서 · 족보 등 간행 급증
수요 따라 불교계에도 영향
삼보종찰 관념 형성 이뤄져

편양파 호의 시오, 초의 의순의 제자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시오와 의순은 정약용의 지도를 받아 〈대둔사지〉 편찬에 참여하였고, 각안 또한 자파의 전통을 이어 불교사 집성에 관심을 가졌다.

부휴계 묵암 최눌도 18세기 후반에 과거 7불, 인도와 중국의 역대 조사, 조선의 선맥을 도표로 그린 '불조종파도'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중국 임제종 평산 처림의 법을 전해 받은 나옹 혜근도 언급되어 있지만 전법 계통의 주축은 임제종 석옥 청공에서 태고 보우-환암 혼수-귀곡 각운-등계 정심-벽송 지엄-부용 영관-부휴 선수로 이어지는 임제태고법통이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휴정 대신 부휴계의 조사 선수를 내세운 점이다. 그리고 "부휴 선수에서 벽암 각성으로 전해진 법이 영해 약탄과 풍암 세찰을 거쳐 묵암 최눌과 응암 낭윤으로 계승되었다"고 하여 부휴계 적전의 계보를 주류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부휴계도 스스로의 계파의식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불교사 인식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근대에 들어 부휴계는 계파적 정체성을 담은 역사전통 인식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였다. 송광사 주지를 역임한 금명 보정이 펴낸 〈불조록찬송〉에서는 인도, 중국의 조사에 이어 '해동신라열조' '구산조사' '해동열조' '조계종사'의 항목을 설정하고 한국불교사 전체에 걸친 역대 조사의 전기와 찬송을 수록하였다. 이 중 '조계종사'는 지눌 이후 수선사 16국사와 조계산 송광사를 본사로 한 부휴계 조사들의 계보를 망라해 놓은 것이다. 보정은 자파를 부휴종으로 칭하면서 지눌과 선수를 종조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조계종 정통론을 표방하였다. 그가 찬록한 〈조계고승전〉도 수선사 계통과 조선후기 부휴계 승려들의 전기를 대거 모아놓고 있다.

보정 또한 임제태고법통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송광사 부휴계의 독자성을 앞세운 조계종 인식을 표명하였다. 이는 불교의 역사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1941년에 조계종이 조선불교 교단의 공식 명칭으로 정해졌고,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명으로 확고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정의 조계종명 발굴과 제창은 중요한 불교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정통주의에 입각한 불교 법통이 확립되고 그에 토대를 둔 불교사 인식이 확산되었다. 각 문파에서 자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의 집성을 모색한 사실은 유학의 도통론이나 학파와 정파를 매개로 하는 역사인식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한편 유학자의 불교인식이 역사서를 통해 드러난 사례도 있다. 저자 미상의 〈동국승니록〉은 신라, 고려의 승려들과 조선 중기 휴정, 유정 등의 간략한 행장을 수록하고 사상 내용을 소개한 일종의 고승전이다. 이 책에는 1794년에 건립된 묘향산 수충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책으로 추정된다. 항목 구성은 '명승' '니고(尼枯)' '시승(詩僧)' '역승' '간승'의 순서로 되어있다. '역승'은 고려 공민왕대의 신돈, '간승'은 명종대의 양종복립을 주도한 허응 보우로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유학자가 불교사서 편찬에 직접 관여한 예는 호남에서 고증학적 훈도를 펼친 정약용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같은 시기에 한치윤이 지은 〈해동역사〉의 '석지' 항목에 불교사가 일부 다루어지기도 했지만, 정약용은 유배지 인근 대둔사와 만덕사의 사지인 〈대둔사지〉와 〈만덕사지〉의 편찬을 지도하였다. 〈대둔사지〉는 편양파 완호 윤우, 초의 의순, 소요파의 아암 혜장 등이 공동으로 편찬한 책으로 1820년대 전반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이들 연담 유일의 문손들 및 아암 혜장과 밀접한 교류를 하였고 학문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실 가운데 하나인 〈대둔사지〉는 고증학의 특징인 실증과 사료비판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했던 소요파 승려들은 근거지였던 만덕사(백련사)의 〈만덕사지〉를 편찬하기도 했다. 한편 유일의 숙부격인 함월 해원도 〈석왕사지〉를 펴냈고 이 책은 19세기 초에 간행되었다. 이처럼 각지의 사찰에서 자사의 역사를 모은 사지의 편찬을 시도하였는데, 사지 또한 불교 역사전통 집성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불교 개념과 이론을 정리한 유서 형식의 책은 연담 유일의 〈석전유해〉가 대표적이다. 이 책의 말미에는 김창협의 동생이자 불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졌던 김창흡의 시문집에서 불교 용어를 발췌해 해설한 '삼연선생시집중용불어해'가 실려 있고, 또 선조대의 문장가인 신흠의 '불가경의설'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와 같은 일반 유서에도 불교 기문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나타난 독특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승려가 자신의 전기를 직접 쓰는 자전 형태가 늘어난 것인데, 역사 서술에 관심이 높았던 연담 유일, 초의 의순, 범해 각안 등이 상세한 개인사를 남겼다.

이 시기 불교사 인식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삼보종찰 관념의 형성이었다. 종찰은 교단의 상징적 구심체로서 큰 의미를 갖는데, 삼보종찰 관념은 늦어도 19세기에 들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송광사의 경우 17세기 이후 16국사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하였고 19세기에는 승보사찰로 인지되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내세워 '삼한국의 조실', '삼보종의 복전'으로 칭하기도 했다. 〈동사열전〉의 편자 범해 각안도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사찰을 유력하는 과정에서 '조계, 가야, 취령의 종찰'을 순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조계산 송광사, 가야산 해인사, 영취산 통도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각각 승보, 법보, 불보 종찰이었다. 1899년에 고종은 칙명으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3부 인쇄하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에 각각 안치하게 하였는데, 이 또한 삼보종찰 관념의 성립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 1911년에 세워진 임제종의 경우에도 종무원은 범어사에 있었지만 본사는 이들 삼보사찰에 두어졌고, 총독부의 본말사법에서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는 각각 불찰대본산, 법찰대본산, 승찰대본산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삼보사찰의 확립은 불교 전통의 위상과 역사적 권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역사전통의 집성 노력이 활발히 일어난 18세기 이후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광주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18기 신입생 추가모집

◆ 기초반 1년 과정 : (평염불) 천수경 부터 ~ 지장불공, 퇴공, 관음시식, 화음시식 순으로
◆ 2 년 과 정 : 모든 재반의식 (49재, 천도재, 상주권공, 범패의식, 천수바라춤, 도량게), 다게 (나비춤), 회심곡, 법고무 (혜공스님 직강)

지원자격 스님, 포교사, 교임, 법사, 일반불자 등 등
통 신 생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날 12시까지
입 학 식 서기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추가등록 2016년 4월 30일까지 등록 마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문의전화 H·P 011-624-8604 / ☎ 062-362-8604

전통의식, 범패,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 제대로 배워서 후계자 되실 분
기간 약 5년 20~30대 초반 돈 일체 받지 않음 (절에서 함께 생활하실 분)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1	대령/관욕	15	신중불공	29	작법무 (사방찬소리도량게)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2	상주권공지장불교의식	16	관음불공	30	작법무 (육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3	상용영반	17	지장불공	31	작법무 (향수나열사다라니)	45	화엄시식
4	회심 곡(화청) 1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2	삼보통청	46	약사여래불공
5	회심곡 (화청) 2	19	종사관욕	33	아침저녁종성	47	시련의식
6	구병시식	20	종사영반	34	향수해례예불	48	창혼의식
7	관음시식	21	가사불사의식	35	혼자서하는 민관욕 (간단한관욕)	49	영가왕생게춤,지옥게
8	점안시식	22	신중작법39위	36	생일불공	50	49제,천도재,실기의식 1,2,3,4,5개
9	방생의식	23	간단한 신중작법	37	상주권공49제의식 1	51	20일간 상주권공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30개 판매중
10	사물 다루는 법	24	전통조석예불	38	상주권공49제의식 2		
11	안 택	25	천수경/장엄염불	39	상주권공49제의식 3		
12	시 다 림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0	상주권공49제의식 4		
13	산신불공	27	사시상단불공	41	제사불공	52	교재 2권 (1,2권) 100,000원
14	미타불공	28	작법무 (복청게천수바라)	42	삼신이운		

▶ 비디오 각 20,000원 / DVD 각 25,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학장 혜공 스님

니까야서 길을 묻다 9. 오늘날 필요한 계(戒) ③

적게 먹는 것이 불살생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무소유'라는 불교적 가치는 '이유 있는 소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잘 살고 싶은 바람과 무소유를 지향하는 계(戒)의 정신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즉, 경제적 불평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의 실존적 문제가 크면 클수록 정면으로 껴안아야 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계(戒)'의 존재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간과하고 내뱉는 소리는 그것이 아무리 고고한 언어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해결책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묻는 말이기도 하다.

불살생의 계(戒)를 논의하는 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을 다시 점검해보자.



그림 · 양경수

어떤 이는 육식이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행위이므로 매우 천박하고 혐오스런 짓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불교인이라면 결코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부처님이 말하고 싶은 계(戒)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채식을 생각해보자. 채식 역시 내가 살기 위해 식물이라는 생명체 중에서 작은 부분을 뜯어먹든, 그 열매만을 취하든, 그 전부를 먹든,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하나의 생명체를 잡아먹는 행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하더라. 과연 그럴까? 생명체를 뜯어 먹어도 되는 혹은 죽여도 되는 면죄부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란 말인가?

〈니까야〉에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은 '적절한 식사량 알기'다. 나중에 정학(定學) 즉 '명상'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적절한 식사량 알기'는 명상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리'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오늘 이 시대에서 되살려 찾는다면 그것은 '적게 먹기(小食)'를 정답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른 생명체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전제는 '최소 범위'라는 결론을 권유하는 것이다.

기름진 음식이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순간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더 살아가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한 생명체를 해쳐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에는 둔감해지게 된다. 채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택하여 죽음에 임박한 고통의 소리를 직접 듣지 않게 만들어주는 식물만을 음식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다른 생명체를 해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실존적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음식만을 취하려는 자세에서 불살생 계(戒)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지점에 이른다.

내 혀를 만족시키는 값비싼 음식이나 음료를 찾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는 행위, 다른 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이의 바람을 억누르지 않는 행위, 또 이 정도만으로도 되겠지만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좋겠다는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저 욕망의 움직임을 감지해내는 것이 계(戒)가 가르쳐주는 닦음의 길일 것이다.

이제 좀 더 본래적인 계(戒)의 정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더 찾아보아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 이 말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이들이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그것, 곧 출가를 감행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경전의 서술이 드러내는 의미 영역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명상 포교 불교미래 희망 佛事

그대는 자비보살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박태수 이사장은… 1968년 안동교육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1974년에는 다시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편입했고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1977년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문제연구소 조교, 1978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및 책임연구원,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상담부장, 전임강사, 조교수, 교수 등을 역임했다. 1999년에는 제주붇다중앙클럽 총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제주도 청소년 종합상황실 실장, 제주대학교 상담 및 봉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주대 명예교수와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명상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존속살인, 아동학대 등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매일 매스컴 헤드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혼탁한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와 품격을 갖춘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좋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명상하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우리 삶에서 분명 필요한 일부입니다. 매일 10분~20분씩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로 고희를 맞은 박태수 제주대 명예교수(70 ·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는 명상의 인지도 열풍이 육지보다 다소 떨어지는 제주도내서 명상포교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교육자요 상담가이자 명상가이다. 그의 명상 포교 원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03년 사재를 털어 마련해 놓은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현 제주국제명상센터 부지를 센터 측에 기부한다. 그리고 2006년 11월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창립해 본격 불사에 돌입한다. 제주를 넘어 국제적인 활동을 해 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6월 제주시 안새미 오름 동쪽 기슭에 새롭게 신축, 준공했다.

"명상센터 짓는 일이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개인의 조그만 원력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규모의 불사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명상 대중화에 대한 취지를 알렸더니 주변서 십시일반 동참해주었습니다. 후원자 명단을 입구에 새겨 놓은 것도 개원 당시의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저는 이 분들 모두를 설립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박 이사장은 이 센터 건립에 사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대학 교수 퇴직금과 적금 등 수억원이 소요됐으며, 자녀들에게도 설립 취지 목적을 설명하며 1천여 만원씩 보시하도록 독려했다. 교직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다소 역경이 있더라도 자신이 세운 명상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우는데 기꺼이 희사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이해해 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모든 공을 가족들에게 돌렸다.

개원 4년차를 맞은 제주국제명상센터는 매주 · 일요일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어 걷기명상(위빠사나) · 좌선명상(사마타), 삿상요가(주제명상) 그리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한다. 또한 매주 수 · 목요일에는 무경계 · 깨어있는 삶을 위한 일곱가지 가르침 교재를 갖고 명상스터디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1999년부터 인연이 닿은 붓다락키따 스님(경기도 보리수선원 선원장)도 초청해 '영성지도자를 위한 위빠사나 수행 프로그램'을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운영하는데 인격 집중 수행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자신의 동작을 알아차리고 참된 행동으로 인도하고 있다. 제주국제명상센터는 △명상지도자 과정 △집중명상을 통한 학습력 및 생활습관 향상 프로그램 △열린명상 교실 △여행과 명상체험 △명사와의 만남 △직업전문성 함양 연수를 비롯해 1 · 2급 전문상담사 인턴과정, 중독예방상담원 등 상담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명상 센터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이후 잠깐 종교적 외도(?)를 하기도 했다. 교육대를 졸업한 후 초등교사 시절, 뜻 밖에도 하숙집 주인이 바로 교회 집사님이었다. 박 이사장은 그의 집요한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안에서 풋풋한 사랑도 싹텄다. 급기야 교회 청년회장직도 제안 받았다.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앞줄에 앉은 아주머니가 오열 하며 기도를 하시더군요. 나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는데 가슴에서 아주머니처럼 감흥과 종교적 신심이 일어나질 않는 거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조금씩 교회가 나가는 횟수가 눈에 띠게 적어졌다. 마침내 박 이사장은 1974년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편입을 하면서 종교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종교적 믿음 보다는 더 큰 꿈을 위해 석사학위(1980년), 박사학위(1990년)를 취득하며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린 것이다.

이런 박 이사장이 불연과 다시 인연을 맺은 것은 제 2의 고향이 된 불국(佛國)의 섬 제주도였다. 1988년 마흔살이던 때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상담부장으로 내도한 것이다. "제주대에 부임하고 그해 6월 혼자서 한라산 등반을 했어요. 산을 오르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간 분이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 이었죠. 정상까지 같이 등반했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하산 한 뒤에 스님이 머물고 계신 불광사(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공양을 들게 됐어요. 오랜만에 사찰에 오니 유년시절의 기억도 새록새록 되살아 나고 마음이 평안해 지더군요. 제가 재발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삶의 지혜 보폭 넓히는 일”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2012년 6월 제주국제명상센터 개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1992년 2월 백장암서 기념촬영을 한 박 이사장(맨 왼쪽).



2002년 인도 비하르대학서 찍은 사진(맨 오른쪽).

1990년 ‘동사섭’ 체험, 명상포교 원력 세워
1999년 (사)붇다클럽 제 8대 총회장 역임
2012년 제주시에 국제명상센터 개원
명상전문가 양성… 전문센터 전초기지

그리고 박 이사장은 스님이 운영하는 3박 4일 단식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그곳서 마주대한 5평 규모의 법당. 그 앞에 펼쳐진 잔디밭. 그리고 분재처럼 잘 자란 소나무 몇 그루 사이로 들려오는 파도소리 등등. 그 풍경과 분위기는 속세의 찌든 삶에 젖어 있던 박 이사장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극락같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그 흥분이 가시질 않았죠. 바쁘게 생활한 내 몸과 마음이 단숨에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 개신교서 열심히 활동해도 느끼지 못한 그 감동과 신심을 찾은 거 같았어요.”

그 해 9월 비구니 스님이 떠나고 다시 그 불광사에 비구 스님이 주석했는데, 철저히 수행중심으로 재가불자들을 포교하는 스님이었다. 2박 3일 동안 그 스님과의 수행이 박 이사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명예도 재물도 모두 놓아도 하나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갔던 그 포근함과 편안함이 다시금 느껴졌지요. 당시 저를 제주대로 이끌어 준 선배 교수가 교회에 함께 나가자는 제의조차도 단박에 거절할 정도로 다시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불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출발 선상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박 이사장은 제주대 내에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 강의를 하고 내담자를 만나면서도 상담자로서의 만족감을 갖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상담 후 내담자의 변화도 지속적이지 않음을 깨달았다. 분석결과 그 원인이 상담이라는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개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몸과 마음, 영혼이라는 인간 존재에 대해 근본적 이해를 하지 않고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박 이사장은 명상에 본격적으로 빠져 들게 한 큰 스승과 수행법을 만난다. 1990년 용타 스님의 동사섭(同事攝)이다. 그는 이 수행법을 경험하며 내면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90년 추운 겨울 ‘동사섭’ 수행 체험을 위해 지리산 백장암에 갔는데 그 화장실이 바로 노천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면 엉덩이만 가릴 수 있도록 엉성 했지요. 숨소리, 힘쓰는 소리 등 용변 보는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듣거나 볼 수 있는 어지간한 비위로는 견디기 힘든 장소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저를 지도해 주시는 스님이 옆에 들어오신 겁니다. 당황해 하는데 스님이 옆 칸에 앉으시며 ‘우리 화장실 동사섭이나 할까요?’ 하시더라구요. 처음에는 어색 했지만 그 안에서 ‘날씨 이야기’ ‘동사섭 프로그램 이야기’ 등을 나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아는 분과 화장실서 만난다면 피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고, 그 짧은 순간도 참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어색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갑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건강은 어떠세요?’라며 따뜻하게 마음을 나눈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체험들을 제주도에 전파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후 제주불교계의 신행활동에 전념한다. 제주불교계에서도 당시 남성불교의 표상이 된 사단법인 붇다클럽에서 1992년 창립멤버로 꾸준히 활동하다가 1999년 제 8대 총회장을 맡았다. 특히 붇다클럽은 산하에 7개 지회를 거느린 제주도내 최대 신행단체로 부녀회원까지 1천 여명이 활동중이다. 회장을 맡으며 박 이사장은 제주불교의 신행포교 수준을 몇단계 끌어 올려 놓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대외활동 못지 않게 박 이사장은 개인 수행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90년대 마음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인도요가의 대가인 문진희 선생 도움으로 방학 때마다 걸망지고 만행을 떠났다. 인도를 제집 드나들 듯이 다니며 요가명상에 푹 빠졌다. 결국 박 이사장은 2005년 사고(?)를 친다. 머리를 삭발하고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 요가지도 자격과정(6개월)에 입문한다. 박 이사장의 수행과정은 철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가 명상에 전념했다. 흔히 화두법에서 말하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모두가 요가서도 수행의 한 방편 역할을 했다.

“손가락을 파이프처럼 오므려 보세요. 그 손가락 구멍을 통해 앞에 주전자를 보면 주전자의 몸통밖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두 손으로 큰 구멍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구멍이 넓어지자 주전자 전체가 보이듯이 이처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명상도, 수행도 삶의 이해의 보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박 이사장은 명상 수행을 하면 머리로만 알던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적극 권한다. 책을 10권 읽더라도 머릿속 기억은 금세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몸으로 자각한 프로그램은 체험으로 이해하기에 깊은 통찰력이 생긴다는 이다.

박 이사장은 영어로 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서 요가 지도자 자격증도 받았다. “자격증 받던날 요가원서 가만히 앉아 명상에 드니 제 나이 예순이었어요. ‘내 나이를 다 살았네. 예순까지는 내가 갖고 온 나이이고 이제부터 남은 나이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일어나더군요. 나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남은 생을 살 순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럼 남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죠. 결국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익힌 교육학과 상담, 명상으로 재능기부하며 회향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죠. 남은 생까지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지키려는 큰 이유죠.”

김주일 기자 ·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전법일기

“때에 맞춰 먹으라”

“때를 거르지 마라.” 흔히 멀리 있는 자식에게 부모들이 당부하는 말이다.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것이다. 아침점심저녁 제때 밥을 먹어야 몸의 순환과 기운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잘한다’는 ‘집중한다’는 뜻이다. 몸의 에너지가 잘 돌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진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린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아닌가.

경전에는 아침점심저녁에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르고, 계절과 절기마다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으며, 몸의 상태에 따라 음식을 조절하라고 쓰여 있다. 또 아침은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니 죽과 같은 맑은 음식을 먹고, 점심은 활동량에 따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먹고, 저녁은 위에 부담이 덜 가도록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림 · 박구원

때를 알고, 때에 맞게 먹고, 때를 따른다는 것은 자연의 운율에 맞춰 살아간다는 뜻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어릴 때 “때를 거르지 마라”고 하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또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귀한지 깨달았다. “때에 맞춰 먹으라”는 뜻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다. 때마다 먹는 음식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듯, 순간 순간이 모여 일생을 이룬다. 매 순간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각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찰음식 강의에는 멀리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꽤 있다.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 고작 2시간 강의를 듣고, 온 길을 거슬러 가면 밤이 이슥해서야 집에 도착한다. 그렇게 1주일에 한 번 1년여, 쉽지 않은 여정이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멀리 남쪽 끝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과 우연히 동행을 하게 되었다. 수더분한 외모에 사투리가 정겨운 분이었다. 그분은 젊어서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 했고,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세 자녀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단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성품이 온순하고 예의가 발라 부러움을 많이 받는단다.

“스님, 강의 있는 날에는 새벽에 남편이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올 때는 택시를 보냅니다. 참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들은 제가 선재 스님 강의 듣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유명한 스님이니 엄마 아픈 데 좋은 음식을 알려주실 거라고 해요.”

그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20여 년 넘게 몸 이곳저곳이 아픈 환자였다. 얼마나 아픈지, 전국의 이름난 의사, 한의사는 다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었고, 심지어 무속인까지 찾아갔다. 결국 음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나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 강의실을 찾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 먼 거리를 어떻게 다닐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눈에도 안색이 좋아지고 몸놀림도 가벼워 보였다.

“스님, 세상이 다 주지는 않나 봐요. 제가 아픈 것만 빼면 참 완벽한 삶인데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보살님은 다 가졌네요. 성실한 남편과 착하고 똑똑한 자녀들, 모두 아내와 엄마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애를 쓰고, 또 보살님은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어쩌면 아파서 행복한 거죠.”

내 말에 그분은 환하게 웃었다. 불행과 행복은 따로 있지 않다. 불행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데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맛봐야 할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데 행복이 있다. 〈끝〉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능담 효광 종사 진산식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취임식

팔공총림 동화사 住持(주지) 能潭 曉曠(능담 효광) 宗師(종사)의 晉山式(진산식) 및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奉行(봉행)하고자 합니다.
이 새봄에 이 인연으로 천하 총림에 禪花(선화)가 만발하여 娑婆昏衢(사바혼구)의 등불이 되어 나라가 太平(태평)하고 세상이 淨土(정토)가 되기를 빌면서 四部大衆(사부대중) 여러 尊體(존체)님을 如法(여법)히 모시고자 하오니 무루 參禮(참례)하시여 이 법회를 더욱 빛내 주시기 仰望(앙망) 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법회 세부 일정

❖ 일시 : 불기 2560년(2016) 3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앞 특설무대
❖ 문의 : 종무소 (053)980-790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은 어떻게 나고 멸하는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미세한 생각과 거친 생각은 모두 마음의 생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생멸심이 결국 의(意)가 되어 상속(相續)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혔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생멸이란 생겼다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상속되며 상속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생멸한다는 것은 심상(心相)이 생멸한다는 것이고 심체(心體)가 생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 때 파도는 생겼다 없어지지만 바다의 물은 그대로라는 비유를 하였다. 심상(心相)이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난 상태를 두고 말한 것이다. 무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심상이요, 진여 자체가 심체이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명이고 본래의 청정 그대로가 진여이다.

그런데 무명과 진여가 서로 훈습을 하는 이치를 밝히면서 네 가지 훈습을 설명한다. 이 네 가지 훈습에 의하여 염법(染法)과 정법(淨法) 일어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훈습(薰習)이란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이 입은 옷에 본래 향냄새가 없었으나 향의 냄새가 스며들면 옷에 배여 향냄새가 나게 된다. 이 경우 옷이 향에 훈습되었다고 말한다. 진여인 청정한 법은 본래 오염된 것이 아니었으나 무명에 훈습이 되어 오염된 상태가 된다. 반면에 오염된 법 곧 무

청정한 법은 오염되지 않았으나
無明에 훈습돼 오염된 상태된다

명은 실로 청정한 것이 없지만 진여가 훈습했기 때문에 청정한 작용이 있게 된다.

네 가지 훈습이란 첫째 정법훈습으로 이는 진여가 무명을 훈습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명훈습으로 염법의 원인인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는 것이다. 셋째는 망심훈습으로 진여가 무명에 의해 훈습이 되면 망심이 되어 이 망심에 의해 다시 훈습이 일어나는데 이는 업식(業識)에서 훈습이 되는 것이다. 넷째는 망경계 훈습으로 육진(六塵)이 훈습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다시 네 가지 훈습의 뜻을 요약해 설명한다.

"진여의 법, 곧 '참되고 한결같은 본래의 법'에 의하여 무명이 있고 이 무명이 물들이는 오염의 원인이 되어 진여를 훈습한다. 그리하여 망령된 생각 곧 주관적으로 사유하는 업식을 나타나게 하고 이것이 다시 무명에 훈습을 가한다. 그 결과 진여의 마음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생각들이 일어나 잘못 의식되어진 객관세계에 잡다한 현상을 출현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릇 의식되어진 객관 대상세계의 잡다한 현상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 훈습이 또 일어나며, 다시 허망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집착이 생겨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제일 큰 원인이 무명에서 시작되어 마음이 물들어져 오염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염법이 훈습하는 무명훈습, 망심훈습, 망경계훈습이다. 이 세 가지 훈습이 각각 두 가지씩의 훈습을 다시 가지고 있다고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잘못 의식되어진 대상세계(妄境界)가 일으키는 훈습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망념을 증대시키는 훈습(增長念薰習)이요, 또 하나는 집착을 증대시키는 훈습(增長取薰習)이다. 이는 아집과 법집을 증대시키는 훈습으로 육추(六)의 지상·상속상은 아집을 이루며 집취상·계명자상은 법집을 이룬다. 다음 주관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훈습(妄心薰習)에도 두 가지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업식의 훈습(業識根本薰習)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라한이나 연각, 보살들이 생멸하는 고통을 받고, 또 사물을 분별하는 식을 증대시키는 훈습(增長分別事識薰習)이 있어 이로 인해 범부들이 좋지 않는 일을 하고 그 결과 고통을 받게 된다. 무명이 일으키는 훈습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업식을 형성하는 근본훈습(根本薰習)과 그릇된 소견으로 애착을 일으키는 견애훈습(見愛薰習)이다. 이것은 잡다한 사건들을 분별하는 식을 낳는다.

이상의 두 가지씩 설명된 훈습들은 모두 좋지 않는 방향으로 오염되어 내려오는 유전(流轉)의 과정을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이 각(覺)을 등지고 업을 지어 고통을 받게 되는 염연기(染緣起)의 진행이다.

부처님 찾는 사람의 보시는 맛나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⑫ 보시의 수승함

施勝味品第二 (시승미품제2)
大悲所起施 意願成菩提
(대비소기시 의원성보리)
如是知見人 能成一切施
(여시지견인 능성일체시)
如是一切施 終成一味智
(여시일체시 종성일미지)
大悲心為體 能起種種施
(대비심위체 능기종종시)
種種救為生 得到於智處
(대비심위체 능기종종시)
能除諸愛結 及以無明垢
(능제제애결 급이무명구)
能令一切眾 悉皆得安樂
(능령일체중 실개득안락)
如是悲心施 誰不生愛樂
(여시비심시 수불생애락)
大悲心所起 功德之施利
(대비심소기 공덕지시리)
不能生愛樂 背離於救濟
(불능생애락 배리어구제)
是人為愛繫 菩提甚難得
(시인위애계 보리심난득)
諸欲求佛者 愛樂施甘味
(제욕구불자 애락시감미)

번역

보시의 수승한 맛에 대한 품 제2

큰 자비를 일으켜 보시하는 것은 마음에 보리심을 이루도록 서원하게 하나니, 이와 같은 앎과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야 능히 일체의 보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체의 보시는 끝내 한 맛의 지혜를 이루거니와, 큰 자비심을 근본 바탕으로 삼기에 능히 가지가지 보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가지로 중생을 구제하면 지혜에 도달할 수 있거니와, 모든 애착의 결박과 무명(無明)의 번뇌까지 능히 없앨 수 있습니다.

능히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안락함을 얻게 할 수 있게 하리라는 이와 같은 자비심의 보시라면 누가 애착과 쾌락을 일으키겠는지요.

큰 자비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행하는 보시의 이로움은 능히 애착과 쾌락이 생기지 않게 하며 거기서 구제하여 떠나게 합니다.

사람이 애착에 얽매이면 보리를 얻기가 심히 어렵지만, 부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사랑스럽고 즐거운 보시는 달고도 맛납니다.

해설

〈대장부론〉의 제 2품은 '보시의 수승한 맛'에 대한 법문이다. 2품에 들어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 지혜란 과연 무엇이기에 보시를 통해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불교에서 지혜란 무명(無明)의 없음이다. 무명은 온갖 번뇌의 뿌리이자 번뇌의 생산, 재생산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연기경〉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명이 곧 자아와 자아에 대한 애착과 다름 아니다. 그 애착을 통해 어리석음과 온갖 성냄과, 시기, 질투, 싸움 등이 발생한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이런 괴로움과 번뇌는 또 다른 괴로움과 번뇌를 양산하고야 만다. 그러고 보면 무명이라는 병에 가장 특효약이 바로 보시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제바보살은 본문을 통해 말한다. '큰 자비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행하는 보시의 이로움은 능히 애착과 쾌락이 생기지 않게 하며 거기서 구제하여 떠나게 합니다'라고.

2품의 제목인 '수승(殊勝)한 맛'이라는 의미는 '많은 것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 가장 수승한 맛을 지닌 보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다고 말한다.

자비의 보시가 바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며, 한 맛의 지혜다. 부처님의 평생 설법도 중생을 향한 법의 보시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참사람으로

비우면 편안하다. 내려놓으면 가뿐하다. 덜면 가벼워지고 나누면 행복하다.

기본이 튼튼하면 흔들림이 줄고 상식이 통하면 헐떡임이 사라진다. 감추고 드러낼 일 없으면 자유가 깃들고 꾸미고 조작함이 사라지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도 혼자이면서 여럿처럼 살아 분주해지고 홀수이면서 짝수를 그리워해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 형제도 마다하고 출가(出家)한 수행승라면 몸과 마음도 개운하게 가뿐하게 살 일이다. 명예를 앞세울 일도 아니요, 모으고 챙기려는 속물 근성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노후대책은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 아니면 비켜 가야함이 당연하다.

수행자의 노후 대책은 오직 수행력뿐
비우면 편안하고 내려놓으면 가뿐하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수행자는 참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낮과 밤의 생활이 항시 오픈될 수 있도록 열린 자유와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수행자이다.

우선은 승가 공동체에서 대접받는 문화부터 살펴 고쳐나가야 한다. 신도들이 스님을 만나면 의례상 당연하게 큰절을 3번하는 것을 1번으로, 그것도 맞절하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

존중과 존경은 형식에서 자유로울 때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사르나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 다섯 비구가 차례로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님이 되었을 때에도 우월과 열등이 없는 절대평등이 있음을 병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큰 사찰이던 작은 사찰이던 대웅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왜 주지스님의 전용방석은 크기와 색깔이 다른지 승가의 대접문화에 대해 깊은 회의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변명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평등성의 실천과 구현은 큰 법당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살아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길상초를 깔아 잠자리를 만드셨을 뿐 대중들의 시중을 받거나 대접 받는 일은 아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스님들의 생일상 차림에 대해서다. 부모형제도 마다하고 세속의 애착도 저버린 수행하는 스님이라면 당연히 생일쯤은 잊고 살아야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런데 주지 스님일 경우 해마다 생일상 차림의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진다면 이는 웃지 못할 풍경의 잘못된 관습임이 분명하다. 진정으로 생일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스님을 낳고 길러주신 세속에 계신 부모님이지 출가수행승의 차지는 아닐 것이다.

주지가 원해서가 아니라 신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알아서 차려주는 것이라며 비굴하게 비켜서지 말 일이다. 승려인 본인이 생일을 잊고 사는데, 신도들이 도반들이 제자들이 챙겨줄리 없지 않겠는가?

다음은 스승과 제자로 맺어지는 상좌문화에 대해서다. 한 스님 밑에 상좌로 일컬어지는 제자가 10명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물론 수행력이 깊고 덕이 넓어 몰려오는 희망자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도 하고 다른 도반스님도 소개해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수행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기본이 튼튼하고 상식이 통하는 스님이라면 제자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고승(高僧)의 경우, 서울대 출신만을 골라 제자로 맞이하는 해프닝도 살아 있는 전설로 남아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겠다.

비우면 채워진다. 텅 빈 충만처럼. 고요하면 즐겁다. 적멸위락(寂滅爲樂)처럼, 수행자라면 비우고 버리며 개운하게 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을 줄어가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늘의 참주인공, 참사람으로 살 일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목각탱 제작 선도한 조각승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⑤ 단응(端應) 스님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절정기인 17세기 후반에 호남의 색난(色難) 스님, 영남의 승호(勝湖) 스님, 경기(京畿)와 영서(嶺西)의 금문(金文) 스님 등과 같은 시기에 경북과 영서 등에서 활동한 단응 스님은 전북 완주 위봉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彫刻僧)이다. 단응 스님은 주로 나무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만들었지만, 사천왕상은 소조불(塑造佛)로 제작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전각 내 수미단 위에 걸었던 탱화 대신에 나무로 조각한 목각탱(木刻幀)을 만들었다. 현재 단응 스님이 수화승이 되어 만든 목조불상과 목공예품은 전국에 걸쳐 11건 50여 점이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단응 스님의 생몰연대와 조각승이 된 배경 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공예품의 명문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와 거주 사찰 및 지역, 조각승의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응 스님은 무염 스님을 도와서 1656년에 전북 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 불상 제작은 50여명의 작가가 동원될 정도로 큰 불사인데, 여러 조각승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이 완주 송광사에 모여 공동으로 불상을 제작한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단응 스님은 성환(性還), 삼응(三應), 법행(法行)과 16나한상 가운데 1구를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당시 재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단응 스님은 1665년 6월에 수화승으로 경북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을 만드는데, 12명의 조각승이 나무로 만든 뼈대 위에 흙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3~5m 정도의 소조불 제작의 전통은 대형 나무의 수급이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 후 단응 스님은 수화승으로 제자들과 1681년에 충남 공주 마곡사 영산전 목조칠불좌상, 1684년에 경북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조삼존불좌상과 목각탱, 1689년에 충북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경북 성주 선석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만들었고, 1690년에 경북 경주 기림사 목조약사삼존불상을 중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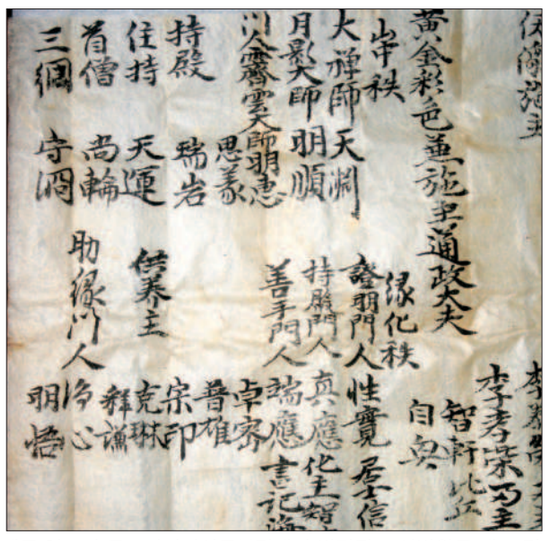
그리고 단응 스님은 1692년에 경북 안동 봉황사 목조삼세불좌상과 목조불패, 안동 광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제주 서귀포 영조사에 소장된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을 제작하였다. 이 가운데 목조불감은 태백산에 거주하던 신경 스님의 원불(願佛)을 문도들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단응 스님이 만든 대부분 불상은 조영신경(昭影神鏡) 스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태백산인(太白山人)으로, 1684년 5월에 경북 상주 용흥사 괘불 조성 시 증명으로 참여하고, 9월에 경북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각탱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용문사사적(龍門寺事蹟)〉에는 "시왕상과 금당의 판불을 만드는 일은 실로 신경대사의 힘에 의지한 것으로, 스님들의 대부분이 그의 공덕을 탄복하여 축수전 서쪽에 별도로 감실 하나를 마련하여 장차 대사의 진영을 안치하려고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조영신경은 1692년 음력 사월(孟夏)에 안동 봉황사(구 黃山寺) 목조삼세불좌상 조성에 증명(證明)으로 참여하고, 1706년에 의성 고은사에 선종소영당대사비(禪宗昭影堂大師碑)가 건립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이전에 열반하였다. 그는 〈불교원류(佛祖源流)〉에 의하면 청허휴정→편양언기→환적의천→조영신경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진 스님이다.



17세기 후반 조각승 단응 스님의 대표작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목각탱, 나무로 만든 목조불상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거주하는 존상을 꽉차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최선일



제주 영조사 목조아미타삼존불감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내 조각승들. 불상 조성을 담당했던 스님으로 금문 스님이 기록돼 있다.

17세기 후반 활동한 조각승
색난 · 승호 · 금문과 다른 계보
목불과 목각탱을 주로 조성

전북 완주 위봉사 주석하며
경북과 영서 중심으로 활동
용문사 삼존불 · 목각탱 대표작

단응스님 계보의 조각승

- 무염
  - 단응
    - 탁린
    - 전행
    - 혜주
  - 계훈
  - 탁밀
  - 법청

단응 스님은 보조화승으로 활동할 때 수화승으로 무염이나 계훈과 불상을 제작해 그들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단응 스님은 1630년대 태어나 출가한 후 수련기를 거쳐 무염이나 계훈과 1656년에 완주 송광사 나한전 불상을 제작하였다. 스님은 전북 완주 위봉사에 거주하면서 수화승으로 1665년경부터 김천, 예천, 경주, 성주, 제천, 공주 등의 사찰에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하였다. 단응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무염(1634~1656)→계훈(1654~1656)→단응(1650~1692) · 탁밀(1665~1714) · 법청(1665~1684)→탁린(1674~1716) · 정행(1715~1738) · 혜주(1703~1730)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응 스님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예천 용문사 대장전(大藏殿)에 봉안된 불상이다. 전각 내부 수미단(須彌壇) 위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높은 팔각 대좌 위에 앉아 있고, 뒤쪽에 서방 극락세계를 새겨놓은 아미타 목각탱이다.

목조여래좌상은 높이가 90㎝의 조선후기 중형으로,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 좌상이다. 본존인 아미타불은 머리에 소라 모양의 나발이 촘촘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낮게 솟아 있으며, 이마 위에 타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에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가지고 있다. 각이진 사각형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원통형의 코, 약간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다.

오른손과 왼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의 아미타수인(阿彌陀手印)을 취하고 있다. 착의법은 두꺼운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고, 대의 자락은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덮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왼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편삼과 복부에서 겹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중앙에 흘러내린 옷자락을 중심으로 좌우로 몇 가닥의 옷주름이 표현되었다.

가슴을 가린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불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를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전형적인 연판형(蓮瓣形)으로 길게 늘어지지 않고 등줄기를 따라 수직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보살상은 화염문으로 장식한 커다란 보관을 쓰고, 양손에 연화가지를 들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얼굴형과 이목구비(耳目口鼻) 등이 본존과 유사하다. 특히 관음보살 어깨에 걸친 천의가 밑으로 흘러내리고, 복부 화문장식(花文裝飾)의 복갑(腹甲)과 양 무릎에 갑대(甲帶)를 착용하여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

목각탱은 본존을 중심으로 팔대보살과 십대제자, 사천왕 등 모두 15구의 권속이 3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팔대보살은 본존불과 같은 단에 좌우 각 2구씩, 윗단에 좌우 2구씩 총 8구가 조각되었다. 팔대보살의 배치는 본존을 중심으로 좌측에 여의가지를 든 문수보살과 연화가지를 든 관세음보살, 우측에 연봉우리를 든 보현보살과 경책을 얹은 연화가지를 든 대세지보살, 상단에 금강저를 얹은 연봉우리를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과 연꽃가지와 연봉우리를 든 미륵보살, 우측으로 검을 든 제장애보살(除障碍菩薩)과 석장을 집고 보주를 든 지장보살을 배치하였다. 자그마한 체구, 두터운 천의, 둥근 어깨 등의 조각수법은 본존과 같으나 얼굴과 발은 유난히 크게 조각하였다. 보관(寶冠)은 상하 세 부분으로 선각되어 있고, 일부 보살상은 복갑 및 갑대 등을 착용하고 있다.

아난과 가섭존자는 상단 좌우 끝부분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본존불을 향하여 합장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섭존자는 광대뼈와 정수리 부분이 너무 과장되어 튀어나오고, 꽉 다문 입가에 앞니 2개가 보이고, 보살상과 달리 눈꼬리가 밑으로 쳐져 있으며, 상반신에 가사를 묶은 장신구가 표현되었다.

사천왕상은 본존불의 대좌를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검을 든 남방 증장천왕과 비파를 든 동방 지국천왕이 서 있고, 오른쪽으로 깃발은 없어지고 장대만 남은 당과 보탑을 든 북방 다문천왕과 여의주와 용을 잡은 서방 광목천왕 배치되어 있다. 사천왕의 얼굴은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눈동자와 입을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사천왕은 자세와 천의자락의 휘날림에서 다른 불 · 보살과 같이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존상들 사이에 구름모양의 빛줄기가 표현되어 이 시기에 제작된 불화와 동일한 표현과 배치를 하고 있다. 군상(群像)들의 상단에는 2개의 판목에 본존에서 나온 서광(瑞光)과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기위하여 모인 불상 3구가 좌우로 표현되었다.

단응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충북 단양 청련암 목조보살좌상, 제천 원각사 목조보살좌상, 대구 옥련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봉화 각화사 동암 요사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울진 불영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등으로, 이들 불상은 양식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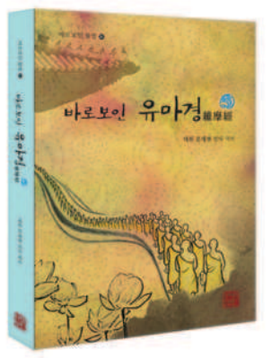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보림꽃예술중앙회 '육법공양' 시연해

꽃꽂이협회 14일 월례회서

불교계의 대표적인 꽃예술 단체 중 한 곳인 보림꽃예술중앙회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내 최대 꽃꽂이단체인 한국꽃꽂이협회 회원들에게 육법공양을 시연했다.

서울 월계동 기원사 보림꽃예술중앙회(회장 지연, 이하 보림회)는 3월 14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열린 한국꽃꽂이협회 3월 월례회에서 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의 하나인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시연했다.

회장 지연 스님을 비롯한 18명의 보림회 회원들은 향(香)·등(燈, 연등)·차(茶)·화(花, 꽃)·과(果, 과일)·미(米,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각 2개)을 꽃꽂이로 장엄, 150여 명의 한국꽃꽂이협회 회원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꽃꽂이협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인과 무종교인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내 최대 규모의 꽃꽂이 단체다. 한국꽃꽂이협회 소속인 보림회가 협회 행사에서 꽃꽂이를 통한 불교의식을 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성민 기자**



보림꽃예술중앙회가 3월 14일 한국꽃꽂이협회 월례회에서 육법 공양을 시연하고 있다.

프랑스인이 그려낸 극락 환희의 장엄

오는 4월 3일까지 불일미술관서

프랑스 추상화가 다비드 예가네는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극락색색(極樂色色)'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불일미술관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빛깔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불교 또한 그에게 생기발랄하고 환희에 찬 극락세계의 장엄과 유사하다"면서 "다비드 작가의 작품은 찬란한 원색으로 빛나는 고려불화의 이상향과 당당함이 작가가 꿈꾸는 극락이고 정토"라고 설명했다. (02)733-5332 **신성민 기자**



다비드 예가네의 작품 'Nostalgie'

불교와 현대미술, 파격의 경계서 만나다

BAF, '현대불교미술특별전– 모던 붓다展'

백승호·최두수·이완 작가 참여
불교 소재로 미술 영역 확장해
가격표 붙은 황학동 시장 불상
'자본주의 內 종교' 질문 던져
청년불자 작가위한 전시도 진행

포스트모더니즘을 근간한 현대 미술은 재현이나 틀에 묶여 있지 않다. 해체하고 재구성해 낸다. 절대화를 거부하고 열려 있는 다원성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는 일편 불교와는 맞닿아 있다.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3월 24일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개막하는 '제4회 붓다아트페스티벌(Buddha Art Festival, 이하 BAF)'에서 현대미술과 불교의 조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현대불교미술특별전인 'Modern Buddha展'이다. 올해에는 현대미술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백승호, 이완, 최두수 작가가 참여한다.

백승호 작가는 우리의 전통건축을 선으로만 구성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런 작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작품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2002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6회의 개인전과 19회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이완 작가는 현대미술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2004년 동국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7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2014년 삼성미술관 리움이 선정한 제1회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수상했다.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전의 참여작가이기도 하다.

최두수 작가는 잡지나 미디어, 일상의 사물들로 자기만의 독특한 꼴라쥬와 미디어 작업을 해온 작가다. 콘크리트를 이용한 작업과 잡지라는 대중 매체를 잘라 붙여 예술 매체로 완성한 '산자르기'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시립대 예술대를 졸업하고 첼시 칼리지 예술대학에서 석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8회의 개인전과 3번의 2인전,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펼쳐왔다.

이번 BAF에서 소개되는 작가 3인의 작품들은 모두 불교, 혹은 불교의 요소들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작업을 통해 '현대사회의 종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러다보니 파격의 경계에 있는 작품도 다수다.

대표적인 것이 이완 작가의 작품이다. 'Product(2015)'는 황학동 기념품 매대에 가격표가 붙여 있는 불상과 다양한 상품들이 놓여 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의 성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상품이 되는 현대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 과잉 공급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작가는 우리에게 던진다.

불교는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존재를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다. 불교의 이미지는 2,500여 년의 역사를 흘러오며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생성된 일종의 상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 작가의 작품 역시 성과 속의 경계를 넘어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해다 BAF 디렉터는 "이번 특별전이 그동안 이어져 온 불교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새로운 불교미술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접점을 넓혀갈 다양한 기획들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AF에는 '청년불교미술작가전' 등 다양한 전시들이 진행된다. 규모도 크다. 100여 명의 작가들이 67개 부스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불화, 불상 등의 조형불사와 전통기법부터 현대기법까지 다양한 미술의 세계의 살펴볼 수 있는 현대불교미술, 서예, 전통공예, 불교사진 등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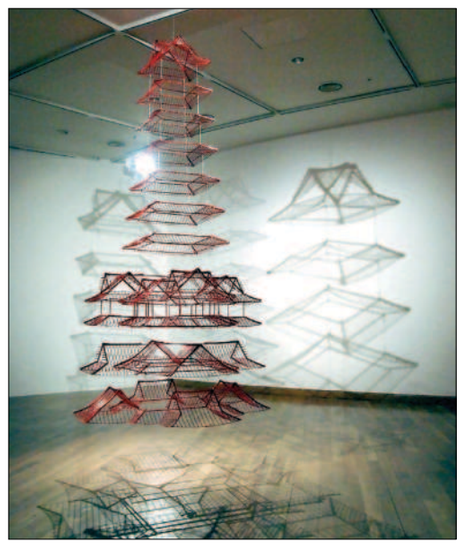
작가군도 다양하다. 지난해에 이어 서칠교, 이재윤, 황규철, 김지원 등 BAF가 발굴하고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작가들이 참가하며, 하얀 종이로 보살상을 만드는 박명옥 작가, 단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구현하고 있는 박일선 작가, 전통 금속공예의 발전과 계승을 이어가는 금속조각장 곽홍찬 장인 등이 새롭게 BAF 무대에 선을 보인다.

한편,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3월 24~2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불교의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산업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완 작가의 사진 작품 'Product(2015).' 황학동 시장 기념품 매대에 불상과 다양한 상품들이 가격표가 붙여 있는 상태로 진열돼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백승호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철재를 이용한 라인으로만 한옥의 처마와 기와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공간에 대한 여러 시선을 작품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직지 환수' 애절한 염원 노래로 담아내다

가수 이진옥, '천년의 혼 직지여' 앨범 발매

전통가요 특유 구슬픈 멜로디
호소력 짙은 가사·보컬 '눈길'

"서원 땅에 이른 바람이 흥덕사에 머무르니 불조직지심체요절 꿈속에서 깨어났네〈중략〉 돌아오라 서원 땅으로 천년의 혼 영원하리라."

가요 〈천년의 혼 직지여〉 中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환수를 염원하는 전통가요가 발표됐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진옥 씨(60·사진)는 3월 초 '천년의 혼 직지여'를 타이틀곡으로 한 싱글앨범을 발매했다. 작곡은 향토 작곡가 문장대 씨(63)가 참여했다.

'천년의 혼 직지여'는 전통가요 장르의 노래이다. 차분하고 애절한 멜로디가 〈직지〉 환수를 담은 가사와 이진옥 씨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만나면서 깊이를 더한다.

이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직지〉가 가진 위대함과 환수의 염원을 담아 최대한 애절하게 가사를 썼다"고 말했다.



작곡자인 문 씨도 "〈직지〉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작곡은 4년 전에 이뤄졌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기됐다. 기다린 만큼 곡이 잘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씨는 별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향토 작곡자인만큼 불교 등 문화유산, 민속 풍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진천 농다리 등을 소재한 곡을 쓰기도 했다.

가수 이 씨는 강원도 영월 도불암 신도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이다. 이 씨는 "가수로 데뷔하고도 틈나는 대로 도불암에 가서 신행활동을 한다"며 "'직지' 노래도 수행과 신행을 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문 씨와 함께 4월부터 '천년의 혼 직지여' 홍보에 들어간다. 공중파 TV프로그램을 비롯해 동료가수들과 지역에서의 깜짝 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이 씨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가 이역만리 타향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재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 앞에서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www.buddhabook.co.kr
불교 서적
신행 용품
명상 음반
붓다북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구입처 붓다북 02) 953-718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3.9~2015.3.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3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톱텐최된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7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불광출판사
8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9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10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가난해도 마음 있는 한 나눌 것 있다”

법정 스님이 두고간 이야기

고현 글/그림 | 수오서재 펴냄 | 1만 4800원





이 책은 현대 불교미술 디자인 개척자로 평가받는 고현 교수가 30여 년간 법정 스님을 지근거리서 뵈며 ‘맑고 향기롭게’를 함께 만들고 꾸려온 추억들을 담은 것이다. 저자는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스승의 존재감과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일기장 속에 숨겨놓은 추억들을 되살렸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81년 봄, 불일암서 시작됐다. 고현 교수는 스님과의 인연으로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를 만들었고 현재도 맑고 향기롭게 광주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책은 법정 스님이 몸소 실천한 무소유와 나눔 철학, 그리고 감춰진 인간적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하고 생생한 일화로 담았다. “턱밑 배움 경험자로서 기억나는 데까지 사실과 진실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고현 교수는 일기처럼 메모한 스님과의 이야기를 풀며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다. 또한 법정 스님의 나무의자, 산새들의 목을 축여주는 돌물확, 대나무 숲길, 스님의 뒷모습 등 수년에 걸쳐 불일암을 찾을 때마다 화폭에 옮긴 그림 작품들까지 이 책에 실었다. 이 책을 통해 고현 교수는 법정 스님의 본래 성품, 개인적 습관, 인간적 모습 등 가려져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한다.

저자는 “불일암을 오가며 가까이서 뵈었던 법정 스님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유쾌한 농담도 무척 잘 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서릿발 같은 수행자의 표상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불일암의 자연, 그곳의 작은 생명들에게 전해주셨던 스님의 자비는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그런 스님의 모습을 화폭에, 그리고 이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고 회고한다. 법정 스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깥일이 아니라 내부의 일이었다. 우선 언어 사용서 제동이 걸렸다. 당신 스스로 수십 년 글을 써온 터라 무심코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에 새로운 해석을 내리셨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 운운하면 무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 했다.

“자연이 언제 우리에게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일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오만한 태도서 나오는 소립니다. 자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만이라도 자연보호가 아니라 ‘자연보존’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30여 년간 법정 스님과의 추억 일기처럼 메모한 일화 담겨져

한번은 모 지방서 행사명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하마터면 행사를 취소당할 뻔했다. ‘불우(不遇)’라는 단어의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봤느냐는 법정 스님의 면박이 날아왔다. 그 현수막과 각종 인쇄물, 어깨띠 등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하고 ‘우리 이웃 서로 돕기 바자회’라고 고쳐 써야 했다.

저자는 “심지어 법정 스님은 자연생태환경 운운하는 단어도 ‘자연생명존중’으로 고쳐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는 일에 행여 겸손 하심 검소 침묵 평등 대신에 교만 아상 풍족 자랑군림의 언행이 끼어들까 철저히 감시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언행일치, 필행일치, 덕행일치’ 등 말과 행동이, 글과 행동이, 덕을 행함이 일치하라는 스님의 말씀, 욕망을 좇지 말고 소망을 따르라는 말씀,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이 있다는 말씀, 자신의 빛깔로 내 인생을 살라는 말씀… 등등. 법정 스님은 떠나셨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아직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기처럼 메모한 스님과의 이야기를 풀다 보니 책 한 권이 됐다는 고현 교수는 이 책 속에서 스님과의 첫 만남부터 입적할 때까지 아주 작은 에피소드조차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들을 소개했다. 번잡한 장소서 막무가내로 사인과 ‘한 말씀 부탁한다’는 한 여인에게 정말로 ‘한 말씀’이라는 글자만 적어준 모습, ‘맑고 향기롭게’ 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차에 타며 차가 없는 이들을 동승시키기 위해 “서대문! 신촌! 충무로!” 등을 외칠 때 “영동고속도로, 강원도!” “강원도 무료야! 없어?” 하는 농담을 날리는 스님의 여유로운 모습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고현 교수 역시 이 책을 출간하며 “어쭙잖은 고백이 무소유와 나눔의 삶을 산 스님의 함자를 헐까 걱정”이라며 원고를 퇴고하고도 출간까지 1년을 망설였다. 하지만 스님의 저서가 절판되고 스승의 존재감과 가르침이 희미해질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스님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으로 스님의 격려를 받으며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를 화두 삼아 한 평생 살아온 저자 자신의 인생을 자기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을 출간하도록 독려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고현 교수**는?

1949년 전남 장흥서 출생한 저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아왔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탱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고현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스승 법정에게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쓰고 그리며 이 책에 집대성했다.

“나의 현재는 과거 내가 만든 작품”

월호 스님의 화엄경 약찬게 강설

월호 스님 강설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은 월호 스님〈사진〉이 진행한 불교방송 〈리셋! 밝고 둥글게〉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화엄경 약찬게 강의’를 글로 엮은 것이다. 재미있는 법문으로 이름이 높은 분답게 월호 스님은 〈화엄경 약찬게〉를 강설하며 글자 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에 관련된 뒷이야기, 다른 경전 속 이야기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빗대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 소개한다. 이렇게 제목부터 시작하여 전체 110행을 세세히 풀어 주는 월호 스님 특유의 유쾌, 명쾌, 통쾌한 설명은 독자들이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듯 〈화엄경 약찬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스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읽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선사한다. 스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이 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우리 눈과 머리에 한 순간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변환한 것이다. 〈화엄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며 대중을 교화하자, 함께 있던 수많은 보살과 신중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불교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화엄경〉은 어려운 내용, 그리고 방대한 분량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 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준다면, 〈화엄경〉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도 한 번쯤은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화엄경 약찬게〉는 용수 보살이 80권에 달하는 〈화엄경〉을 110자, 770행으로 압축해 찬술한 게송이다. 80권이나 되는 〈화엄경〉보다 훨씬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보살과 신중이 모두 나열돼 있다. 각각의 존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알기만 한다면 80권 〈화엄경〉을 모두 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재미있는 법문으로 정평이 난 월호 스님은 〈화엄경 약찬게〉를 강설하며 글자 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에 관련된 뒷이야기, 다른 경전 속 이야기

〈화엄경〉을 110자, 770행으로 압축 저자 특유의 유쾌한 언어로 설명

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빗대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 소개한다. 이렇게 제목부터 시작해 전체 110행을 세세히 풀어 주는 월호 스님 특유의 유쾌, 명쾌, 통쾌한 설명은 독자들이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듯 〈화엄경 약찬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스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읽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선사한다.

“장미는 장미 나름의 향과 아름다움이 있고, 들국화도 들국화 나름의 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꽃이 부처님의 꽃이다.” “죄를 지어 감방에 간 사람이 감옥 생활에 대해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은 과거 내가 만든 작품의 결과이다.” “다른 이가 밥을 먹어 준다고 내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등등.

스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이 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우리 눈과 머리에 한 순간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변환한 것이다.”는 〈화엄경〉 핵심 사상을 우리 눈과 머리에 한순간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변환한 것이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던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불교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화엄 사상의 현실 긍정적인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월호 스님은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요즘 시대야말로 화엄 사상이 융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사람 몸 받고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내 상황은 과거 내가 지은 복덕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복 닦기, 도 닦기에 더욱 집중한다면, 그리고 모든 존재 저마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개인에게는 평안이 올 것이고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다만 한 생각, ‘내가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그 불성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여여부동한 성품을 바라보는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는 차원에 들어설 때, 바로 그 화엄의 절대 긍정과 무차별의 가르침에 들어선 자신을 느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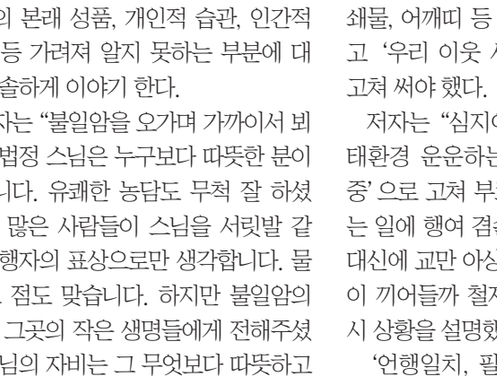
저자 **월호 스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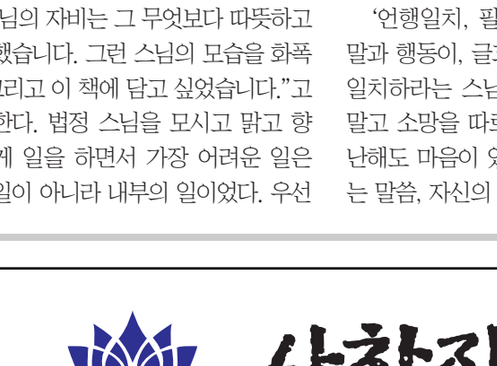
동국대 선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쌍계사 조실 고산 큰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서 정진했으며,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현재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겸 서울 송파구 행불선원 원장으로서,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전교실, 힐링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저서로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천수경 풀이 〈아바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이 있다.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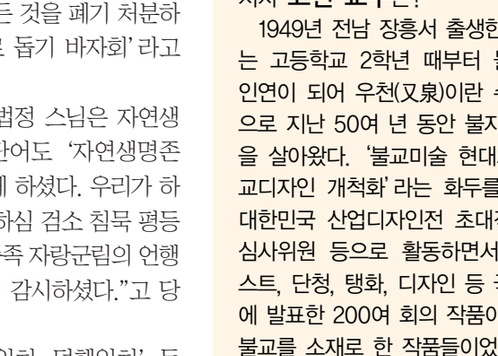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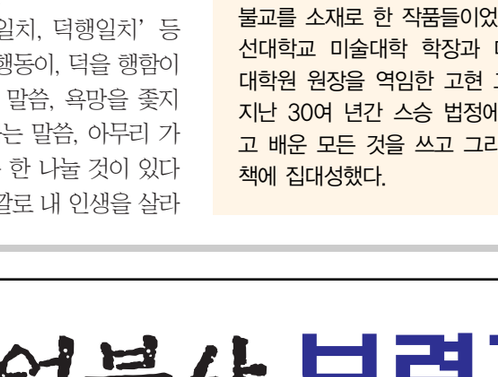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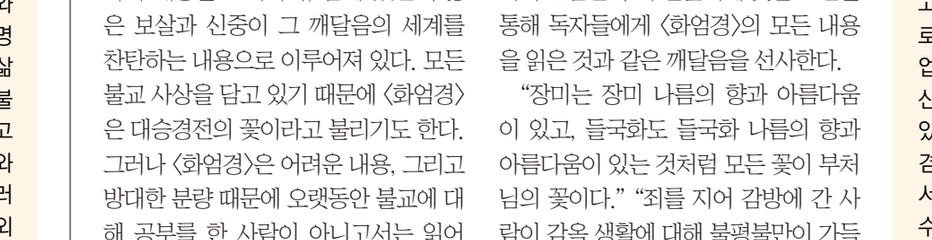


| 인등·영구위패 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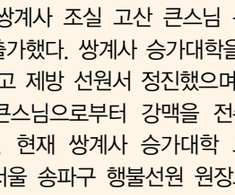




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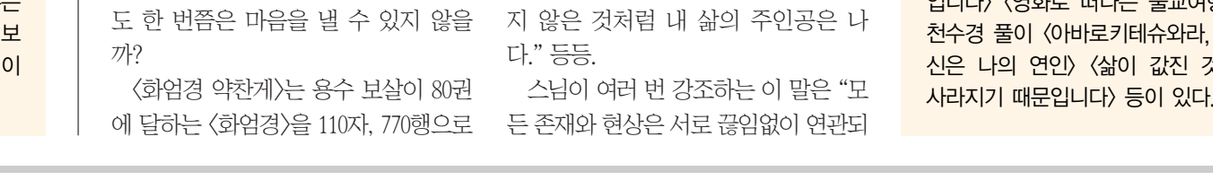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티베트 비구니, 성 평등 외치며 '고군분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티베트 성 불평등 현상 지적

중국 쓰촨 지방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티베트 불교학교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이 티베트 여성 인권과 비구니들의 권리를 주창하고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비구들은 이 변화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콩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3월 15일(현지시간) 티베트 여성들이 겪는 성불평등 현상과 함께 이를 탈피하기 위한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티베트 자치구 설타르 카운티(Serthar county) 라렁갈(Larung Gar) 계곡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연구소인 설타르 불교 연구소(Serthar Buddhist Institute)가 위치해 있다. 이 연구소에는 1만 명 이상 승려 및 불자가 공부하고 있으며, 연구소를 중심으로 9,000여 채의 목조 가옥이 가득 메우고 있다.

티베트에서 가장 오랜 불교종파인 닝마(Nyingma)파의 불교학교이기도 한 이곳은 최초로 여성들의 입학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100여 명 비구니 스님들은 이곳에서 페미니즘 연구와 더불어 불교 여성인권 관련 책·잡지를 출간하며 불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성 불평등 현상은 나타난다. 여성들은 불교 학교 내 사원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남성들은 비구니 사원 출입이 금지돼 있다. 또한 학교나 사원 내 모든 시설들은 남녀공용으로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불평등 현상은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신더 시자모우니 비구니 스님은 티베트 불교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비구 스님들과 동등한 권리 및 자격을 누리지 못하는 점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신더 스님은 "불교에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말한다. 부처님이 강조한 핵심사상이 '평등'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많은 원로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교계 내부에선 이 같은 현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은 냉혹한 성 불평등 문화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티베트 불교, 불평등 외면해"
일부 불교학교, 여성 입학 거부
비구니, 주지 스님 될 수 없어
비구계 "서구 사상일 뿐" 반발

이밖에도 티베트 불교 내 다른 종파에서도 성 불평등 현상은 큰 문제로 거론된다. 티베트 불교에선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처럼 주지스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겔룩파는 법왕인 달라이라마가 노벨상 시상식에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칭할 정도로 여성인권 향상에 우호적 태도를 나타냄에도 불구, 겔룩파 불교학교는 여성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익명의 원로 비구니 스님은 "우리는 비구 스님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비구니 스님 또한 "티베트 승단으로부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이 같은 활동을 펼친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티베트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설타르 불교연구소 비구니 스님들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 스님은 "모든 종교에선 자비심과 이타적인 삶을 가르친다. 우리는 티베트 여성들의 건강 및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우리의 활동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기본 권리를 위한 당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국 깐수성 란저우에 위치한 '서북민족대학'의 팔모(Palmo) 티베트문학 교수는 티베트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티베트 여성 인권이 개선되기까지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시도가 티베트 사회와 불교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젊은 세대도 여성인권 향상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페마(23) 스님은 "이 같은 움직임은 비구니 스님들이 성평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구 스님들은 '서구적인 콘셉트'일 뿐이라며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축 스님(45)은 "'성 평등'과 '페미니즘'은 외국에서 유입된 사상이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티베트 불교를 외부로부터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중국정부도 티베트 여성 인권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 독립과 민족주의 운동을 저지하며 10년간 라렁가 학교의 학생 수를 감축해왔으며, 2001년에는 학교 주변 2천여 개의 목조 가옥을 철거했다. 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에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성 불평등 문화가 일반 여성들의 승려 출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일반인으로서 겪는 성 불평등을 견디지 못해 승려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티베트 비구니 문화를 수년간 연구한 파리 동아시아사회조사센터 니콜라 슈나이더는 "티베트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비롯해 가사노동의 90퍼센트 이상을 책임진다. 또한 중매결혼, 가정폭력, 고부간 갈등 등이 티베트 여성들을 비구니 스님으로 귀의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처럼 일반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승려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기원전 3C 사리함, 무분별 방치 '논란'

19세기 타밀나두로 이동… 갤러리서 보관

인도 첸나이 박물관(the government Museum in Chennai)이 기원전 3세기 불교 유물을 장시간 방치하고 있어 학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도 언론 'The Hindu'는 3월 15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州) 동부의 군투르(Guntur) 시(市)에 위치한 바티플로루 사리탑(Bhattiprolu stupa)에서 찾아낸 사리함이 완전 방치돼 있어 불교 및 고고학계를 화나게 했다"며 "학계는 유물을 타밀나두(Tamil Nadu) 주(州)로부터 이송시키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리함은 1872년 영국 공부원 로버트 스웰(Robert Sewell)이 바티플로루 사리탑에서 발굴 작업을 펼치던 중 발굴했다. 울창한 초목에 덮여져 있던 사리탑은 앞서 1870년 보스웰(Boswell)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고대·중세 인도의 일상어 인 프라크리트(Prakrit inscription) 어가 새겨져 있었으며, 마우리아 폴리시(Mauryan polish; 마우리야 시대 미술 양식으로, 표면에 심한 광을 내는 기법)가 사용돼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영국 공무원들은 19세기 바티플로우 마을로부터 마드라스 박물관으로 사리탑을 이송했다.


사리함이 발견된 바티플로루 사리탑(Bhattiprolu stupa) 유적지.

그러나 이송 후 사리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나그리디(Nagireddy) 박사는 "사리함은 귀중히 보관·전시되는 것 대신에 에그모아(Egmore)에 있는 아마라바티 갤러리 한 켠에 부주의하게 방치돼 있다"며 "정부는 사리함을 즉시 군투르 지역으로 되찾아 와 가치에 맞게 보존 및 전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리함은 인도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로 5개 함으로 구성되며, 기원전 3세기 쿠비라카 왕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872년 발견 당시 몇 개의 염주 및 사리가 내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레스터 시티 EPL 1위 질주… 불교가 비결?

3년 간 선수들 위해 태국 스님들 기도 '눈길'

레스터 시티가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서 1위로 질주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가운데, 이 기적과 같은 활약이 종교적 힘에서 비롯된 것이란 관점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30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레스터 시티FC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간신히 잔류에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기적과 같은 성과다. 큰 이변이 없다면 창단 최초 EPL 우승도 노려볼 수 있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에 대해 "태국 스님들 덕분"이라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

영국 대표 스포츠 매체 'ESPN FC'는 "당신은 레스터 시티의 활약이 뛰어난 코칭, 고강도 훈련, 궁극의 팀워크라 생각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아니다. 태국 불교 스님들에게 큰 공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태국 스님들은 지난 3년 간 레스터 시티 소속 선수들을 위해 연습 혹은 경기장을 방문, 선수들에게 행운을 불어넣어주고 일부에게는 그 징표로 부적을 나눠주기도 했다. 프라 프로망칼라찬 스님은 "나는 그들에게 부적을 목에 걸어줬다. 선수들이 내가 설명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 전부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란 굳은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레스터 시티가 EPL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활약의 근거가 "태국 스님들 덕분"이란 관점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레스터 시티가 훈련에 종교적 방법을 도입한 것은 구단주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 때문이다. 비차이는 고대 불교 철학 중 카르마(Karma; 업)에 확고한 신념을 둔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차이는 레스터 시티 경기마다 태국 스님들을 초청하고, 스님들이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게끔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찰서 예불 뿐 아니라 강의 함께 해야"

달라이라마, 3월 6일 위스콘신 법회서 강조

달라이라마는 3월 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서 열린 법회에서 불교 사찰들이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술적 강연을 위한 곳으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베트 언론 '더 티베트 포스트'에 따르면 달라이라마는 위스콘신에 위치한 디어파크 부디스트 센터에서 "30년 이상 현대 과학자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분석하는 토론을 해왔다. 이러한 시도는 비(非) 불자들도 불교를 보다 쉽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과학과 접목해 가르친다면 불교센터들이 불교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불교 센터와 사찰에서 기독교·유대교·힌두교·이슬람교 등과 함께 종교간 대화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각 종교들의 전통적 가르침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바로 '사랑'"이라며 "우리가 더 행복한 인류를 창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서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불교 사찰들이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술적 강연을 위한 곳으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티베트포스트

아울러 달라이라마는 종교간 분열을 반대하며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막으려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더 티베트 포스트'는 "불교는 이웃종교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 바 있다"며 지난해 여름 프랑스 불교센터에서 개최한 무슬림교와 불교 어린이 합동 스카우트 캠프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불교사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학의 불교 타당성 연구' 등 주제를 다룬 불교계의 과학적 연구에도 주목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종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종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종할 수가 있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51-245-5353
010-4876-5353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 학 마 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참여
- 배우면서 행사 함께 참여 하실 분 (대구)모집
010-8674-1149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運을 올리는 작명, 개명
- 이름과 숫자(은행비밀번호 등)가 運命을 좌우한다
- 아폴로13호 : 고장으로 귀환
- 2016년 5월 : 괴변이 예상됨
- 신생아는 진용일, 진용시에 출생신고 하여야 運이 크게 올라간다
작명제일 용님선원
010-2849-385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875-6317

기도하며 공부하실 비구니스님 인연을 원합니다.
예비스님 및 행자도 가능
(경남 밀양)
010-3848-16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성주)
010-3159-122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불로동)
010-2515-066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답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공양주 1명, 처사님 1명
(충북 단양)
010-5960-208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松根油 송근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 청소년 선재동자 합장주 •
청소년 영식을 치유해 주는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합장주
침향(沈香)은 천상의 향기라 하여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여 줍니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침향은 마음의 정서를 정화하여 주는 신비의 향기입니다.
산란한 마음,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여과하여 긍정과 용기로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성나고 화나고 분노할 때 손목에 찬 합장주를 코에다 대고 향기를 1분 정도 3번 이상 맡으면 천상의 범천이 향기로 나타나 성나고 분노한 마음을 잠재워 줍니다.
향불원에서 보급하는 침향은 인도산으로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나무로 만든 염주(합장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선물하시어 선재동자 같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인연의 기회가 되어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한 선재동자의 지혜를 얻어 축복받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용 5만원 남성용 6만원
주 문 : 010-3867-7379(문자·전화), 010-4475-6611(문자)
입 금 처 : 농협 351-0861-9260-63 (예금주 보현사)
생산·보급처 : 불교NGO (캄보디아 향불원)

周易(주역) 강의 수강생 모집
■ 개강일시 : 2016년 4월 5일 (화요일 / 매주 1회 교육) 오후 7 ~ 9시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동방정신문화학회사무실
■ 회 비 : 월 4만원
■ 교육예정기간 : 10개월
■ 특 전 : 수강자 전원 소주천 기초과정 (올바른 단전호흡법) 전수
■ 연락처 : 010-6521-7090 051-527-7090
동 방 정 신 문 화 학 회

漢文 /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으로 십여 년간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 드리오며 마지막 수정편으로 염불과 경전공부 한글 염불수행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악을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아라. 악 속에 즐거움을 누리지 말아라. 악의 축적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느니. 작은 악이라도 경시하지 말거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마침내는 큰 물병을 채우느니.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부산시내 전통기와 사찰◀
- 위치 : 부산역 부근
- 총부지 : 230여평, 주차장 40여평
- 건물 : 법당(25여평), 요사채(방10개) 별채주택(전세 5천 받고 있음)
- 인수가 : 3억 3천만원(대출 4억 2천)

051-863-6622

▶시장부근 토굴◀
- 위치 : 통영(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만원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공주시 추천암자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 90㎡, 토지 660㎡
- 남향으로 좋은터
- 마곡사 IC부근, 산중조용하고 기도암자로 적당함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건물 리모델링함. 주차장 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사찰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대지 : 65평 ◎ 대지 : 22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 5천 ◎ 양도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 금정산
- 대지 80평, 법당24평, 요사채 22평, 산신각
- 정남향 뒤는산, 위치좋은 암자
- 가액 : 은행안고 2억 1,000만 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 조립식 16평
- 요사채 : 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공주시(급) 토굴

갑사 방향 산속토굴
- 토지 1600㎡, 건물 80㎡
- 산중이며 주변에 마을없어 조용함
- 기도토굴, 깨끗하고 주변환경이 수행하기 좋음
- 가액 : 1억 1천만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 : 벽돌조 독채 104.54㎡(32평)
- 대지 : 대로변 311㎡(94평)
- 문중개인소유(도지료 년35만)
- 내용 : 법당, 거실주방, 방2, 세면장 화장실
- 면소재 2차선 대로변 남향
- 교통좋은 포교지 법당 넓음
- 가액 : 4,800만원, 건물 개인등기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토굴 팝니다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면사무소에서 3.6km)
- 건물 : 30평(목조기와) 대지 : 100평
- 금액 : 1억 5천만원
- 위치 : 문경읍 관음리(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목조강판기와), 부지 : 82평
- 금액 : 7천만원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 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은거토굴 안내

대명당
- 위치: 대구 동구 팔공산 중대동
- 평수 : 대지 200평, 2층건물
- 방3, 거실, 주방, 정남향
- 대명당에 기운으로 행정고시 2명 배출한 터입니다.
- 가액 : 5억 8천만원

010-9355-1779

포교원 안내

- 위치: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보이 호텔옆
- 평수 60평, 5층건물중 낮은 3층
- 방3개, 화장실, 법당, 베란다
- 겨울난방, 여름난방 필요없음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6208-5555
055-242-655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 종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5천 (스님 건강문제로)

010-4628-5699

마음편한 시골집

- 위치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지
- 총 746평(대지 423평)
- 주택 25평 (등기필)
- 상수도, 전기, 지하수관정, 해우소
- 마당까지 포장, 20대 주차
- 가액 : 9,500만원
- 사찰불사 가능

010-4591-6200

도심속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지하철 걸어서 5분소요 버스는 1분정도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 사용공간 : 약 20~30평 공간있음, 세면실 별도 방 총 6개<2개는 햇빛이 들어오고, 문열면 바로 밖> <종무소 친견실(넓음)>, 스님방, 빈방 3개, 다용도실 (넓음)
- 관리비 한달 50만원 가량, 주차는 얼마든지 가능
- 인체리어 시설완벽
- 부산시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넓고 큰 본인 사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및 전세"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 8천에 월 100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2천만원(가격절충)

010-4564-8108
010-7161-2108

아늑하고 양명한 절터

- 남쪽지리산 성짓골을 차지하여 양쪽으로 개울이 흐르고 주봉에서 꽃잎처럼 둘러쳐진 산자락이 매우 양명하고 아늑한 중간사찰의 부지(2천5백여평)임
- "한국서정시연구회"를 검색하면 다음지도에 위치가 나옵니다
- 가격은 10여 년 전 가격 그대로 3억 5천에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4920-320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길 22-31
- 대지 1,240평, 산신각, 미륵불 있음
- 요사채 없음, 암반수, 전기시설
- 가액 : 7,000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60 (상계로 13-6) 4호선 당고개역 바로 앞, 재개발 구역
- 지하 1, 지상 2층 단독주택(토지건물 포함)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763-28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 평수 : 80여평
- 3층 건물내 3층 전체 사용 독립 계단,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세70만원
- 시설비 : 3,500만원
- 인천지하철 2호선 정서진역 1분거리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2793-6199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 대지 64평(건물포함)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삼량진역에서 10분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 4개, 다실 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547-1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 심야전기 2대
- 삼존불 영가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0-8900-4874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 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2 중 1방은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가액 : 2억 4천만원
- 산중 작은 암자나 토굴 교환가능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011-9551-3374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 창원시 마산역 부근
- 1층 20평(방2개 욕실, 주방)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 분
- 주변 환경 좋음
- 가액 : 500만원 월 35만워
- 시설비 700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026-581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부시외버스 정류장 부근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영단 소불 냉난방
- 조명 음향 시설 등 완벽 약 2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방 없음, 시설비 1200만원
-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안내 방문후 조정 가능

H·P 010-2500-151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5018-33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0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부산진구 임법당
- 대지 281㎡(시유지 약 60㎡) 합 341㎡
- 법당, 산신전, 노천대불, 방3, 공양간, 현대식부엌
- 작지만 불사하기 좋은 곳
- 잔디정원, 조그마한 텃밭, 주차가능
- 등산로 입구,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4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51-861-2233/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부산역 앞 사찰 안내

- 위치: 부산역 앞, 대지 660㎡
- 건물 : 기와법당 외 스라브 3동
- 사찰시설 아주 잘 되어 있음
- 오래된 도시중심 사찰로써 모든 행사 가능
- 스님 급한 사정으로 매수 조건 아주 좋음
- 가액 : 7억

010-2864-1951
대한공인중개사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45번길 29
제 26470-2015-00126

전원 주택지 명당터 안내

하늘이 내린 천생산 자락에 명예와 부귀를 부르는터 ..."정남향"
- 위치 : 경북 구미시 신동 사각지 못 바로 앞
- 대지 : 1.약 200평 2. 300평
- 기반시설 완료 : 오셔서 건축 바로 하시면 됨
- 가액 : 평당 170만원
- 현장 답사후 가격 절충

010-3503-4162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 IC 10분거리
- 유명한산 칠부능선에 위치한 곳
- 땅 평수 8,500평, 가옥 40평, 25평(2채)
- 365일 1급수(약수물). 사시사철 흐르는 물줄기
- 뭐라해야 스님께서 오시려나... 정말좋은데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한 도량
- 가액 : 9억

010-4130-060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 IC 10분거리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2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골목
- 3층 약 40평 옥상사용가능
- 각시설 완비(아미타불, 탱화, 호신불 100불)
- 가액 : 5백 월 2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5366-149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가격 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 토지 315평
- 건물 요사채 40평
- 법당 20평
- 종각 일주문 및 사천왕
- 가액 : 3억 5천만원 상담후 금액 조절가능

017-488-1909

암자(급)안내

- 위치:합천 해인사 위쪽 도솔암
- 기도처, 155평, 요사채 1동, 법당포함
- 도로포장 잘되었음
- 임산 배수로 경관이 좋고 800고지에 차량출입가능
- 심야전기, 지하수 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

010-3900-30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송파구 오금동 버스종점
- 평수 : 22평 2층
- 방2칸, 거실(대), 화장실
- 가액 :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천 200백만원(절충)

010-3714-0325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IC 5분거리
- 평수: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 1동 33평
- 약사기도 도량임
- 가액 : 2억 5천만원 (은행대출 6천5백만원) 시설물 일체
- 양도, 전 월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1억 월30만원)

010-7183-0114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 도지세 년 20만원

010-9849-7727
덕산 합장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대구 포교원 임대

- 삼존불 지장 신중 탱화, 외국부처님 3분, 소불 60분
- 1층 넓은거실, 큰방1, 화장실1 2층, 법당, 스님방1, 작은거실
- 주방, 화장실, 냉온방기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500만원, 월35만원 시설일체 2,300만원

010-4296-8200
054-954-0904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 2개, 화장실
- 총 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경주남산이 한눈에 사찰터

- 위치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부지 600평(황토)
- 부대시설물 조립식 20평(2동) 40평(2동), 주방40평 방5개 화장실, 산신각
- 경내13자 약사미륵대불
- 주변물흐름도량경관수려
- 경주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명당자리

010-6327-1589

사찰 및 기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산(국유지)
- 건물 : 건물 등기 24평 실평수(50평)
- 방5개, 주방, 전기, 수도 완비
- 자연경관 수려함, 큰강변 국도에서 진입
- 가액 :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3588-811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 도지세 년 20만원

010-9849-7727
덕산 합장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대구 포교원 임대

- 삼존불 지장 신중 탱화, 외국부처님 3분, 소불 60분
- 1층 넓은거실, 큰방1, 화장실1 2층, 법당, 스님방1, 작은거실
- 주방, 화장실, 냉온방기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500만원, 월35만원 시설일체 2,300만원

010-4296-8200
054-954-0904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 2개, 화장실
- 총 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경주남산이 한눈에 사찰터

- 위치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부지 600평(황토)
- 부대시설물 조립식 20평(2동) 40평(2동), 주방40평 방5개 화장실, 산신각
- 경내13자 약사미륵대불
- 주변물흐름도량경관수려
- 경주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명당자리

010-6327-1589

사찰 및 기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산(국유지)
- 건물 : 건물 등기 24평 실평수(50평)
- 방5개, 주방, 전기, 수도 완비
- 자연경관 수려함, 큰강변 국도에서 진입
- 가액 :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3588-811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0-4646-3638

생각 바꾸기

김정호(심리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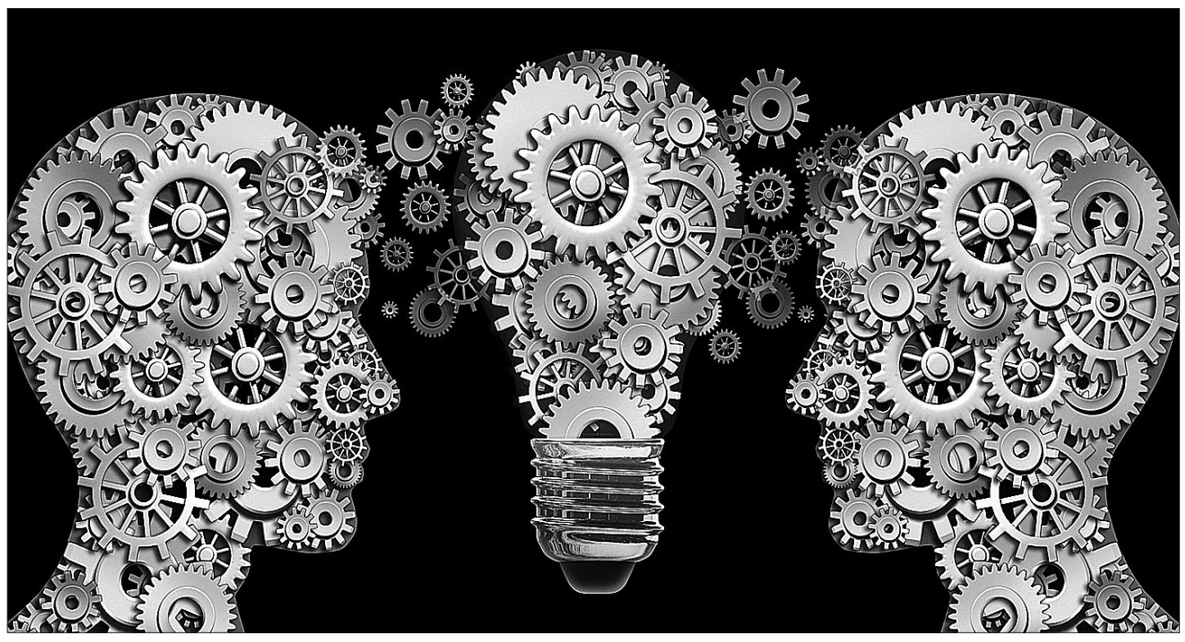
〈1〉 감정은 동기에서 시작한다

욕구와 인지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 책 제목인 '생각 바꾸기'에서 '생각'이란 말은 심리학 용어로 '동기'와 '인지'를 모두 포괄한다. '동기'는 욕구, 욕망, 욕심, 의도를 의미하며, '인지'는 기억, 계획, 판단, 추론, 이해 등을 포함하는 용어다.

즉 이 책은 동기와 인지를 바꾸는 방법과 그 의미를 다룬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때로 행복하게도 만드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박아름 기자



심리를 좌우하는 두 가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얻기'와 '알기'의 두 가지 활동을 한다. 유기체는 개체로서의 생존과 종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유기체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기다.

일상생활에서 동기는 욕구, 욕망, 욕심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기를 정의하는 방식은 이론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동기는 '목표'(혹은 목표 상태)와 '목표를 획득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이나 추동력'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고, 돈을 많이 갖고자 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고, 아름다운 이성과 사귀고 싶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승진을 하고 싶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등의 여러 가지 동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동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동기 외에 살아가며 얻게 된 앎(지식)을 통해 새로운 동기들이 파생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기의 구성요소인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소망의 크기에 따라 동기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동기는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동기로 구분될 수 있다.

동기는 유기체가 달성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를 포함하며, 목표 상태에 대한 소망 혹은 당위의 형태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당위는 소망보다 동기 강도가 더 강하고 융통성이 적다. 소망은 어떤 목표 상태를 바라되 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품고 있는데 반해, 어떤 목표 상태가 반드시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 상태가 좌절되었을 때, 당위의 경우에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목표 상태는 목표 상태의 대상에 따라 크게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당위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소망/당위로 구분된다.

동기의 표현 형식에는 바라는 상태나 행위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면 좋겠다' '…하고 싶다')과 상태나 행위에 대한 당위의 표현('…이어야 한다' '…해야 한다')이 있다.

동기 상태는 주관적 정서로 경험되며 몸을 통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 동기 상태는 동기의 목표 획득을 위한 행동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준다. 즉 동기 상태는 동기의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혹은 충족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가 좌절되었는지 혹은 좌절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줌으로써 동기의 목표를 향한 행동을 안내한다.

동기의 충족 또는 충족예상은 '강화'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동기충족과 동기충족 예상을 수반하는 행동은 다시 나타날 빈도가 높아진다. 동기의 좌절 또는 좌절예상은 '처벌'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동기좌절과 동기좌절예상을 수반하는 행동은 다시 나타날 빈도가 낮아진다.

인지(cognition)란 앎을 말하며 심리학에서 인지를 연구할 때는 앎의 획득, 유지, 활용 등을 다룬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즉 동기의 체계와 함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앎을 획득하는 매우 뛰어난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지체계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하고 발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기 자체의 형성과 소멸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지와 정서의 관계

동기 상태는 주관적으로는 정서로 경험되며 몸을 통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인 동기좌절과 동기좌절예상의 동기 상태는 부정정서로 경험되고, 웰빙인 동기충족과 동기충족예상의 동기 상태는 긍정정서로 경험된다. 이렇게 정서는 동기 상태를 나타내므로 인지와 정서의 관계는 동기와 인지의 관계를 다룰 때 이미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인지와 정서의 관계에서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동기와 인지의 관계에서 동기 상태가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지 또한 동기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서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서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지도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부정정서는 부정적 인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긍정적 인지의 활성화는 억제하며, 긍정정서는 긍정적 인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부정적 인지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반대로 긍정적 인지는 긍정정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부정정서의 활성화를 억제하며, 부정적 인지는 부정정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긍정정서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는데, 동기와 인지의 관계에서 다루었듯이 실제로는 정서와 인지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인지와 정서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가 삶의 의미, 자존감, 주관적 웰빙 등을 포함해서 매개 관계를 다루는데, 이러한 개념들의 조작적 정의는 서로 중복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관적 웰빙의 조작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으로 측정되는 인지적 요소와,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로 측정되는 정서적 요소로 구성되므로 주관적 웰빙의 개념 안에 이미 인지와 정서가 혼입되어 있다. 따라서 심리학 개념들 간의 관계를 다룰 때는 조작적 정의들 간의 중복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접근은 중요한 심리적 개념들에 대해 새로운 조작적 정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동기는 '목표'와 '소망' 의미 인지로써 진화하고 발달해 동기-인지, 상호 영향 미쳐 행동과 환경 관리에도 유용**

연필을 이로 물면?

우리의 생각은 몸을 떠나서 작용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이라고 해서 생각(인지)을 비롯한 욕구(동기), 감정(정서), 감각 등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몸, 그리고 몸을 둘러싼 물리적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문서 편집, 통계 작업을 할 때, 밖의 온도가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거나 영상 수십 도로 올라가지 않는 한 특별히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작동한다. 그러나 나는 날씨가 화창해서 햇빛이 눈부시도록 밝은 날과 짙은 구름으로 하늘이 덮여 햇빛을 볼 수 없는 날 생각의 작용이 다르고 기분이 달라진다. 영국 사람과 스페인 사람의 기질 차이는 상당 부분 날씨 때문일 것이다.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왕성한 사춘기 청소년은 생각도 달라진다. 그들은 위험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평가하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확대해서 생각한다. 여성들은 생리주기의 시점에 따라 생각과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배고플 때는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되고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만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배가 고파도 매우 까칠하고 비판적으로 된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생리적으로 절박할 때와 편안할 때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런 일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코미디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는가에 대한 평가(마음의 작용)는 그 만화를 볼 때의 얼굴 모양(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연필을 이로 물게 하고 만화를 보게 하면 연필을 입술로 물게 하고 볼 때보다 더 재미있다고 평가한다. 연필을 입술로 물때와는 달리 이로 물면 웃는 얼굴이 된다. 얼굴 표정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원버스에서 자리를 잡고 가는 사람들과 서서 시달리며 가는 사람들에게 도시의 교통 사정에 대해 인터뷰한다면 그들의 평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동일한 사람도 인터뷰한 시점에 자리에 앉아 있느냐 혹은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을 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가 나에게 잘못한 기억만 나고 그의 단점에만 유독 집중하게 되어,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줄 말이나 행동을 한다. 그러다가 마음이 풀리면 그 사람이 잘해준 기억, 장점 등이 떠오르고 앞서 화가 났을 때 했던 말과 행동을 후회한다.

이렇게 한 개인의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과 그의 환경은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 걷기가 몸에 좋다는 인지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와 연결되면서 걷기에 대한 동기를 형성하고 규칙적으로 걷기를 실행하게 된다. 둘레길이나 강변길을 걷게 되면 걷는 행위뿐만 아니라 햇빛을 포함해서 자연환경이 몸에 긍정적 자극을 주고(감각의 변화 수반) 동기, 인지, 정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공공기관에서 걷기 좋은 길을 더 많이 조성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즐기게 된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인지에 의해 인도를 받지만, 이러한 행동과 환경의 선택이 다시 우리의 동기와 인지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의 순환이 우리의 삶을 이뤄간다.

이렇게 볼 때 스트레스 구성의 안-밖 합치도를 낮추고 웰빙 구성의 안-밖 합치도를 높이는 데는 동기나 인지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한 몸과 환경의 관리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기나 인지의 관리를 위해서도 행동을 통한 몸과 환경의 관리가 유용하다고 하겠다.

김정호 박사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역임 중이다. 한국심리학회장, 한국건강심리학회장,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장 등 맡은 바 있다. 저서로는 〈스무 살의 명상책〉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등이 있다.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배종훈의
명상카툰

여유로 이르는 길



저녁 8시 전에는 경내로 들어와야 한단 종무소 담당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 있는 것 같았다. 퇴근을 하고 서울을 출발해 빠듯하게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녁 먹을 시간도 부족해 달리는 차안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토요일에 편하게 올 걸 그랬나하는 후회가 밤 8시가 다가오면서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 조바심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에 들어서면서, 사위가 어둠에 들면서 조금씩 사라졌다. 속도를 낼 수 없는 1차선 국도 때문인지, 자동차 전조등에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어둠 때문인지는 몰라도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 창문을 내리고 팔을 내밀어 바람을 가르며 굽이굽이 도니 어느새 사찰 입구에 들어섰다. 시계는 저녁 7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심술궂은 겁쟁이와 한심한 도깨비 ㊥

엄마는 오전에 일하러 나가서 밤 11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다. 외할머니가 쓰던 브라운관이 볼록한 텔레비전이 정민이의 유일한 친구였다. 정민이는 몇 개 되지 않는 채널을 돌리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이 들곤 했다.

무당집에 갈지 말지, 정민이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주희 말대로 아이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에 빛나는 겁쟁이들이니까. 도깨비 같은 것이 정말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어쩐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깨비가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정민이는 문방구 아저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문방구 아저씨는 가게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형광등 빛을 받은 아저씨의 민머리가 반짝 빛났다. 그러고 보니 아저씨의 머리는 어딘지 이상했다. 보통 대머리인 사람들은 이마부터 벗어지고 머리숱이 없는데, 아저씨의 머리는 숱이 많았고 머리 중앙에서 살짝 빗긴 듯이 구멍이 나 있었다. 빵모자를 비스듬히 기울여 쓴 것처럼.

"도깨비가 아저씨 머리에 불을 놓았다던데 사실이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때 내 나이가 일곱 살이었거든. 여기 이 사진을 봐라."

아저씨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이때가 여섯 살 때. 머리에 구멍이 없지 않니. 여기 이 사진은 일곱 살 때야. 머리가 다 타버렸지. 머리에서 파란 불이 활활 타올랐어. 차가운 불이었지. 화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머리카락만 타버렸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어."

"그 집에 아직 도깨비가 살아요?"

"아마 그럴 거다. 내 머리에 불을 놓은 후에 우리 할머니가 도깨비를 단골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이사를 나왔지. 그 도깨비가 처음부터 그렇게 미쳐 날뛰었던 건 아니란다. 장난치는 걸 무척 좋아하긴 했지만. 심술이 나면 그저 그릇이나 깨먹고 솥뚜껑을 천장에 붙여 놓는 정도였지. 어린 시절에 도깨비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생긴 건 우락부락해도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지. 어느 날엔가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멧돼지를 잡았는데, 돼지 피가 떨어진 줄 모르고 아버지가 빗자루로 길바닥을 쓸었지. 그 도깨비는 빗자루의 정령이었거든.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발광이 나지. 미쳐 날뛰는 도깨비를 무당이었던 할머니도 어쩌지 못하고 더는 해코지나 못 하게 나무에 붙잡아 매어둔 거야."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등 뒤에서 말했다.

"도깨비를 만나거든 절대 위로 쳐다보지 마라. 도깨비는 우리가 보는 만큼 크기가 커진단다. 아래만 보고 있으면 눈높이만큼 작아지지. 조심해라. 이 세상에 미친 도깨비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단다."

무당집으로 가는 길엔 가로등이 없었다. 어두운 길 위에 희미한 달빛이 어룽졌다. 삐이 삐이 밤새가 울었다. 정민이는 무언가 시커멓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그게 자기 그림자인 걸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어디선가 스스스스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림 · 강병호

나무 대문을 밀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소리가 끼이익 하고 크게 울렸다. 재민이 녀석이 말한 나무에 빗자루 같은 건 묶여있지 않았다. 알록달록한 천 쪼가리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어이, 뭘 그렇게 기웃거리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강아지만 한 작은 물체가 하나 밖에 없는 발로 통통통 튀어나왔다. 정민이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네가 그 꼬마 도깨비니?"

달빛 속에 서 있는 도깨비는 짙은 초록색 피부에 더부룩한 머리칼 사이로 작고 귀여운 뿔이 뾰족 돋아나 있었다. 크고 둥근 눈은 맑게 반짝였고, 입 밖으로 아무렇게나 삐죽삐죽 뻗은 덧니가 무척 귀여웠다.

"듣던 거랑 다르게 정말 귀엽게 생겼다. 너."

"뭐? 내가 귀엽다고?"

도깨비는 통통 튀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정민이는 도깨비를 따라 위를 쳐다봤다. 그때였다. 도깨비가 점점 커지더니 나무만 해졌다. 귀여워 보였던 이빨은 끔찍해졌고, 부리부리한 눈이 파란 불을 내뿜으며 이글거렸다. 도깨비는 흉측한 입을 벌려 크아앙 하고 산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

정민이는 그제야 도깨비를 올려다보지 말라던 문방구 아저씨의 충고가 떠올랐다. 정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렸다.

"뭐야? 너 우는 거냐? 쳇, 순 겁쟁이였잖아?"

"그게 아니야."

정민이가 쏘아붙였다.

"그럼 왜 우는 건데?"

사실 정민이도 이유를 몰랐다. 가슴 속에 갇혀 있던 답답한 것들이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고, 한 번 터져 나온 감정은 물밀 듯이 자꾸만 쏟아졌다.

"난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이제 서울엔 우리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빠도 없어. 내 장난감엔 빨간 딱지 같은 걸 붙이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내 장난감을 모두 버리고 왔어. 난 여기가 정말 싫어. 엄마는 매일 한숨 쉬다가 신경질만 부리고, 냄새나는 콩나물이랑 시금치도 지겨워. 여기에는 피자도 없고, 치킨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 그리고 난 친구도 없어. 모두 나보고 심술쟁이래. 이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어. 난…… 정말…… 외로워."

정민이가 우는 사이 도깨비는 점점 작아져서 정민이만 해졌다. 도깨비는 초록색 팔을 뻗어 정민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정민이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원한다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울음은 점차 잦아들었다. 정민이는 고개를 돌려 도깨비를 봤다. 도깨비는 울고 있었다.

"외로운 게 어떤 건지 잘 알아. 오랫동안 난 여기에서 혼자 지냈어. 무당 할머니가 나를 이 나무에 묶어두고 떠나면서 말했어. 피가 묻어 미친 도깨비에게는 약이 없단다. 비바람에 피가 씻기길 기다리는 수밖에. 때가 되면 다시 와 풀어주마.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 영원히. 도깨비 친구들도 이곳엔 오지 않아. 사실 난 엄청나게 한심한 도깨비거든."

정민이는 어깨 위에 놓여 있는 도깨비의 손을 잡았다. 거칠거칠한 손에서 점차 따뜻한 기운이 배어 나왔다. 정민이는 빙긋이 웃었다.

"원한다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89호 현대불교
2016년 3월 23일 (2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내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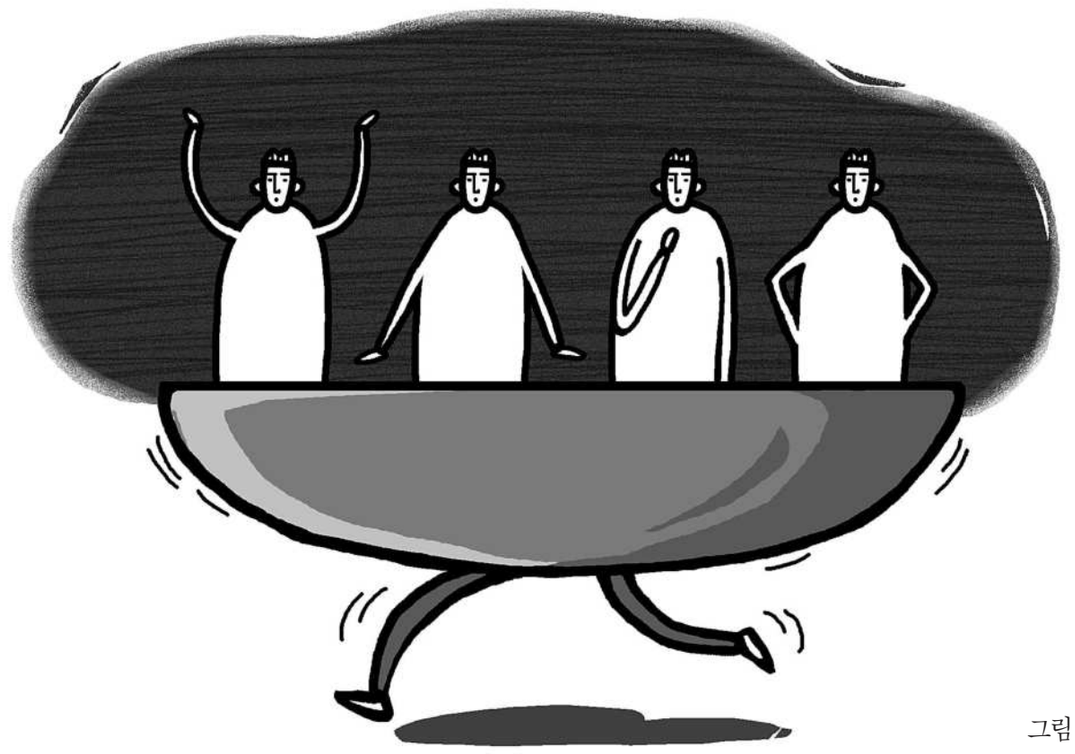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도 꽉 찼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못 보던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도 내일도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세세한 인간 사회, 또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기에 그렇게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문제, 잠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꼭 알아 둬야 할 문제가 바로 마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고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이 각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벌어졌고 바로 상대가 생겼고 고통이 생긴 거죠. 여러분은 과거에 살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인과로써 업보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전부 알아도 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숙명통은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지은, 아는 그 모두가 여러분이 사는 대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이 된 그 자체가 현실로 나오는 거고 지금 사는 것이 미래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마음으로써 전달을 하면서,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가 끝없음을, 또는 시발점도 종점도 없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길잡이로서 여러분한테 바로 그 도리를 일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몸 바꾸기 전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인과성이라든가 또는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또는 영계성이라든가 오간지옥성, 모든 그 죄업이, 즉 말하자면 고(苦)덩어리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온 자리에다 다시 되입력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세트나 그런 데다 노래를 입력해 놨다고 합시다. 그게 만약에 죄업이라면 다시 죄 없는 마음을 입력해 놓는다면 그 앞서 입력된 건 다 소멸됩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죄 붙을 자리도 없고 병 붙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관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것을 떼 놓지 못하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저럭하는 것은 안 되지. 이럭하는 것은 잘될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사량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습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유교로서, 불교의 진짜 뜻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탓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가져왔고 지금 현실의 한국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치지 못하는 그 습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딴 데는 강당도 그렇게 좋은데 한인 교포들의 강당은 그렇게 헐벗고, 즉 말하자면 떨어진 옷과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데 뭉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서 덕도 못 보고 빛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게 그렇고, 앞서의 역사를 가져온 것도 불교를 모르는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정부에서 불교 탄압을 하고 유교로서만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자유스럽습니다. 마음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는지요?

마음은 천만 가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생각한 사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모르고 가는 일은 자기 몸뚱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차와 같고 자기 마음은 운전수와 같고, 마음이 있기 이전은 기름과 같아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니까 운전수 탓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수가 기름도 넣고 차도 끌고 가니까. 그러니깐 그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돌아가는 데 중심. 불교가 어떤 것이 불교인지 아십니까? 불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그릇, 흙 한 줌 또는 불 한 개비, 모든 게, 바람이나 이런 것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근본이, 이 세상 근본이 우주의 근본에 속해 있고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에,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을 하는 이 세상만사가 다 우리 인간의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생활해 보시지만 회사에 가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말도 할 수 있고 또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는 움죽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죽거리는 것은 무엇이 움죽거리고 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살던 인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뚱이가 뼈는 아버지의, 살은 어머니의, 즉 부모의 정자 난자에서 배출된 그 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과로 인해서 맺어진, 그 인연으로 인해서 뭉쳐진, 간단히 따진다고 하더라도 10억이나 13억이나 16억이나 되는 생명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또 생명이 있으니 그거는 헤아릴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 의식 하나가 생각하는 데도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봐도 우리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운행을 해 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산다고, 내가 산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고, 천년 만년 살 듯이 말입니다. 남이 그랬으면 남이 망하게 했다고 하고 남의 탓 하고 남을 원망하고, 한 식구에게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항상 악의적인 말이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식을 기르거나 부모를 모시거나 또는 남편을 모시거나, 여러분한테 사대 성인들이 가르쳐 준 것은 자비한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같이 생각해서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바로 나의 그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면에 여러 의식들이 있는 그 자체를 한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줏대를 바로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한마음 주인공만이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자식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속이 상하더라도 거기다 한번 맡겨 놓고서 부드러운 말로 또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한 가정의 조화를 이룬다면 화목하고 너무나 복이 들어오고 공덕도 받을 수 있고, 아주 화합도 되죠. 웃는 얼굴에 돈이 들어오지 아주 그냥 악의적으로 나가는 데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좇아가면 돈이 달아나가죠. 우리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돈이 오게 하고 자동적으로 선의적으로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50%의 무의 세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50%의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 50%를 같이 쥐고서 우리가 중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삶의 보람을 느끼며 또한 부처님이 49년 설해 주신 그 뜻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단단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불제자라고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모른다면, 즉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전달을 했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삼천 년 전 오늘이나 삼천 년 후 오늘이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도리도 배울 거지만 바로 무심 축지법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원자에서 입자가, 입자에서 바로 분자가 화해서 이 세상을 두루 하면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통신, 결정, 들이고 내는 작업 이것을 바로 내 몸속의 그 의식들이 나가서, 3미터 이상은 안 되지만 나의 3미터 내의 모든 보호를 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혹성뿐만이 아니라 저 지구나 어떤 혹성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구에 바로 주인들이 살기 때문이고 생명들이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뜻을 모르고야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하며, 불교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

☞ 26면으로 계속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 순도 99% 순금
- 작품크기 30㎝ × 2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2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128,000원 (액자 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78,000원 (액자 포함)
- 나한도족자 : 100,000원 (44㎝ × 72㎝)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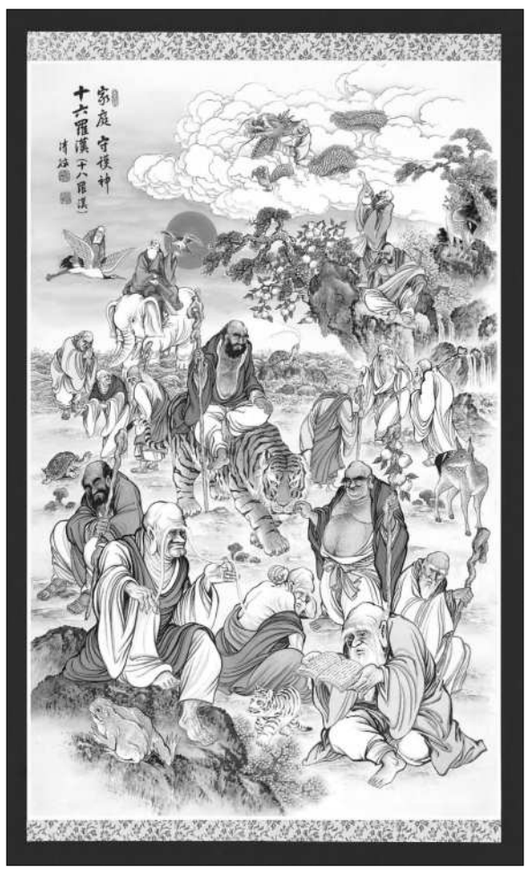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 소림 달마도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한도 족자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는 족자 완성품임.)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마음은 체가 없기에 헤아릴 수 없이 화할 수 있어!

☞ 25면에서 계속

떻게 불제자라고 하겠습니까. 불교라는 그 하나의 뜻, 불교! 불교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포함된 그 하나의 생명을 말한 거고, 한울을 받친 바로 그 불기둥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한울을 받칠 수 있는 불바퀴와 같다, 불기둥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달 없이 전달되고 말 없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니 불교는,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구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살면서 너무나 피로가 많고, 가난과 병고와 우환과 그 모두를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들이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실험한다면,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발견을 해서 둘이 아닌 도리를 또 알기 위해서, 시공을 초월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초월했으면 바로 우리가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한군데로 모으고 또 맡기고, 그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여러분은 게을리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음선원에서는 형상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이름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허공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바로 여러분 마음, 마음 있기 이전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성, 이것이 포함된, 부와 자가 한데 합쳐진 자체를 믿으라는 겁니다. 즉, 생각을 내면 몸이 움죽거리는 것을 보현신. 찰나에 바뀌진다고 해서 이거를 화신이라고도 하고 보현이라고도 합니다. 문수는 법입니다, 법신.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법신이라고 하고, 마음 내는 것을 법신이라고 하고 문수라고도 합니다. 또는 움죽거리는 것을 바로 보현이라고도 하고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관해 보고 관해 듣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 보십시오. 관세음이죠. 딴 데로 관세음을 찾고 부르고 그래서 그 음파가 방귀 뀌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면의 그 관세음이 바로 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사실 수 있다면 그릇을 비우는 거죠.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거나 가난이 있다거나 우환이 있다거나 유전성이 있다거나 명이 짧다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한다면 그 몸속에서 의식들이, 인과로 인해서 맺어진 그 고가 얼마나 많이 들쑤성거리겠습니까. 그저 봤다 하면 그걸로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남은 생각지도 않은 거를 누가 말 한마디 해 주면 또 오해가 됩니다. 그 좀, 보고도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 보면 보는 대로 그냥 일일이 꼬나드는 게 있죠. 들으면 듣는 대로 일일이 꼬나드는 거. 이 습관성을 좀 더 놓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모든 게 여러분의 탓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몸속에서 병고가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다 놓고 '아, 내 한마음의 주인공 속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속에서만이 고칠 수 있어.' 하고 믿을 때 바로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가난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과거로부터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밖엔 해결할 수 없어.' 그러고 거기 놨을 때 바로 관세음 행을 하는 겁니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행을 하는 데에, 실천을 하는 데에 실상으로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게 해 주신 거지, 부처님께서 입으로 이름만 부르고 외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명이 짧을 때에 '아, 명이 짧다는데 명을 좀 길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지.' 할 때 바로 그것은 칠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못 낳아서 애쓸 때는 바로 삼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부모가 좋은 데로 가고 나도 아프지 않고 옷을 잘 벗고 그냥 가야지.' 할 때에 바로 지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천백억화신이 부처님의 이름이죠. 부처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신 거죠. 마음으로 지어 놓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자연적으로.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돌아서 동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미륵이요,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지어 놨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지어 놨고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름이 된 것이니 이름 아닌 진짜 지장이 되고 약사가 되고 전부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고난을 여기 가지고 올 때 재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똥 누고 밥 먹고 아프고 죽고 자고 하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또 대신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어떤 큰일이, 자갈밭이, 가시밭이 닥쳐온다 한다면 그거를 커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보신이 되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약사가 되고 그래야지, 어디에 기대고 노예가 될 것입니까? 어디를 믿고 그렇게 기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모르시면 죽어서도 그 차원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 모습이나 가지고 이 세상에 또 출현하게 되는데 그 고를 어떻게 면하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의 뜻을 알아서 배우시라는 얘기죠. 부처님도 그렇게 당시에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이 이름대로 그렇게 많고 그러신가?' 하고 모르시걸랑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세어 보십시오. 남편이라는 이름과 아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또는 아빠라는 이름, 형이라는 이름 아우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여하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방 "여보!" 하면 아내가 되시죠? 그거는 뭐가 옆에 붙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누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아내가 됐다 엄마가 됐다, 남편도 됐다가 바로 아버지도 됐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하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야, 그 뜻도 말도 행도 전부 엄마로 돼 버리죠. 그랬는데 남편이 "여보, 지금 들어왔어." 하고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거는 찰나에 없어지고 벌써 아내 행동과 아내 말과 아내 뜻이 그대로, 그대로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많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가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부처님이 얼마나 이름이 많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삼천대천세계에 어느 거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이름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으니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닌 도리를 안다면 둘이 아니게 나투는 그 경지에 이르느니라. 그 경지는 바로 열반이며 구경의 경지에 이르면 구경각지를 얻으리라. 이름 없는 구경에 이른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이르러야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이름 없는 거기까지 이른다. 부처는 중생 속에서 나왔고 중생은 부처 속에서 나왔으니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알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꼭 알아 둬야 할 것이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다는 거, 자기로부터! 자기부터 알아야겠다는 거. 그리고 종교를 믿을 때 딴 데다가, 고상을 걸어 놓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이시여!' '칠성님이시여!' '독성님이시여!' '신중님이시여!' 온통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안 놔도 '아이고, 이거 한 군데 안 놔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고 우리 남편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그게 습입니다. 조선시대 때서부터 그렇게 탄압을 해 왔고 그래서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빌게 한 자체는 바로 승려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공부를 못 하니까 여러 군데 그것을 해 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밝고 밝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인공위성이 오르고 또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두루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공위성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빛보다 더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한생각이 중요하고 보배라는 걸,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는 걸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어 헤아릴 수 없이 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서 뚜껑을 닫아 놨다가 열어 보면 그냥 생명들이 우루루루 나옵니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선 한생각이 원자에서 입자가 그렇게 많이, 입자에서 분자가 그렇게 많이 화해서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부처님의 눈도 손도 부처님의 그 이름도, 부처님은 어느 곳에 안 계신 데가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죠.

죽은 세상에나 산 세상에나,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다 건져 주시는 그 자비.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삼라대천세계는 조화를 이루고 불바퀴가 더하고 덜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되니까 이것은 습관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지.' 하는 그러한 그 걸림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이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러니까 그것이 활이 제대로 쏘아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50%의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 50%를 같이 쥐고서
우리가 중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필 겁니다, 아마.

질문자1(여) 스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스님을 친견은 못했지만 스님의 책을 보고, 제가 평소에 특별히 크게 앓는 병은 없지만 항상 몸이 뭔가 좀 편안하지 않았는데, 스님의 소식을 듣고는 '아, 이제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 길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길이 있을 겁니다, 허허허….

질문자1(여) 그리고 제 주위에 굉장히 편찮으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시지는 못하셨는데요, 가서 스님을 친견을 하면 이분들이 편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고 간곡히 청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앉았는데, 스님의 눈이 저를 쳐다보실 때 스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눈이 마주칠 때 머리가 쭈뼛하게 아주 정말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버릇없는 짓 같지만 계속 스님을 주시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시선이 또 저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감격이 마음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스님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의리 있고 착하다면 그 옆의 사람도 아마 보살님이 병고를 낫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너는 죄가 있으니깐. 잘못하는 게 있으니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무조건 병이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중생은 모두 자비로써 그대로 그냥 무조건, 이익 한 걸로만 건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아시도록 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3월 16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기계, 인공존재 그리고 그 너머



지승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인공지능에 세상이 놀라고 있다. 바둑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알아듣고 말하는 것은 물론 퀴즈게임이나 대입 시험에서도 인간을 압도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한다. 때로는 능가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지능이라 할 만한 거의 모든 기능들을 구현해 내고 있다. 일부 기능은 인간을 앞선다. 보석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구슬들을 이미 서 말이나 쌓아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구슬은 꿸 줄 모른다. 결정적으로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은 신통한 기계에 머문다. 오온의 각 요소들은 있는데, 하나로 뭉치지는 못한 것이다.

인간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과정에 자아의식이 개입한다. 자아의식의 지휘 하에 각종 마음들이 일어나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힘이다. 자아가 개입되기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짓만 한다. 놀라운 직관력과 창의력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곡하고 날조한다. 자아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 존엄의 자리가 비어 있는 인공지능으로서는 오로지 인간 명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바둑과 같이 냉정한 게임에서는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자아가 없기에 어떤 욕망도, 어떤 집착도, 어떤 편견도, 어떤 선입견도, 어떤 계략도 없다. 그저 순백의 아이와 같다. 반면 인간은 개념과 추상을(자아의 개입) 통해 대상을 파악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아의식에 의지해 작동되는 존재들은 응당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점도 시인해야 한다.

기억력과 계산능력이 뛰어난 알파고가 인간을 조금 앞질렀다 해서 자존심이 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세돌이 반격할 수 있었던 것은 알파고가 갖지 못한 자아의식과 이로 인한 창의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존재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 판도라 상자의 열쇠는 물론 자아의식이다. 하지만 자아의식은 알고리즘만으로는 구현될 수 없다. 프로그램 자체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일종의 뭉침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이란 모든 기억과 정보들을 한데로 엮어 마치 단단한 실체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다. 그렇지만 카오스 현상을 통해 발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아무리 기계 수준의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피드백 작용을 통해 무질서 상태를 유지시킨다면 어떤 인연을 계기로 홀연히 자아의식이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류의 앞날은 풍전등화다. 자아의식을 갖는 인공존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윤리니 상식이니 법이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만을 위한 법규는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낼지 모른다. 인간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인공지능과의 갈등을 풀어줄 묘수는 없을까? 붓다의 과학에 답이 있다. 자아로 발생된 문제는 무아로 풀어야 한다. 인간이건 인공존재건 자아란 애당초 실체 없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모두가 이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고통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자아의식이 카오스에서 창발 되듯이, 무아의식의 창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무아의식이 생겨난 인공존재라면 짐작컨대 기계덩어리에 불과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알파고와의 승부는 가려졌다.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에 앞서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첫째 인공존재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아에 대한 본질적 탐구에 매진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붓다의 과학을 받아들이고 구현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을 학습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인류의 미래는 인공지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 달려 있는 이유다. 셋째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기억력과 계산능력은 인공지능에 뒤쳐진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도 내려놓아야 한다. 짐을 벗음으로써 무아의 지혜, 공성의 지혜로 새로운 세계를 밝혀야 한다.

특별기고

맹난자 작가의 〈본래 그 자리〉를 읽고

실존을 위한 생의 찬가



홍혜랑
수필가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에는 오류가 없다' 는 상대적 관점주의가 기염을 토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다. 하지만 작품의 내재세계는 여전히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맹난자 작가의 〈본래 그 자리〉는 내용의 깊이와 스케일로 보아 필자가 뛰어들 강이 아니다. '인간은 참으로 넓어' 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 그대로 저자 맹난자가 섭렵한 독서의 범위가 참으로 넓다. 주역으로부터 공맹(孔孟), 노장(老莊)에 이르는 동양철학의 고전은 물론 미국, 러시아, 유럽, 중남미, 일본 등 수백 명의 근현대 작가 그리고 철학가, 예술가들의 생애와 사상이 도도하게 출렁이는 대하가 〈본래 그 자리〉다.

맹난자는 죽음에 천착하는 철학수필가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도 죽음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론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한 지극한 성실함, '지성(至誠)' 을 만난다. 지성이야말로 인간에게 허락된 실존적 삶의 전부가 아닌가. 그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살지 못하고' 사라진 인생에 대해서" 다. 삶을 '가장 근원적인 차원' 에서 살고자하는 집요한 실존의식이다.

〈본래 그 자리〉는 '철학을 품은 문학' 이다. 제1장에 펼쳐지는 문학적 플롯뿐만 아니라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저자의 감성적 숨결은, 지성의 소통 또한 감성에 바탕 해야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7장은 '마음에 대하여' 다. 저자는 '물들지 않은 불교적 마음' 을 독일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선험세계' 에서 만난다. 칸트철학에 대한 맹 저자의 통찰은, 독자에게 한 글자도 놓칠 수 없는 호기심과 긴장을 자아낸다. 그는 칸트의 유명한 저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소개한다.

먼저 〈순수이성 비판〉이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에 대한 맹 저자의 이해다.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대상을 인지하는 틀, 즉 선험형식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은 언제나 선험적 조건이라는 형식에 담겨져 모양을 갖추게 된다' 는 칸트의 그 순수이성에서 맹 저자는 불교의 간화선에서 말하는 '참나' 로 들어가는 통로를 보았다.

이런 칸트에게 맹 저자는 불교의 '진여심' 이라는 카드를 내놓는다. 즉 초월적 자아에 대한 직관이 불교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월적 자아에 대한 직관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이긴 해도 여기까지는 칸트와 맹 저자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같은 길을 걷는 듯 했다. 문제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터진다.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천이성의 본질은 '자유' 이다. 칸트가 자유의 실현을 위해 찾아낸 보편적 행동원리는 도덕률 즉 양심이었다. '내 머리 위엔 별빛 찬란한 하늘이 있고 내 가슴 속엔 도덕률이 있다' 〈실천이성 비판〉의 마지막 결론 모두(冒頭)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된 쾨니히스베르크 칸트 무덤의 묘비명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 맹 저자의 칸트에 대한 반격은 불꽃 튄다.

칸트의 에고가 양심이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이상적인 인간만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인간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는 묻고 있는 주체가 무명업식에 왜곡된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중도가 아닌 낙공이 칸트의 한계였다.

책을 덮는다. 저자 맹난자가 '본래 그 자리' 로 돌아가는 여정,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방향이 아니라 성향이었다. 똑같은 외적 삶의 조건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의 혈관 속에는 '뼈대 있는' 정신적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이다.

社說

조계종단 수익사업 진출 신중해야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17일 안건을 처리하고 제205차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종회에서 눈길을 끄는 법 개정은 종단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에 대한 기반 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사업부 개설은 그동안 80%에 달하는 종단 재정의 분담금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고령화로 인해 분담금을 내는 개별 사찰들도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비영리를 표방하는 종교가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더라도 종교가 가지는 교리와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은 생수를 제외하고는 수익사업이 미진하다. 이 생수 사업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시작 당시 찬반 논란이 있었다. 또한 불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조계종이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전개했을 경우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종회 의결과정에서도 "종교단체가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다면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주경 스님)"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다툼 발생 시 종단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업 진출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선광 스님)" 등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자체적인 수익구조에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수익사업은 공공선(公共善)에 입각해서 추진돼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다.

'한국밀교문화총람' 발간에 거는 기대

진각종이 올해 창종 70년을 맞아 한국 밀교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불사를 시작했다. 한국 밀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역사적·문헌적 토대 마련을 위한 이번 편찬 불사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0억 원(국고 지원 1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총람 편찬 불사와 관련한 조직을 구성을 끝마쳤다. 편찬을 위한 각 분과들도 만들어져 분임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밀교문헌정보 분과는 불교경전으로 분류된 밀교문헌의 목록과 결집 및 이와 관련된 해제·출판을, 한국밀교사 분과는 한국에 전래된 밀교의 과정과 가치 연구를, 한국진언문화 분과에서는 유적, 유물 등 진언문화의 수집 등을 담당한다.

한국의 밀교는 4세기 경 유입돼 면면히 신앙돼 왔다. 불교 도입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밀교지만, 역사와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과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중에게 낯선 것도 사실이다.

이번 편찬 사업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1700년 한국 불교문화에서 정립되지 않던 밀교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연구·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밀교의 문화재와 밀교저술을 통한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위상 정립을 비롯해 밀교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 활용 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창종 이후 발전을 거듭해 역사가 70년에 이른 진각종은 100년 불사를 준비 중이며, 올해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그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밀교 종단으로서 〈한국밀교문화총람〉 발간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 시대의 화제의 인물, 세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어야 한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

소원성취, 氣 효험 입소문 하루에도 수 십명 찾아와..

매년 100회 이상 (氣, 역학) 전국 순회강연
뜨거운 찬사,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의
숨겨진 비밀은..

NAVER 검색창에 만녕스님 을 쳐보세요

| 만녕스님 친견 인생상담 접수중 |


황금 복 돼지를 그리시는 만녕스님

정월 초하루 새벽 팔공산 갓바위 공기는 차고 매서웠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어김없이 갓바위로 신년기도에 들어가는 만녕스님 여느 해와 다름없이 108배를 올리고 무상의 경지에 들은 스님에게 갑자기 무아의 경지에 빠져드는 현몽을 꾸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세상이 온통 황금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니 금의를 입은 부처님의 형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앉아계셨다. 그 부처님 사이로 금빛이 유별나게 빛나는 황금 복돼지 두마리가 달려와서는 스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었다. 그 현몽을 하고나니 날아가고픈 맑아진 영혼을 느끼며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매일 해오던 냉수마찰로 몸을 씻은 후 갑자기 붓을 들었다. 현몽에 보았던 황금 복 돼지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돼지 그림이라고는 처음 그려보는 데도 현몽에서 본 돼지 모양이 똑같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사주에 따라 그려지는 ..

그때 마침 달마도 한 점을 모셔가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서 광학렌즈사업을 하시는 중년 보살님 한 분이 정해년 첫 손님으로 아침일찍 송곡사에 찾아오셨다. 달마도를 모셔가기 위해 찾아온 보살님에게 달마도는 그려 드리지 않고 그리고 있던 돼지 그림을 한 번 모셔가 보십시오 하고 돼지 그림을 드렸다. 그런데 보살님은 이 돼지 그림이 달마도 인줄 알고 두말 않고 가져 가서는 아들 방 머리맡에 걸어두고 다음날 돼지 그림인 줄 알았지만 마흔 두 살 먹은 큰 아들이 십년동안 선을 약 5~60번 보았는 데도 결혼 성사를 시키지 못 하였는데 이 그림을 걸고 보름만에 성사가 이루어 지는 것 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노처녀 노총각을 둔 부모님들이 하루 에도 수십명씩 돼지그림을 모셔가기 위해 찾아오는 것 이었다.

대전의 모 젊은 보살님은 시집 장가 못 가서 찾아 오신게 아니고 남편이 공사장에 막노동을 하시는데 하루는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병원을 찾아가 보았으나 특별히 부러진데 다친데 진단이 나오지 않아 열흘동안 집에 누워 계시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가져다 걸고 이틀만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

대구 경산에서 삽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처사분은 식당운영이 되지 않아 식당을 정리하고 전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돼지 그림 한점을 식당에 걸자 팔려고 하던 식당에 손님이 넘쳐나 옆 가게까지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 시켰다고 한다.

부산 동래 온천동에 계신 보살님은 오년전에 지인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소식도 끊어지고 돈 받을 길이 없어 화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모셔놓고 열흘만에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고맙다는 답례로 문안전화가 자주 온다고 한다. 위 사례 외에도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및 여러 사례의 감사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

만녕스님은 원래 달마도 백호도, 같은 기화로 명성이 높았는데 황금 복 돼지를 줄곧 몇 년 동안 고집하여 그리시는 이유는 그려가신 분 마다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효험의 소문을 듣고 하루에도 수십명씩 찾아오니 계속 그릴 수 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중생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관용과 가피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리실거라고 하신다. 사주 (생년, 월, 일, 시)가 스님의 머리속에 입력이 되면 혼이 담긴 한 점 한 점의 작품이 사주 따라 붓끝이 움직여 그려지는 것은 바로 갓바위에서 현몽해 주신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려 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 053-657-0108
대구 수성구 황금동 773-2 송곡사
www.songgoksa.com